

**프로그램장학금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활동 보고**

<b>팀 명</b>	불사조			
<b>제 1 차</b>	<b>일시</b>	4월 8일 (토) 오후 1시	<b>장소</b>	비대면(Zoom)
<b>참석명단</b>				
<b>결석명단</b>	없음			
<b>활동내용</b>	<p align="center"><b>영상 요약-공산당 영도 체제</b></p> <p>사회를 이해하려면 움직이는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국은 권위적이고 일당 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국가가 아닐 수 있지만, 통치 체제의 면에서는 낙후되지 않았다. 정치체제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p> <p>-민주 건설: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주권을 행사해서 그 나라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것          -국가 건설 or 제도 건설: 국민이 필요한 정치적 공공재를 나라가 공급해 주는지</p> <p>정치적인 측면, 민주 건설 측면에서 중국은 후진국이지만 국가 건설 측면에서 본다면 후진국이 아니다. 경제발전은 정치 민주화와 상관없고 국가 건설 즉 교육제도, 인프라,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중국의 통치 체제를 부정적 측면으로 보면 권위주의 국가이지만 긍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국가 체제로서는 상당히 발전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p> <p align="center"><b>정치적 공공재</b></p> <p>물질적-국가가 나를 적으로부터 지켜주는지,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해주는지, 법질서를 지켜주는지          정신적-자유 평등 공정을 얼마나 실현하는지</p> <p>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공급해 줬을 때 그 나라의 국가 건설이 성공하고 통치 체제가 훌륭하다고 평가. 이는 중국이 40년 동안 GDP가 100배 성장한 것을 설명 가능. 중국은 권위주의적 모습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질서가 잡힌 국가.</p>			

##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차이점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영도 체제.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권당이 끝.

중국의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영도당

집권당: 집권당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정당.

영도당: 국가/사회/인민을 특정한 방향(사회주의 건설)으로 인도하는 정당.

권력 장악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주의라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정당

공산당은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이자 영도당. 한국은 국가와 사회만 있고(단순한 직선적인 관계) 중국은 국가와 사회(기업, 문화단체, 사회조직 모두 포함) 위에 공산당이 있음. 국유기업은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영도, 사영기업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 큰 틀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 하에 있다.

## 공산당 <당장>의 규정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고,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정당 정부 군 민간 학교와 동서남북 중에서 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괴리 발생.

과연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책인가?

공산당원 중 노동자와 농민은 소수. 사회주의에서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중국에는 당의 헌법과 국가 헌법 두 개의 헌법 존재. 국가 헌법에도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의 파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국에서 최고의 안전=공산당의 영도 체제를 수호하는 것

현재 중국의 영도 체제는 공산당 당장과 국가 헌법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 핵심 무력 기관은 모두 절대영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 권력기관이면서 의회이다. 헌법에 따르면 공산당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국된 이후로 전인대가 공산당을 감독한 적은 없다. 중국이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 경제적으로는 인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동 부유가 실현된 사회. 막스-레닌이 규정한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 정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 공산당 영도 체제의 필수요소

### 1) 공산당 영도의 원칙

역할: 공산당 영도 체제의 이론적 정당화, 실제 행동 원리와 활동 지침

세부 요소: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 민주집중제 원칙, 당관 간부 원칙, 통일전선 원칙

1. 공산당 전면 영도: '공산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중국의 민주화: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을 폐지(다당제 도입)

외자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건설되어 있다.

2. 민주집중제: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한다'

혁명 과정에서는 민주 원칙과 집중 원칙 둘 다 강조, 건국 이후에는 집중 원칙 강조.

-민주 원칙: 공식 결정 전에 자유로운 토론과 발표

-집중 원칙: 공식 결정 이후 철의 규율로 복종과 집행

-네 가지 복종 원칙: '당성의 견지'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 <당장>: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수호한다"

3. 당관간부: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중요성: 공산당의 인상 독점 정당화<->중국의 민주화: 당관간부 원칙 폐지

간부직무명칭표: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이 제도 시행하는 중. 공산당이 임명하는 직위를 리스트를 만들어 임명, 아래 일급 관리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실행

4. 통일전선: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합작'

공산당 밖의 중요 인사와 조직을 통제,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산당 통치의 위협 세력 발전

애국 통일전선- 민족, 계급, 정파를 모두 포괄

정협은 공산당원이 아닌 나머지 주요 세력들을 다 모은 조직.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같이 개최하는데 정협에서의 결정은 법적 효력 없음

## 2) 공산당 조직과 당원

역할: 공산당 영도 원칙의 실현 수단

세부 요소: 중앙조직/지방조직/기층조직, 영도 기관과 사무기구

## 3) 공산당 통제 기제

역할: 공산당 영도 체제의 유지 수단, 국가 헌정 체제를 통제하는 수단

세부 요소: 인사 통제, 조직 통제, 사상 통제, 무력 통제, 경제 통제

->원칙을 실현해 줄 수단으로서의 당원과 조직을 통해 국가와 사회와 인민을 통제, 영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마스-레닌이 말하는 사회주의와는 다름.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일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인 동시에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며 이것은 오직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

영상 요약정리를 통해 함께 학습한 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각자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중국의 간부 선발 방식**

-매우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간부 총원 방식이 분명하게 외부로 드러나는 일은 없다.

-간부 총원에서 현재 중국 내에서 주로 거론되는 요소는 크게 일곱 가지이다. 절대적 조건으로 거론되는 성과, 업적, 사회적 평가

여기에 상대적 승진요건으로 거론되는 것 : 나이(젊음), 학력, 직무 경험, 동료 평가, 지도자 네트워크, 기회, 기층 경험 등

공산당 당원 양성 과정 : 공산당에는 촘촘하게 짜인 교육제도와 기관들이 존재한다. 공산당원인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면서 미리 발굴해 선별해내고, 이렇게 누적관리 된 인재들은 대학생이 되어 당에 가입하게 된다. 약 2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당원으로 선발되고 난 뒤에는 각 분야의 일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방위적인 평가를 받으며 승진하게 되면 상급기관으로 진출한다.

-지방 간부 약 700만명 중 지도자급 엘리트 인재로 성장할 확률은 1/14,000이며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3년이 걸린다. 공산당은 엄청난 경쟁과 평가, 오랜 학습과 단련을 거친 인재들의 집합체이다.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또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를 포함한다.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이므로 일단 자본주의를 도입 성공한 다음,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론을 제시하여, 중국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도입하였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 인민의 경제건설, 개혁개방 혁명을 실천하는 중국식 현대화 노선을 가리킨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공산당의 영도,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 노선, 현재 중국의 특수성 고려 세 가지이다. 이는 사회 전 분야에 있어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 덩샤오핑이 주장한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야 하고, 현재 중국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꾸준히 변해왔고 현재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는 도시노동자이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자계층이 출현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반면, 중국 사회주의에서는 혁명의 주체가 농민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포될 무렵은 농민이 많은 농업중심사회였다.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마오쩌둥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궁핍한 농촌인민을 위한 혁명 사상이 성립된다. 그리고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사회주의 정치이념으로 통일이 된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덩샤오핑부터 다른 색채를 띠는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경제가 많이 지체되어 덩샤오핑이 이를 추스리고, 이후 경제는 자본주의/정치는 사회주의의 이중 색채를 띠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는 개혁을 거치면서 정통 마르크스-레닌 사회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공산당 입당 자격

중국 공산당 당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9,671.2만명이며, 상무위원 7명, 정치국원 24명, 중앙위원 171명, 당 대표 2296명이 구성되어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는데 특별한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입당과 탈당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입당자격은 엄격하고 입당했더라도 마음대로 탈당 하지도 못한다. 우선 '중국공산당장정'에 따르면 입당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중국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분자와 기타 혁명분자로 당의 조직에 참가하기를 원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입당을 신청할 때 2명 이상의 당간부의 보증이 있어야 하고, 당지부에 보고되면 예비당원으로서 1년 동안 자격심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산당원이 되는 특혜는 없다. 한 차례 입당이 거부되면 다시 한 번 입당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두 차례 떨어지면 입당은 영원히 불허된다.

### 다음활동일정

2주 차 활동은 공산당 조직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요약정리 후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활동증빙**  
(비대면프로그램  
활동 캡처자료  
등)  
2장 이상



프로그램장학금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활동 보고				
팀 명	불사조			
제 2 차	일시	4월 15일 (토) 오후 1시	장소	비대면(Zoom)
참석명단				
결석명단	없음			
활동내용	<p><b>영상 요약-공산당 영도 체제</b></p> <p><b>공산당 조직의 중요성:</b> “공산당의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힘은 곧 조직이다” 공산당은 당원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에 소속되어야 하고 조직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p> <p>예를 들어 코로나 봉쇄정책 한국이었을 경우 공무원들이 와서 봉쇄하고 물자 공급하고 방역을 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2020년 우한을 봉쇄했을 당시 4만명이 우한에 모였는데 대다수가 공산당원이었다. 봉쇄하고, 방역하고, 물자 공급을 공무원이 아니라 공산당 기층조직이 하였다. 공무원은 소수이기에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공무원은 700만명밖에 안된다.</p> <p>공무원은 국가에서 내는 시험에 합격해서 국가에서 일하며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공산당원은 9600만으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비상시 국가조직도 움직이지만 진짜 움직이는 실체는 공산당 조직이다.</p> <p><b>그럼 공산당엔 어떤 조직이 있는가?</b></p> <p>편의상 공산당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원회와 기층조직으로 나뉜다.</p> <p><b>각급 공산당 위원회(머리와 몸통)</b></p> <p>-중앙위원회</p> <p>-지방위원회: 성급/ 시급/ 현급</p> <p>각급 공산당 위원회(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다 있다)는 모든 것의 영도 핵심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당 위원회는 베이징시의 영도 핵심이다. 베이징시에서 일</p>			

어나는 모든 일의 중요한 것은 다 결정한다. 그러나 의사 결정은 하되 당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 **공산당 기층조직 (모세혈관)**

-기층 위원회 / 총 지부 위원회 / 지부 위원회

이외에도 2가지 조직이 더 존재

### **공산당 당조**

-가기관/ 국유기업/ 인민 단체/ 사업 단위 등국

### **공산당 영도소조**

-'정책 결정 의사 조정 기구'

전국대표대회(당대회) 2296인: 5년에 한번 열리기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이벤트로 봐야 하기에 무시해도 좋다.

중앙 위원회 376인: 1년에 한번 열리기에 중앙 위원회가 중요하고 중요한 결정을 여기서 내린다.

중앙 위원회에서 총서기,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요 인물을 여기서 뽑는다. 중국에서 통치 엘리트는 중앙위원회에 속한 사람을 뜻한다. 중앙 위원회에서 정의원(표결권이 있는사람) 205명, 후보위원(표결권은 없고 회의에 참석해 발언권만 있는 사람) 175명으로 나뉜다.

실질적으로 말하는 공산당 중앙은? 정치국 24명 거기서도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공산당 중앙을 볼 때는 총서기,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만 보면 된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것을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부른다.

### **공산당 조직: 정치국 상무위원회**

#### **집단지도 체제**

원칙:"집단 결정과 개인 분담 책임의 결합 원칙"

- 집단 결정: 당대회>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

- 개인 분담 책임: 정치국원/상무위원은 고유 임무 분담

중요 사안도 시진핑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무위원회 7명이 결정하기에 집단결정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 분담 책임이라고 부른다.

조건: 권력 분점과 협의 타협 통한 문제 해결

-권력 분점: 여러 정치세력이 권력기구 공동 구성

-협의 타협: 인사와 중요 정책은 회의 통해 결정

필수요소

-당내 법규(당규)의 제정과 집행: 각 기관의 권한과 절차

-정치국/상무위원회 구성: 주요 권력기관의 현직 지도자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

7명은 그냥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틀이 존재하는데 공산당 총서기, 국무원 총리, 전국인대

위원장, 전국정협 주석, 중앙기위 서기, 서기처 상무서기, 국무원 부총리가 뽑힌다 - 당, 정, 군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인 곳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렇기에 각자의 역할들이 존재한다.

개인 분담 책임이기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북한의 외교정책, 미국과의 외교정책, 대만의 문제 같은 것들을 잘못하면 -> 1차적으로 시진핑이 책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 운용을 잘못했다, 코로나 시국을 잘못 막았다 ->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

## 공산당 조직: 주석과 총서기

### 주석과 총서기의 차이

#### 지위

-주석(毛):공산당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

-총서기: 중앙서기처를 총괄하는 당내 지도자

#### 직권

-주석(毛): '최종 결정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

-총서기: '동급자 중 일인자'

### 공산당의 중앙 주석 폐지: 공산당 12차 당대회(1982)

- '제2의 마오쩌둥'(독재자)의 출현 방지

- 집단 지도 체제의 구성과 운영

### 다양한 스타일의 총서기

장쩌민: '권력의 화신'

- 혁명 원로의 퇴장(1992년)으로 '시어머니' 부재
- 권력 강화: 판공청 확대/ 영도소조 강화/ 지방 간부 통제

**후진타오: '당내 민주주의 실천가'**

- 당내 민주주의 확대: 각 기관의 책임자에게 권한 확대
- 이유: '장쩌민 세력'의 횡포 억제

**시진핑: '감투 수집가'**

- 권력 집중 체제의 구축: '제2의 마오쩌둥'?
- 방법: 부패 척결/ 공산당 전면 영도 추진/ 영도소조 강화

**공산당 조직: 당조와 영도소조**

**공산당 영도 체제의 두 가지 고민**

**공산당 밖의 국가기관/국유기업/단체의 영도 문제**

- '부서이기주의'의 만연 (국무원 총리이자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상무위원인 사람은 국무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산당 위원회에서 외교부장을 임명하면 그 사람은 외교부의 이익을 이야기함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이야기 하는 것)

- 법적으로 공산당 하부 기관이 아님: 국무원, 전국인대 등

**수많은 기관과 조직(공산당/정부/의회/법원/검찰/군대)의 조정과 영도**

- 공산당은 '영도당'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관리해야 함
- 영역별로 다양한 당정기관, 경제조직, 사회단체 존재

**-> '특별한' 영도 조직 필요: 타국에 없는 중국만의 특징**

공산당의 영도체제를 운영하려면 이런 공산당 위원회라는 조직 외에 2가지 조직이 필수이다. 공산당이 당면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산당 바깥에서 짚는 조직과 기관을 컨트롤 -> 당조

당, 정, 군 수많은 조직을 묶어서 통치 -> 영도소조

**당조**

인민단체-사업단위-국유기업-군-공산당-정부-인대-정협-법원검찰원

이 조직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당조(공산당 중앙의 파견 기구)를 만들.

공산당이 통제하는 방식: 국무원 총리이면서 국무원 당조 조장인 경우 국무원 이면서 공산당 중앙의 파견자이기에 이중 신분으로 결정을 내릴 때 국무원의 입장과 공산당의 파견자로서 공산당의 입장을 전부 생각해야 한다.

## 영도소조

당조 외의 나머지 수많은 부서를 7개로 묶어서

조직인사/선전교육/정치법률/재정경제/통일전선/외사/군사 7개의 분야로 나누어 놓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각 태스크 포스를 하나씩 만들어 두는 것 ->영도소조

## 공산당 조직: 지방조직

**공산당 지방 위원회: 당의 '몸통'**

**성격: '해당 지역의 영도 핵심'**

- 행정구역 내 모든 곳에 설치

구분: 행정 급별에 따른 분류

- 성급(31개): 성22/소수민족 자치구5/직할시4

- 시급(333개): 시/소수민족 자치주/지구

- 현급(2,846개): 현/시/구/기/기타

- 향급(38,755개): 향/진/가도/기타

**구성: 공산당 중앙과 유사한 구성과 운영**

## 공산당 조직: 기층조직

**공산당 기층조직: 당의 '모세혈관'**

성격: '사회 기층 조직에 있는 당의 전투 보루'

- 3인 이상 당원이 있는 모든 곳에는 기층조직 설립

**구분: 설립 대상에 따른 분류**

- 구역: 농촌의 촌락/ 도시의 사구

- 단위: 기업/ 학교/ 연구소/ 병원/ 단체 등

**종류: 당원 규모(수)에 따른 분류**

- 기층 위원회: 당원 100명 이상

- 총 지부 위원회: 당원 50-100명 사이

- 지부 위원회: 당원3-50명 사이

요약정리를 통해 함께 학습한 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각자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영도소 조

◦ 설립된 이유 : 중국 관료체제는 수직적 관리와 수평적 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수평적 협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부문이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는 영도소조라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했다.

◦ 역할 : 영도소조의 기본 역할은 정보 처리와 정책 수행 등의 측면에서 고위 지도부와 주요 부처 간에 교량이 되는 것이다.

영도소조는 정책 결정에 앞서, 특정 문제에 대한 정책 협의와 제안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료들(계통 초월)을 소집한다. 이는 정책 협의 과정에서 관련 행정조직들이 참여하여 정책 수행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영도소조는 그 중요성이나 존속 기간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대국적이거나 전략적 업무는 장기성을 가진다. 반면 돌발적이거나 임시성을 갖는 업무를 위해서는 단기적 성격의 영도소조도 설립된다.

- 조장과 부조장 모두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는 영도소조는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 각 부문 간의 권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개혁개방 이후 부문을 넘어서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급증했기 때문에 영도소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집행력과 효율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 공산당 기층 조직

중국 공산당은 크게 중앙, 지방, 기층 3층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뤄진다. 이 중 가장 하위인 기층조직만 500만개다. 마치 모세혈관처럼 국가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사회단체, 군부대, 병원, 시골 마을까지 곳곳에 뻗어 있다. 당원 3명 이상이 있는 모든 단체, 민간기업, 외국계 기업까지 당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기층조직이란 당원 및 일반 대중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최일선 당 조직을 의미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모든 사업과 전투력의 기초이며, 기층조직 건설은 당 조직 건설의 기초사업이다.

기층 단위에서 3인 이상의 당원이 있을 경우에 기층 조직 건립이 가능하다. 기층조직은 당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대중에 알리고, 상부의 결정을 집행하고, 사회 균형을 조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당원을 교육, 관리, 감독하고 인재 흡수 역할도 담당한다. 각 생산현장 일선의 청년들에게 당이론을 학습시켜 미래 공산당원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당의 기층조직은, 업무의 필요성과 당원 수에 의해 그 형식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00명의 당원을 초과하는 기층단위는 상급 당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의 기층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며, 기층위원회 하부에 총지부나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당원이 50명 이상이 있는 기층단위에서는 당의 총지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하부에 약간의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정식 당원이 50명 이하인 기층단위에서는 당의 지부만 설치할 수 있다. 3명 미만의 당원이 있는 기층단위에서는 인근 단위의 당원과 연합으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혹은 대표대회에서, 총지부 위원회와 지부 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 **당조와 영도 소조**

당조: 공산당 파견기관 성격을 가지므로, 소속기관의 대표가 아니라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산당이 비당 조직을 통제한다. 군대는 물론 국가기관, 그리고 각종 기업이나 이익단체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영도소조: 외교, 정법 등 다양한 기관들이 수행하는 임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영도하기 위해 공산당이 설립한 특별한 영도 조직이다. 예를 들어, 외교 분야에는 공산당 대외연락부, 국무원 외교부, 신화통신사 등 외교 관련 부서들이 모두 모여 구성한다.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지방 성 차원에서도 유사하고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중국 전체로 치면 수백만 개라고 한다. 시진핑의 경우, 핵심적인 여러 소조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경제와 국방 등 실질적인 권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시진핑이 조장을 맡고 있는 소조가 10개나 된다고 한다. 소속된 소조가 많으면 정기적으로 정해진 회의숫자만 해도 매우 많아서 많은 정책이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 **주석 차이**

공산당 12차 당대회(1982)에 공산당의 중앙 주석이 폐지되었다고 나온다. '제2의 마오쩌둥'(독재자)의 출현 방지와 집단 지도 체제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폐지되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을 어떤 글에서는 총서기로, 다른 어떤 글은 주석으로 지칭한다. 주석은 폐지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쓰이는 주석과 폐지된 주석의 차이는 무엇인지, 총서기는 어떤 것인지 조사하였다.

총서기로 쓰이는 직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이다. 이는 시진핑을 검색하면 나오는 그의 직책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직책이다.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임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에서 최고의 정책 결정 집단은 흔히 중앙

	<p>혹은 당중앙이라 부르는 중앙위원회이고, 이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총서기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직책을 맡아 중국을 이끌고 있다.</p> <p>시진핑 주석이라고 불릴 때 쓰이는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주석이라 부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직책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직책이라 생각하면 된다. 또한 시진핑은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하다.</p> <p>그렇다면 위에 폐지되었다는 주석은 무엇인가? 1945년부터 1982년까지 존재했던 중국공산당의 최고 수위 자리이다. 국가적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국가주석)과 구별하여 당 주석(중공중앙주석)이라고 불리었다. 오늘날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당헌상 직권이 훨씬 더 강력하였다.</p>
<p><b>다음활동일정</b></p>	<p>3주 차 활동은 공산당 당원 입당 조건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요약정리 후 추가 내용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p>
<p><b>활동증빙</b> (비대면프로그램 활동 캡처자료 등) 2장 이상</p>	



**프로그램장학금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활동 보고**

<b>팀 명</b>	<b>불사조</b>			
<b>제 3 차</b>	<b>일시</b>	5월 6일 (토) 오후 2시	<b>장소</b>	비대면(zoom)
<b>참석명단</b>				
<b>결석명단</b>	<b>없음</b>			
<b>활동내용</b>	<p style="text-align: center;"><b>중국 공산당 당원</b></p> <p>중국 공산당 당원은 총 9600만명 정도이다. 중국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 당원은 간부당원과 평단원으로 나뉘는데, 간부당원은 당원이라는 정치적 신분과 자신의 직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다. 대략 700만명정도 된다. 평단원은 자신의 직업은 따로 있고 공산당원은 정치적 신분인 사람들이다. 대략 9000만명정도 된다. 종교인으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일은 다 하고 공산당원이라는 정치적 신분으로 따로 정치적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 <p>왜 공산당원이 되려고 하는가? (매년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인원은 2000만명 정도인데 약 3-4년이 걸려 정식 공산당원이 되는 인원은 200만명이 안된다. 신청한 인원의 10%가 안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p> <p>공산당원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원으로 살면서 이웃과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이 더 크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 희생한 이들이 공산당원이다. 중국인이 아니라면 중국 내 공산당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p> <p>공산당원이 되면 특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됐다는 것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엘리트'임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또한, 공산당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당원이 아니면 중국 정부의 핵심 보직에 접근할 수 없다. 중국에서 '정치적 출세'를 원한다면 당원 가입은 필수다.</p> <p><b>입당 조건 : &lt;당장&gt; 규정</b>  만 18세 이상 / 중국 국적 / 각계각층의 '선진 분자'  '선진 분자'의 판단 : 공산당의 엄격한 선별을 통한다. -&gt; 상위 6-7% 엘리트가 모인 '엘리트 결사체'이다.</p> <p><b>공산당의 강령과 &lt;당장 승인&gt;</b>  "노동자계급의 선봉 전사" :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분투  "노동자/농민의 일원" : 사리사욕과 특권 추구 금지</p> <p><b>공산당 조직참여 / 공산당 결의 집행 / 당비 납부</b>  모든 당원은 반드시 조직에 소속하여 활동  소득 규모에 따른 당비 납부 : 6개월 미납 시 제적</p>			

## 공산당원의 의무와 권리

의무 : 8개

학습과 인민 봉사 능력 향상 , 당 노선과 방침 실천하는 선봉 모범 역할 , 당과 인민 이익에 개인 이익 종속 , 비밀 엄수 등

권리 : 8개

회의 참가 / 당 문건 구독/ 교육 훈련 참가 / 정책 토론/ 건의 / 문제 제기/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 입당 절차

### 4단계 절차

**적극 분자 -> 발전 대상 -> 예비 당원 -> 정식 당원**

기간 : 최소 2년 6개월 - 최대 4년 (평균 3년)

1단계 : '입당 적극 분자' 확정과 교육

입당 신청서 제출 : 당 지부 -> 1개월 내 선정

교육 훈련 : 1년

'육성 연계인' 지정 : 적극 분자 선도와 평가(육성 연계인은 정식 당원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사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각종 활동 참가

2단계 : '발전 대상' 확정과 '정치심사'

'발전 대상' 확정 : 당 지부위원회의 심의

교육 훈련 : 1년

'입당 소개인' 지령 : 발전 대상 선도와 평가

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각종 활동 참가

'정치 심사' : 네 가지 내용

공산당 이론과 노선 / 정책에 대한 이해와 태도

역사(예)문화대혁명)와 정치투쟁(예) 텐안먼 사건)에 대한 태도

법률 준수와 사회 도덕 준수 여부

본인과 직계 친족의 사회관계와 정치 상황 : '연좌제'

3단계 : '예비 당원' 입당과 입당 의식

'예비 심사' : 상급 당 조직(공안에 신원 조회 등)

입당 지원서 제출과 심사 : 당 지부 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 발표, 심의 , 표결

상급 당 조직에 심사와 비준 요청 : 3개월 내 회신

입당 의식 거행 : 당 위원회

4단계 : '예비 당원' 고찰과 '정식 당원' 전환

'예비 당원'의 1년 예비 시기 : 교육과 고찰

6개월 ~ 1년 연장 가능

교육과 고찰 : 상급 당 조직

'정식 당원' 전환 : 상급 당 조직

'당안'(개인 파일) : 공산당 당원은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당안을 직접 볼 수는 없다. 당서기와 조직부만 볼 수 있다. 이후에 승진 같은 것에 참고자료로 쓰인다.

### 조직생활

'조직 생활회'와 '민주 생활회'

일반 당원의 '조직 생활회' : 매년 연말/정풍운동 기간

모든 당원 참여 : 당 지부나 당 소조에서 실시

절차:자기 검토(생활과 정치사상)->상호비판->정리

영도 간부의 '민주 생활회' : 매년 연말/정풍운동 기간

공산당 중앙 정치국 민주 생활회(이틀동안 진행)

자기 검토 : 5개 중점 (시진핑 사상의 학습과 관철/

당 전면 영도 실천/ 임무 수행/ 중앙 결정 집행/ 청

렴 생활 등)

상호 비판 전개

시진핑 총서기의 총괄 평가

### 정 풍 운 동

최초의 정풍운동은 연안에서 1941-1945년까지 약 4년 동안 사상 교육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연안 정풍 운동의 절차와 방식은 이후의 다른 정풍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연안 정풍 운동의 절차는 이러하다. 첫째는 집중 학습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 마오쩌둥의 주요 연설문과 저작, 공산당의 결정 사항이 주요 학습 대상이다. 둘째는 자기 조사와 검토서 작성이다. 당원 개인의 사상과 활동을 해당 지역 및 단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야 한다. 셋째는 비판과 자기비판이다. 조사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자기 비판을 하고 다른 당원의 비판을 받는다. 넷째는 인식 제고와 경험 총괄이다. 이는 정리 단계로 당원의 사상 인식을 통일하고, 이를 토대로 당성을 강화하고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진다.

정풍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공산당의 자정 활동을 통해 당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고, 둘째는 새로 선출된 총서기에 대한 당정간부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는 반대 세력에 대한 청산 혹은 제압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정풍운동은 총서기의 권력 공고화 운동이다. 장쩌민 시기의 삼강활동, 후진타오 시기의 공산당 선진성 활동, 시진핑 시기의 군중노선 교육실천 활동이 대표적이다.

### 중 국 공 산당원 의 의 무

당원이 되면 의무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은 '모범의 의무'를 강조한다. 자신이 일하는 단위(기업 혹은 기관)에서 부당 이득이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당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어록에서 나오는 '인민을 위해 일하라'(爲人民服務)는 정치구호를 늘 앞세워 당과 인민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이 주관하는 행사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당 조직을 비롯한

각급 당 조직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징계를 받는다.

당원이 되면 당의 어느 누구 또는 어느 기관에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비리 당원을 질책하거나 고발할 수도 있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부패와 비리혐의로 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법 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공산당기율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당 기율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축첩 등 '불륜스캔들'을 당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을 가진 당원은 당비도 내야 한다. 금액은 신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봉급 생활자를 예로 들면 월급이 3000~5000위안이면 급여의 1%, 5000~1만 위안이면 1.5%, 1만 위안 이상이면 2%를 내야한다.

### 중 국의 공산당 입당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에 가입하는데 특별한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입당이나 탈당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와 다르게, 중국 공산당 입당 자격은 엄격하고 입당했더라도 탈당이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공산당 입당을 신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당간부의 보증이 있어야 하고, 당지부에 보고되면 예비당원으로서 1년동안 자격심사와 검증을 받아야한다.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산당원이 되는 특혜는 없다. 한 차례 입당이 거부되면 다시 한 번 입당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두 차례 떨어지면 입당은 영원히 불허된다.

(공청단: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젊은 학생 당원, 청년 군중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과 정치 선전을 담당하는 공산주의 청년 당조직)

당원이 되면 특혜보다는 의무사항이 더 많은데, 그 중 으뜸은 모범의 의무이다. 자신이 종사하는 단위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당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당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이 입당을 이렇게 엄격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이 주도하는 사회시스템에서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인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가는 인민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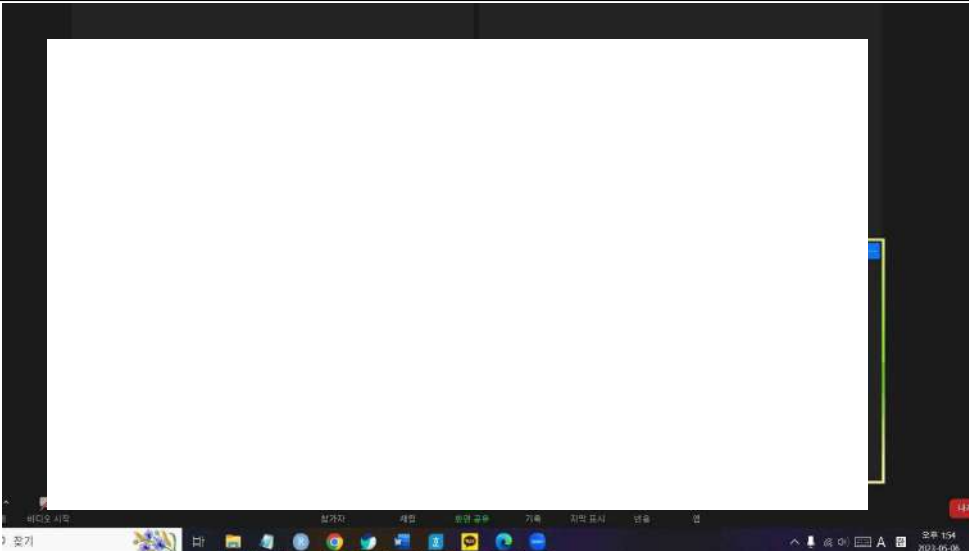
### 중 국 공 산당 당원 수 연 도별 변화 조사

1921. 7 창당 / 57명

1923. 6 / 432명

1927 / 1만

1928. 6 / 4만

	<p>1949. 10 / 448만  1956. 7 / 1073만  1969. 4 / 2200만  1977. 8 / 3500만  1987. 10 / 4600만  1992. 10 / 5100만  1997. 9 / 5800만  2002. 11 / 6694만  2007. 6 / 7336만  2009 / 7795만  2010 / 8026만  2014 / 8670만</p> <p>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재 9600만 명으로 인원수가 대한민국보다 많은 수준이기에 당원 수는 어떻게 변화해 온 것인지 궁금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13명의 대표와 50여명의 당원으로 출발했는데 2019년 기준 9,191만 4,000명의 공룡 정당으로 팽창했다. 몸집을 불린 결정적 계기는 1978년 당 11기 3중전회다. 1921~78년 57년간 공산당원은 1,570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8년을 기점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권좌에 오른 2012년 18차 당대회까지 34년간 당원은 6,128만 명 늘었다. 전체 공산당원 수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덩샤오핑(鄧小平)의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마오쩌둥(毛澤東)의 그늘에서 벗어나 과거가 아닌 미래로 방향타를 돌린 덕분이다.</p>
<p><b>다음활동일정</b></p>	<p>4주차 활동은 공산당 영도체제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요약정리 후 부족한 내용이나 각 조원이 궁금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p>
<p><b>활동증빙</b>  (비대면프로그램  활동 캡처자료 등)  2장 이상</p>	

활동시작 : 5월 6일 오후 1시 54분

**주차 - 공산당 당원**

공산당 당원은 9600만명정도 중국 전체 인구의 8%정도. 간부당원과 병단원으로 나뉘는데 **간부 당원**이란 당원이라는 정치적 신분과 자신의 직업이 일치하는 사람들 대략 700만명정도. 병단원은 자신의 직업이 따로 있고, 공산당원은 정치적 신분인 중 9000만명정도. 병단원은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중고연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일은 다 하고 공산당원이라는 정치적 신분으로 따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 \*

왜 공산당원이 되려고 **חססגח**했던 공산당원을 실행하는 연월은 2000만명 정도인데 약 3-4년에 **4배** 정도 공산당원이 되는 원형은 200만명이 만든다. 10프로그가 만드는 것으로 특수 어려운 일임. \*

공산당원은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원으로 살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지부장이 더 크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 희생한 이들이 공산당원이다. 외국인들이 중국 내 공산당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

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된다는 것은 심역과 인성을 겸비한 '엘리트'임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사회적 신뢰가 되면 중국에서 이는 상당한 이점으로도 작용한다. \*

공산당에 입당하는 것 자체가 생공과 중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원이 아니면 중국 정부의 핵심 보직에 접근할 수 없다. 중국에서 정치적 중생을 원한다면 당원 가입은 필수다. \*

**입당 조건 : <당장> 규정**

만 18세 이상/중국 국적/ **강제간첩의** '신진 분자'

'신진 분자'의 판단 : 공산당의 일관한 선발'



**프로그램장학금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활동 보고**

<b>팀 명</b>	<b>불사조</b>			
<b>제 4 차</b>	<b>일시</b>	<b>5/13 오후 1시 30분</b>	<b>장소</b>	<b>비대면 ZOOM</b>
<b>참석명단</b>				
<b>결석명단</b>	<b>없음</b>			
<b>활동내용</b>	<p style="text-align: center;"><b>공산당 영도체제의 평가와 전망</b></p> <p><b>공산당 영도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산당이라는 체제가 안 맞을 것이다.</li> <li>2. 일인체제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다.</li> <li>3. 권력투쟁이 심해질 것이다(=공산당 내부에서 분열이 생길 것이다) -&gt; 하지만 이것은 앞 영상에서 보았듯이 안된다.</li> </ol> <p>이때, 1번을 학술용어로 근대화론이라고 한다.          근대화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것이 시작이다. 산업화가 된다면 농민들은 도시로 와서 산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육이 시작되고 매스미디어의 발전도 있을 것이다.</p> <p>이 상태에서 20년만 지나면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돈도 생길 것이다. 즉, 중산층이 된다. 중산층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따질 것 -&gt;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중산층 의식, 시민의식이 생겨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근대화론이다.</p> <p>근데 이걸로 중국을 설명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제3의 민주화물결시기(1974년~1991년 소련붕괴시기) 때 민주화된 나라가 120개 정도 된다. 하지만 그 중 성공한 나라는 20퍼센트 밖에 안된다. 한국과 대만이 가장 성공한 사례이다.</p> <p>여기서 성공했다는 것은 아래의 3가지가 있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후퇴 x</li> <li>- 경제적으로 지속적 성장</li> <li>- 사회적으로 평등함 구현</li> </ul> <p>근대화론에 맞는 나라는 120개국 중에서 한국, 대만을 포함해서 10여개 정도 밖에 안된다. 나머지 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경제가 망가져서 못 견딜 것 같을 때, 전쟁에서 졌을 때 등등) 민주화가 일어난다. 퍼포먼스가 안좋을 때 민주화를</p>			

요구한다는 것.

따라서 중국을 근대화론을 갖고서 설명하면 안된다.

### **중국 영도체제를 옹호하는 집단은?**

상류층이다. 개혁개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기 때문에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10가지의 계층으로 분화되었다. 1등은 고위 당정 간부, 2등은 국유기업 경영자, 3등이 사영기업가이다. 10가지의 계층을 구분하는 요소는 사회적 영향력, 경제력, 정치적 지위(=조직력)을 고려한 것이다. 개혁개방의 수혜자들이 옹호하고 지지한다.

(사영기업가: 중국에서 사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민간 기업가)

### **막스 공산주의와 중국 특색의 공산주의**

200년 전 막스가 제기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사영기업과는 맞지 않는다. 공유제, 국유제, 기업경제로 설명할 수 있다.

근대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이다. 200년 전과는 사회가 다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내용도 다르다. 중국 스타일의 사회주의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이고, 중국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중국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있다.

시진핑의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하다. 사영기업이 중국경제를 지탱해주는데, 사영기업가를 무너뜨리면 자신들도 위험하다.

**중국의 통치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음 4가지를 검토해야지 최소 정치적 측면에서 공산당 영도체제가 지속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음

1. 국민들이 공산당 영도체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2. 공산당이 과연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3. 이데올로기의 문제 - 사회주의를 정당화 시켜야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막스-레닌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 국민뿐만 아니라 당원도 설득해야하며, 설득의 핵심은 공산당이 왜 일당독재를 해야하는가이다.
4. 엘리트 정치 파벌투쟁이 안나는가

### **권위주의 강건함**

공산당이 어떤 이유로 통치를 이렇게 오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음 (권위주의가 왜 안무너지는가)

1. 업적이 뛰어나다. 중국은 지난 40년동안 GDP가 엄청 발전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정도로 성과낸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2. 엘리트정치, 국가통치체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잡혀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도 발전한다.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다.

3. 이데올로기

이 세가지가 공산당을 지탱해주는 기본요소이고, 서로 보완을 해준다.

### **현 체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려면**

1. 바뀌는 것이 현 체제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2. 대안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만큼의 통치능력,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중국의 지역 격차**

중국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하지만 차이에 대한 탄력성이 크고, 차이가 나는 원인을 공산당으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본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이면 경제적인 차이의 원인을 공산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니 우리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안좋다고 생각한다는 뜻.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사는 지역을 떠나 잘 사는 지역으로 가겠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의 상황이고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도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방침으로 공동부유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 격차가 계속 줄고 있다.

### **공산당과 국가의 관계 (법과 제도)**

법과 제도를 통한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 법과 제도에 따라 잘 다스리는가를 보려면 당내법규(당규)가 얼마나 제정/시정 되는가를 보면 되는데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981-90년에는 10년 동안 74건이었지만,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2018년 한해에만 74건이다.

즉, 촘촘하게 당내법규와 국가법률을 만들어서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 **총정리를 하자면,**

1. 현재까지는 중국 국민이 공산당 영도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2. 공산당의 국가통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다.

3. 시진핑 사상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공산당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성공했다.

4. 엘리트정치 차원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 <시진핑 사상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

시진핑 사상은 2017년 11월 19차 당 대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날 시 주석은 시진핑 사상의 공식 명칭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본인 이름을 뺀 채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고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이룬 성과의 바탕에 시진핑 사상이 있으며, 당을 중심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진핑 사상은 중국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에 추가됐는데, 당장에 본인 이름이 담긴 '사상'이 명기된 것은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과 시 주석 둘 뿐이다.

중국의 역대 지도자는 모두 본인이 세운 공산당 지도이념이 있다. 지도이념은 공산당의 행동강령으로 승계, 발전되나 중요도에 따라 사상, 이론(론), 관 순으로 표기되며 지도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역대 지도자의 지도이념을 보면,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等少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사상이 있다. 3개 대표론의 장쩌민(江泽民), 과학적 발전관의 후진타오(胡锦涛) 전 국가주석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름은 마오쩌둥 사상 이래 유일하게 사상으로 채택되어 덩샤오핑 이론보다 한 단계 더 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처음 제시한 이가 덩샤오핑이다.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덩샤오핑보다 시 국가주석을 더 높이 평가함으로써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아닌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이전보다 더 나은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구이자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표대회는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 당장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장 수정안에 대한 당 대회 결의문은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당장에 명문화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당의 이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을 추진해 이룬 성과를 보다 잘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 중국 의 지역 격차 - 빈부격 차 >

지역 격차는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 발전 역사와 관계가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덩샤오핑이 직접 고안한 연해 지방의 경제특구로부터 시작했다. 중국 경제는 점(경제특구)을 중심으로 해운 교통이 편리하여 수출입이 용이한 연해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했다. 연해 지방 도시들이 빠르게 발전을 한 반면, 중국 내륙, 서부 지방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중국 빈부격차의 원인은 다섯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번째는 선부론이다. 소수가 먼저 부자가 되는 방식의 경제 발전 전략을 시행하면서 빈부격차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불법, 탈법 경영과 권력의 자본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세번째는 중국의 세금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납세액 순위를 보면 중국의 유명한 부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번째로 농민, 퇴직자, 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한 사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불평등한 경쟁을 꼽는다. 국영기업과 같이 독점적 허가권에 기반하여 독과점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아직 많다.

중국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중국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는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서부 대개발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고속철도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외되었던 중서부를 집중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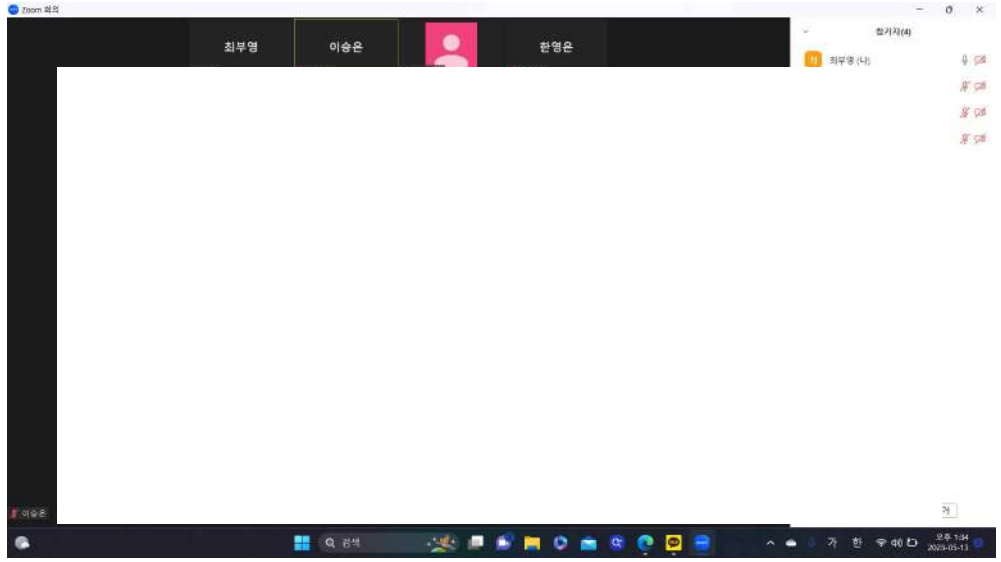
####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 관리하의 자본주의 제도가 실시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본래 중화인민공화국 특색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쩌둥 사상의 개념이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사상이다.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서며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제창하며 이를 당의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지도사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의미하며 신시대는 중국이 중속성장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시진핑 정권은 이 시기의 핵심 해결 과제가 증가하는 국민의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충분하지 않은 경제발전, 그리고 소득불평등에서 오는 모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질적성장, 내수중심,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시사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뜻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시기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샤오강 사회(샤오강 사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경제사회 상태를 의미)의 달성 및 사회주의 현대국가 실현을 목표 세우고 세부 실행계획을 지속 수정 보완하고 있다.

	<p>&lt;중국의 공동부유&gt;</p> <p>'공동부유'는 글자 그대로 '같이 잘 살자', '부의 분배'라는 뜻으로, 2021년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면서 중국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1년 8월 17일 열린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 내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한 공동부유를 국정 기조로 밝혔다.</p> <p>공동부유는 민간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인민과 나누자는 것으로, 소수에게 부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산당 질서 아래 재집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래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때인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선부론(先富論,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돼라)을 앞세워 성장에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성장'이 아닌 '분배'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p> <p>중국은 이러한 공동부유를 내세워 교육·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문화여유부(文化旅游部) 역시 '연예인 교육 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연예인들은 &lt;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gt;을 공부하고 법률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교육 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과 수업 관련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킨 데 이어, 2021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1~2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고 나머지 학년도 기말고사만 치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p> <p>특히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를 내세워 알리바바·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관련 기업들에 중국 공산당이 직접 운영하는 국영 노동조합인 공회 결성을 독려하고, 이들 기업들의 초고속 성장의 기반이 됐던 '996(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불법으로 명시했다. 이에 공동부유의 핵심 표적이 된 알리바바는 9월 2일, 오는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b>다음활동일정</b></p>	<p>5주차 활동은 인사통제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요약정리, 추가내용 조사 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p>
<p><b>활동증빙</b> (비대면프로그램 활동 캡처자료 등) 2장 이상</p>	



**프로그램장학금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활동 보고**

<b>팀 명</b>	불사조			
<b>제 5 차</b>	<b>일시</b>	5월 20일 (토) 오후 7시 30분	<b>장 소</b>	비대면(Zoom)
<b>참석명단</b>				
<b>결석명단</b>	없음			
<b>활동내용</b>	<p><b>공산당이 어떻게 국가, 사회, 국민을 통제하는가?</b></p> <p>-통제의 긍정적 측면: 모든 책임은 공산당이 진다. 부정적 측면: 공산당만이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다스린다.</p> <p>-권력삼각형: 공산당 국가 사회(인민)</p> <p>-공산당의 5가지 통제 기제: 인사통제, 조직통제, 사상통제, 무력통제, 경제통제</p> <p><b>&lt;인사통제&gt;</b></p> <p><b>-계획경제</b> 국민 전체가 통제의 대상. 도시인들은 국영기업,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단체, 사업단위(학교, 박물관, 문화센터)에 모두 묶여있다. 단위에 벗어난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 농촌은 집단농장 형태. 국가에서 직업 분배.</p> <p><b>-시장경제</b> 사적소유제도 도입, 시장경제가 운영원리 공산당이 통제해야 할 사람은 간부와 공무원이다. 고위직공무원, 간부만 공산당이 관리하고 일반직은 정부가 관리</p> <p>공무원 700만명 1.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 2.국가가 지정하는 공적 업무에 종사 3.국가 재정에서 월급과 복지</p> <p>간부 최소 4000만명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당정간부 2.국유기업간부 3.사업단위간부 4.군간부</p>			

## 중국이 개혁개방에 성공한 이유

뛰어난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 덩샤오핑

전국에 대학 나온 40대 50만명을 모아 개혁개방 교육하고 중앙부터 지방까지 임명 ->우수한 당정 간부 선발, 교육, 평가

## 인사통제-선발

임용방식

1. 고시 임용제(시험을 통한 선발): 하급 공무원 선발  
국가 인사처에서 관리
2. 위임제: 영도 간부 선발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3. 선거 임용제: 국가기관 책임자(소수)
4. 초빙 임용제: 전문가 초빙

## 간부직무명칭표 제도

핵심직위 70만명 관리

원칙: '당관간부' -> 공산당만이 간부 관리할 수 있다

방침: '아래 일급 관리' 중앙->성급->시급->현급

## 인사통제-교육

간부 교육 훈련 체계: 1교 5원 (약5천개)

1교: 공산당 학교(당교)

5원: 각종 간부학원 (국가 행정학원, 연안 간부학원, 징강산 간부학원 등)

## 중앙당교 사례

반 구성

-연수반: 영도 간부의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수

5년에 1회 이상 3개월 집중 교육. 장관급, 국장급만

-육성반: 미래 영도간부 육성

중청반(중앙청년간부 육성반): 미래 차관, 국장 육성

신장 민족간부 육성반, 티베트 민족간부 육성반

-주제 연구반: 특정 분야 업무 능력 향상. 장관,국장급 주제 연구반

## 공통교육과정

-당 이론 교육과정(정치교육) 마르크스-레닌주의부터 시진핑 사상까지

-당성 교육 과정 (정치교육)

-당대 세계 과정 (전문지식 교육)

-전략 사유와 영도 능력 과정 (실무 교육)

당교출신과 아닌 사람의 승진 소요 시간 차이

: 과장급 13.2년, 국장급 9.7년, 장관급 4.2년

연수, 교육훈련을 통해 당정간부 육성

-> 중국의 개혁개방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요소. 공무원과 모든 분야의 간부가 사상적으로 통일

### 인사통제-평가

영도간부 개인 기준: 품성, 능력, 근면, 실적, 청렴

지방간부 '목표 책임제' : '압력형 체제'(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 등장=성과주의, 능력주의

-목표 고핵 방식: 지번 정부가 목표 계약 후 평가

-영도간부 고핵 방식: 개별 간부가 목표 계약 후 평가

-일표 부결제: 특정 목표를 못해냈을경우 승진 못하거나 면직 당함

ex) 산아제한 정책

->평가는 철저하게 물질적 보상, 정치적 보상 받음.

### 인사평가와 간부 승진: 세가지 모델

-업적 모델: 간부는 업적에 따라 승진한다

-파벌 모델: 간부는 관시에 기대어 승진한다

-혼합 모델: 간부는 업적과 관시 모두 있어야 한다.

장관급 이상- 관시>업적    중하급- 업적>관시

### '연령제 딜레마'와 '쾌속 승진' 경로

장관급 63세에 장관 못되면 은퇴해야 한다

#### 쾌속승진 경로 세 가지

1. 공청단 경로: 이른 나이에 승진 가능

2. 검직 단련: 원직 보유한 상태에서 1년정도 다른 업무 맡음

3. 파격 발탁: 단계 무시하고 승진(공개 선발, 경쟁 승진)

### 중국의 부패 관리) 인사통제- 감독

감독기구: '하나의 조직, 두개의 문패' 조직

공산당기율검사위원회(기위): 공산당 전문적으로 관리

국가감찰위원회(국감위):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곳 관리

'이중영도' 문제 심각-> 제 식구 감싸기

## 중국 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이유

: 구조적인 문제 - 공산당이 공산당을 관리

-> 해결방법: 민주적 방식(선거), 행정적 방식(투명성, 공정성 확보)

## 중 국 간부의 승진 임용

공식 요인과 비공식 요인에 의한 평가, 내부 합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부 합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간부 총원 조건을 실험하고 있다. 그 중 비교적 객관적으로 간부 선발과 승진 이동에 고려되는 조건들이 있다.

첫 번째로 젊음이다. 같은 조건이면 비교적 젊은 간부를 선호한다. 이는 덩샤오핑이 주창한 '간부 4화' 가운데 젊은 간부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덕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력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국제적인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간부를 필요로 한다. 시진핑, 리커창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상무위원들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층에서 활동하는 간부 가운데 관학 협력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의 간부들 가운데 높은 학력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크게 강조되는 조건은 '기층 경험'이다. 기층 경험이라는 것은 현처급 이하 지방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현처급이나 그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당정군 사회 단체 직무경험을 말한다. 비록 기층에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기층에서 성과를 내고 성장을 이루어냈다면 승진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향과급이나 현처급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낸다면 높은 직위로 승진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는 간부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 중 국의 국가감 찰위원회

중국의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 감찰조직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위력은 막강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가감찰위가 출범한 2018년 3월 이래 조사한 각종 비리사항은 모두 63만8000여건으로, 이 중 62만1000명이 각종 처분을 받았다. 기율위반을 인정해 자수한 사람만 무려 2만7000명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출범 당시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에 해당)의 반탐(反貪)중국 에이스 102명을 차출해 만들었다. 인민검찰원이 잡범들을 잡아놓는다면, 국가감찰위원회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국가감찰위 홈페이지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 줄줄이 나온다. '피의자 인권보호' 같은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감찰위의 조사대상에 올랐을 뿐인데 대상자의 이름과 직위가 모두 나온다. 중국화전그룹 부서기,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정협 주석,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서기, 창춘시 공안국 국장 등이 올라 있다. 조사 결과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비리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중국남방전력당위원회 서기 겸 회장은 프라이빗클럽 출입, 관용차 부당사용, 뇌물수수 등이 드러나 당적은 유지하되 2년간 관찰 처분을 받았다. 국유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의 충칭시 부행장 역시 규정에 어긋나는 선물과 접대를 받고 관용차를 무단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중국 공직사회에서 국가감찰위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크게는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공산당, 작게는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걸림돌을 사전제거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감찰위의 감찰대상 자체가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검위)의 감찰대상을 공산당원에서 비(非)당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기검위와 국가감찰위의 인적 구성 등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겹치는 쌍둥이 조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 기검위와 국가감찰위원회는 베이징 시청구(西城區) 핑안리시다제 41호에 있는 동일한 청사를 사용한다. 기관의 홈페이지 역시 공동 사용한다. 국가감찰위가 당 기율검사위와 겹데기만 다를 뿐 사실상 쌍둥이 조직인 것이다. 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이당영정(以黨領政)'의 조직원리에 따라, 당 기검위가 국가감찰위원회를 이끄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국에는 당 기율검사위, 국가감찰위, 정법위, 인민검찰원, 심계서(회계감사) 등 무수한 반부패 기구가 있지만, 최상위층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부정부패로 조사받고 실제로 처벌된 경우는 저우융캉 전 정법위 서기 한 명에 그친다. 시진핑 총서기의 누나 치차오차오의 수백억원대 홍콩 부동산 투기 의혹, 왕치산 국가부주석 일가의 하이난항공 실소유 여부, 원자바오 전 총리 부인 장베이리의 해외보석 구매 등에 관한 의혹은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됐으나 한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고, 좋은 뜻에서 출범한 반부패 기구라도 집권자가 마음먹기에 달린 셈이다.

## 중 국의 공무원

중국의 공무원 개념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법에 따라 공직을 이행한다. 공무원은 공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 기업이나 혹은 조직을 위해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행정편제에 포함된다. 단지 공직을 이행한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활동에 종사하지만 국가의 행정편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국가재정에서 보수와 복리를 부담한다. 즉, 국가에서 그들에게 보수와 복리 등 보장을 제공한다. 공무원은 국가재정이 부양하는 사람들이지만 재정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가령 재정을 지원받는 사람들 중 국립학교의 교사, 과학연구소의 연구원 등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며,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반면, 중국의 공무원은 크게 각급 당정기관의 구성원과 일반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중국 국가공무원국은 중국의 공무원 수가 2008년에 6,597,000명, 2009년에 6,789,000 명, 2010년에 6,894,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150,000명가량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증원은 이미 공표된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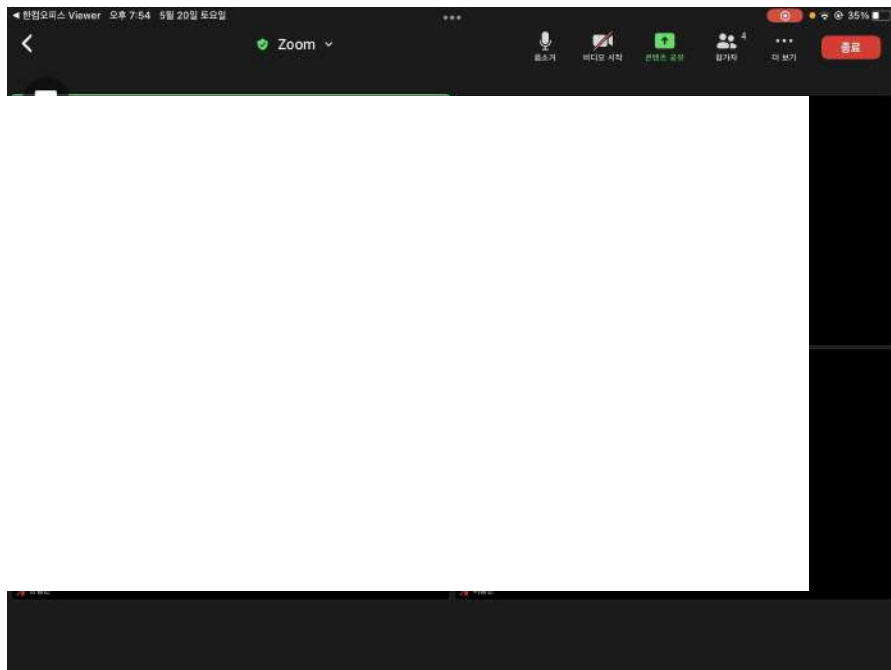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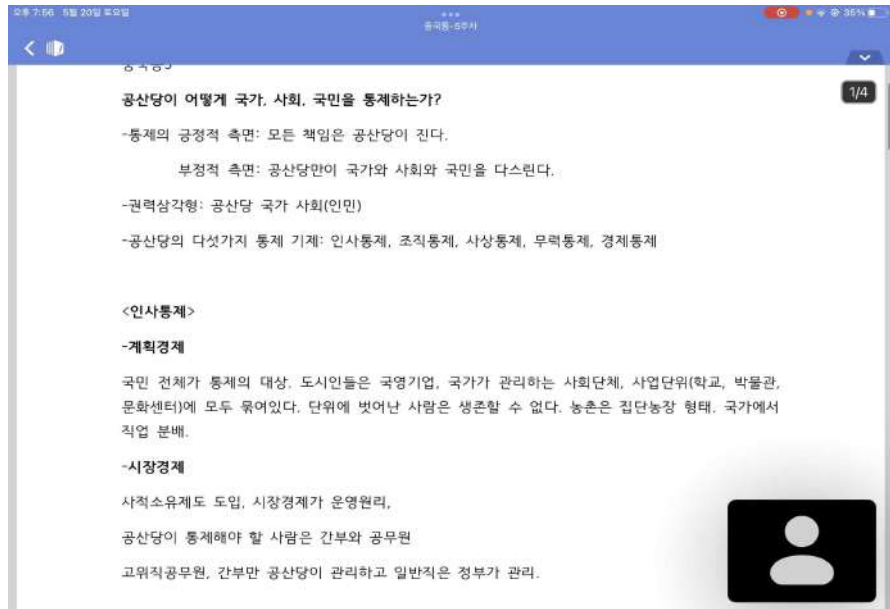
## 덩 샤오핑 개혁 개방 정책

'개혁'은 중국 내에서의 다양한 변혁을 말하며 '개방'이라 함은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대외 개방 정책을 의미한다. 1978년 덩샤오핑 주도 개혁개방 노선 채택 후 중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다른 나라들과의 개혁개방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점진적 개혁, 실험적 개혁, 사유화보다는 시장화에 우선, 지방으로 권한 위임을 통한 분권화 실시, 대외개방을 대내개혁에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개혁개방을 이끌어 간 것이다.

(1)점진적 개혁

	<p>대표적 체제 주변 부문인 농촌 개혁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체제 외 개혁 대상인 비국유기업(개체호,외자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 나갔다. 즉 체제 핵심 부문 개혁은 미루어 놓은 것이다. 철저하게 과도기 체제를 거친 후 시장 체제로 이행해 나갔으며 체제 전환 자체보다는 경제 성장에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점·선·면의 점진적 개방정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p> <p>(2)실험적 성격</p> <p>장기적 청사진에 따른 개혁 실시가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방식이다. 현장의 자생적 변화를 목인하고 관찰한 후 공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집단 농장 해체와 자영농 부활, 사영기업 등장이 좋은 예다. 또한 의도적으로 경제특구에 국한해 각종 개혁을 실험한 이후 결과에 따라 이를 점·선·면의 점진적 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p> <p>(3)사유화보다 시장화 우선</p> <p>경제체제의 두 핵심 요소, 즉 시장화와 사유화를 놓고 무엇을 먼저 개혁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시장화를 우선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중앙계획경제를 시장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갔다. 동시에 다양한 소유제의 비국유기업 진입을 허용했으며 밑으로부터의 사유화를 점진적으로 허용했다. 전면적인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제 전환은 가능한 한 늦췄다.</p> <p>(4)분권화</p> <p>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 및 기업의 적극성을 유도해 나갔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적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간, 기업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지방 주도 개발 프로젝트들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p> <p>(5)대외개방의 효과적 활용</p> <p>대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아울러 비교우위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개혁 이전 경시했던 노동집약적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대만 등의 비교우의 전략을 모델로 추진되었다. 이전에 경시되었던 비교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위한 수출산업화했다. 대외개방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합리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WTO에 2001년 가입함으로써 개방을 통한 내부 개혁을 시도했고 화교의 자본,경영능력과 중국의 노동력, 시장, 토지의 결합으로 중국경제 고속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p>
<p><b>다음활동일정</b></p>	<p>6주 차 활동은 공산당의 조직통제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요약정리 후 부족한 부분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p>

**활동증빙**  
**(비대면프로그램**  
**활동 캡처자료**  
**등)**  
**2장 이상**



**프로그램장학금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활동 보고**

<b>팀 명</b>	불사조			
<b>제 6 차</b>	<b>일시</b>	5월 27일 (토) 오후 2시	<b>장소</b>	비대면(zoom)
<b>참석명단</b>				
<b>결석명단</b>	없음			
<b>활동내용</b>	<p><b>중국의 조직 통제</b></p> <p>공산당이 중요시 여기는 통제 대상-&gt;사영기업: 중국 경제의 견인차</p> <p>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경험: 사영기업의 참여와 지원          -민주화 이론: 중산층(사영기업)의 역할 중시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징둥 등 중국에서 최근에 성장한 거대 기업들은 대부분 사영기업들이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주동세력인 학생들이 돈도 이동 수단도 없었는데 돈과 이동 수단을 해외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사영 기업가들이 많이 지원했었다. 천안문 진압 후 1991년 공산당 중앙이 공식 지시를 내렸는데 사영기업가들은 입당할 수 없게 했다. 중국 경제가 증가하면서 사영 기업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공산당 영도체제, 일당체제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p> <p><b>사회조직: 시민운동의 핵심 주도 세력</b>          -민주화 경험: 사회조직(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 담당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는데 시민사회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p> <p><b>대학: 민주화 운동의 '보루'이자 '선도자'</b>          -1986-87년 대학 시위/ 1989년 톈안먼 운동 경험          대학생은 민감하고 애국심이 들끓어 오를 나이인데 시간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한다. 특히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대학생들이 주도했다. 중국은 약 3000개의 대학이 존재하고 대학생만 3000만 명이 있다.</p> <p><b>도시 기층 사회: 사회 안정의 초석</b>          -1999년 파룬궁의 경험          파룬궁: 중국의 리홍즈가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을 결합시켜 창시한 수련법,수련집단. 1999년 4월 25일 중국공산당 고위층 집단 거주지인 베이징 중난하이 인근에 파룬궁 수련자 1만 여 명이 예고 없이 나타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반대에 일어난 청원이다.          도시의 기층 사회의 예시: 아파트 단지, 거주지역, 밀집지역          중국은 인구 800만 이상 도시를 특대도시라고 하는데 특대도시가 22개나 존재한다. 상해시의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상해시에서 시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p> <p><b>조직 통제: 사영기업          '사영기업'의 등장과 통제 문제</b></p>			

〈표 1〉 사영기업의 증가(2004-18년)

단위: 만 개/퍼센트(%)

연도	전체/비중(%)*	공업**/비중(%)	공업 사영기업 취업자/비중(%)
2004	198.2 / 61.0	94.7 / 65.2	3,370.9 / 35.0
2008	359.6 / 72.5	135.7 / 76.6	5,205.8 / 44.4
2013	560.4 / 68.3	176.0 / 73.0	6,272.2 / 44.7
2018	1561.4 / 84.1	291.1 / 84.4	5,979.4 / 51.9

기존의 사영기업 통제 방법과 한계: '외부 통제'

- 공상업연합회(공상련): 대형 사영기업
- 사영기업가협회/ 개체노동자협회: 중소형 사영기업
- 외상투자기업협회(외국인 노동자)

기업 사이즈에 맞게 모든 기업에 기업주들이 가입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문제: 외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공산당에 제대로 보고하는지 감독이 안되었다.

**'내부 통제' 도입: 공산당 조직 설립과 운영**

공산당 조직을 사영기업 내에 만들어버림. 기업을 차린 입장에서 나는 당원이 아닌데 기업내에 공산당 지부를 만든다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니 기업주를 당에 가입시켜버림.

**당 서기 충원 방식**

- 사내 임명: 기업주 혹은 경영층 중에서 선임
  - 외부 파견: 당정기관 간부, 국유기업 경영인 등
  - 공개 모집: 당무 경험자 채용(비용은 회사가 담당)
- 예) Big Tech기업의 당서기 공개 모집 광고

**기타 방침**

- 세금 감면
- 사영기업 당비: 전액 자체 사용/부족 시 상급 조직이 지원
- '당 군중 활동 서비스 센터': 전국에 통일적으로 설립

**지역사례**

**1) 상하이시**

**사영기업주의 우려**

- 사적 소유제와 이윤 추구에 적대적
- 경영권 제약과 기업 비용증가

**공산당의 대응 정책**

- 네 가지 중심: 생산성 촉진/ 기술적 문제 처리/ 직원 교육 훈련/ 직원 자기 향상
- 세 가지 지지: 경영혁신/ 시장 개혁/ 조화로운 노자관계
- 당원 직원의 모범 선도 역할 수행
- >Wal-Mart 구호: "당원의 선진성 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은, 우리가 일하는 매점의 판매를 얼마나 늘리는가 이다!"

**2) 안후이성**

**공산당 방침과 집행**

**사영기업 내 당 조직 설립 위한 전문 기구 설립**

- '사영기업 공작위원회': 당 위원회 산하 전문 기구
- '종합 공산당 위원회': 공업단지 내에서 당 설립 지원

**'당 건설 지도원' 파견: 2012년에만 1만 명**

- 정부 부서, 국유기업, 대학 등의 고위 간부: 사영기업에 도움

**사영기업가의 입당 유도과 교차 검직**

- 기업가 주도의 당 설립(70%): 정치 지위(지방의원) 지원
- 기업 친화적이고 직원 서비스 중심의 당 활동 전개**
- 당 조직의 탈 정치화와 기업 경영활동 불개입
- 생산 증대와 노동자 복지 증진 노력

**조직 통제: 대학**

-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과제: 매년 50만 명씩 증가**
- 2019년 대학생: 3000만 명
- 2022년 대학 졸업생: 1000만 명

**공산당의 대학 통제 기제**

- 학생 공산당 조직**
- 대학생 정치 사업(선전)과 지도의 핵심 역량
- 공청단 조직: 공산당의 '조수'이자 '후비군'**
- 대학생의 다수가 단원

**정치 이념 교육: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양성**

- 정규 정치 이론 과목
- 학생 보도원(정치 보도원) 제도

**대학 내 공산당 조직**

- 공산당 조직의 분포**
- 공산당 위원회: 전체 영도(총장이 아니라 당서기가 최고)
- 교수/ 직원 당 지부
- 학생 당 지부

**대학생 입당 정책: 학부생 10%/ 대학원생 30%**

- 입당 기준: 정치(공산당 충성 등)/ 학업 성적
- 대학마다 큰 편차: 명문대학 중심의 학생 당원 충원
- 대학생 입당 동기: 이념-> 실용(입당 가장 원하는 집당)으로 바뀜**
- 1980년대: 이념(인민에 봉사/ 조국과 당에 봉사 등)
- 1990년대 이후: 실리(취업에 유리한 조건 확보 등)

**대학생 정치 이념 교육**

- 방침: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전초기지"**
- 정치 교육 목표
- 국가의 이데올로기 안보 수호
- 대학생을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로 양성
- > 정치이론 과목: "학생의 가치관 주조"가 목적

**종류**

- 정규 정치이론 과목을 통한 교육
- 일상 정치교육: 반별 학습/ 공청단 주도 학습/ 당 주도 학습
- 긴급 정치 교육: 5.4운동/ 천안문 기념일(6.4) 대비 선제교육

**정치이론 필수 과목: '두 개의 과목'**

**마르크스주의 이론 과목(4개 세부 과목)**

- (1)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
- (2)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 (3) 중국 근현대사 요강
- (4) 형세와 정책

**사상 품성 과목(1개 세부 과목)**

- (5) 사상 도덕 수양과 법률 기초

**효과: 공산당 지지의 증가**

- 학생은 공산당 지지의 핵심 세력:'애국주의'

**‘학생 보도원(정치 보도원)’ 제도**

**목적: 칭화대학 1952년 시작**

-혁명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국가 인재 양성

-후진타오: 정치 보도원 출신(2년)

**규모(2008년 통계): 석사 과정 이상자가 다수**

-전임 약 9만 2천 명/ 비전임 약 3만 명 -> 약 12만 명

-시험과 면접 통한 선발: 미래 당정 간부로 성장하는 경로

**임무: 정치와 생활**

-학생 정치 지도: 사상 문제 등

-학생 학습과 생활 지도: 연애 상담, 진로 상담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중국은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당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영 IT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막대한 연봉을 주고 '당 위원회 서기'를 뽑겠다는 공개 모집을 하기도 했다.

기업 내에서 당 조직은 다음의 당장의 내용을 실천한다.

1. 당 노선과 방침의 관철
2. 기업의 법 준수 지도와 감독
3. 직원 단결
4. 기업과직공의 합법적 권익 수호
5. 기업의 건강한 발전

->기업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 있는 항목들이다. 당조직은 회사 안으로 파고들어 회사가 당 노선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하지만 모든 당조직 활동이 기업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조직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한다.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회사 내에 또 다른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부담이다.

<알리 그룹의 기업 분할과 중국의 빅테크 규제>

최근 알리바바는 사업부를 6개 기업으로 쪼개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와 홍콩 증시는 상승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분사를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에 있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권력 집중화를 해결했음을 시사한다. 또, 분사 자체가 빅테크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빅테크 규제에 있어 기조가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창 총리 취임 이후에는 규제당국이 정책적 브레이크만 밟아서는 안 된다며 민간 기업 지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물려 중국이 작년 목표 성장을 달성에 실패한 이후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보면 빅테크 규제가 곧 마침표를 찍는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파룬궁 탄압 이유**

후야오방은 중국에서 기공을 최초로 인정한 인물로 그 이후에 중국의 기공은 약 3천 가지 종류로 늘어났다. 파룬궁은 92년과 93년도 동방기공박람회에도 참가하여

2년 연속하여 최우수공파로 인정받았다. 다른 기공을 수련하던 사람들이 파룬궁의 뛰어난 수련효과 때문에 수련을 시작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파된 지 7년 만에 수련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당시 공산당원 수는 약 5,600만 명이었다. 당시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은 파룬궁 수련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질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당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룬궁을 없애기로 결심하였고, 1999년 6월 10일 계슈타포에 해당하는 탄압전문조직 610사무실을 결성하여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하였다. 탄압은 중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다. 지금까지 7년째 고문으로 살해한 수련자 수는 2,783명을 넘으며, 신원불명인 자를 포함하면 탄압 희생자는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쩌민은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하여 3개월 내에 뿌리 뽑겠다고 호언했으나 실패하였고 현재는 그 수련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1998년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북경수련생 12,731명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99.1%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련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호전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파룬궁은 국가를 위하여 백 가지 이로운 점은 있어도 한 가지도 해로운 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장쩌민은 탄압을 위해서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로 몰았고, 모든 범죄자들을 파룬궁 수련생으로 덮어 씌웠다. 그리고 천안문분신자살극까지 조작하여 전 세계에 선전했으나, 모든 것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 난 상태이다.

장쩌민이 존경하는 중국의 최고과학자 전학삼이 탄압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개장소에서 파룬궁을 수련하자, 장쩌민이 실내에서 할 것을 간청했다는 것은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하는 한 예이다.

### 대학에서의 시진핑 사상 교육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하자 중국 정부가 학교에서 '시진핑 사상' 등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국 CCTV는 교육부가 '신시대 초·중·고교 정치사상 과목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 교육부가 내놓은 의견은 학교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과목의 전임 교원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정치사상 과목의 핵심 위치 강화, 커리큘럼과 교육 자원 풍부화, 교사의 전문성 확보, 교육·연구 지원 강화 등의 5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 정치사상 과목의 주간 수업 시수를 명확히 하고 '시진핑 사상 학생 독본' 등을 교재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과목의 교원 양성 계획을 마련해 겸임 교사 비율을 줄이고 2025년까지 전임 교사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근 중공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시진핑 선독 학습에 관한 통지'에서는 "각 대학·전문대학은 '시진핑 선독'을 교수와 학생 이론 학습 교재로 삼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시진핑 사상)'이 교재, 강의, 두뇌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사상을 학습을 통해 세뇌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사상 학습을 위한 보충 교재도 발간됐는데, 2023년 4월 10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 발췌' '조사연구에 관한 시진핑의 발언 요약집'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 천안 문 6.4 항쟁

천안문사태는 자유주의적 경향에 동정적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보수파 원로들의 비판을 받고 총서기직에서 축출되었던 후야오방의 1989년 4월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베이징의 대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후야오방에 대한 재평

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점차 더 적극적인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보수파의 영향을 받은 인민일보가 이러한 학생들의 시위를 '반혁명 동란'이라고 규정하면서 학생들과 중국공산당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사태의 발전을 용인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중국공산당은 6월 4일 새벽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고 수 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천안문사태는 좌절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호로 남아있다.

## 사상 통제

### 정치 사상 공작 : '모든 공작의 생명선이다'

영도 간부의 정치학습

- 정치국 집단 학습
- 당 위원회 이론 학습 중심조 학습제도

당정 간부와 일반 당원(약 1억명)의 정치학습

- 당교학습/ 일상 정치학습

정풍운동 기간의 정치학습

- 전 조직과 당원의 정치 학습과 비판 활동 전개  
국민 교육 운동

- 법률 보급 운동/ 정신문명 운동/ 애국주의 운동

사상 통제 : 영도간부

## 7강 사상 통제: 영도간부

### □ 정치국 집단 학습(1994년 시작)

〈표 2〉 공산당 중앙 정치국의 집단학습 통계(2002-21년)

기간	총 회수	매년 평균 회수
16기(2002-07년)	44회	8.8회
17기(2007-12년)	33회	6.6회
18기(2012-17년)	43회	8.6회
19기(2012. 10-2021.1)*	27회	7.9회

-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현안에서의 이슈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최고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공부를 한다.
- 집단 학습 외에도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일주일동안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회의한다.

일반 당원들도 학습을 한다.

**사상 통제 : 당원**

**정풍운동의 정치학습**

절차)

-문건 학습

-자기 검토서(비판서)

-비판과 자기비판

-정리

**정풍운동 : '선진성 교육 활동(2005-6년)' 사례 (후진타오 시기)**

- 배경 : '충격적인 당성 약화' 현상 (2000년 조사)

당정 간부의 기율 이완 현상 심각 -> 위기 의식

- 실시 방식(2005-06년) : 각 단계는 6개월 기간

3단계 : 중앙과 성급 -> 시급과 현급 ->기층

방식 : 중앙 주도의 하향식(상세한 지침과 감독)

절차 : 전과 동일 (학습->자기검토->비판/자기비판->정리)

- 결과

7,080만 당원과 350만 당 조직 참가

당 기층 조직 재건 / 4만 5천 명 당원 제명

- 학습 : 마오/덩/장/후 저작 중심 40시간 이상 집중 학습(모여서 학습해야 하는 것)

학습 교재 중앙 배포 / 당 모임과 당교 통한 학습

- 자기 검토서 작성 : 중앙의 지침에 맞추어 작성

작성 지침 : '두 개의 필수' / '8개 견지' 방침

분량 : 2천 자 이상/ 모범 예문 제시 <-> 대필 성행

필수 포함 요소 : 사상/업무/태도의 상세한 검토, 문제와 단점 정리, 문제와 단점 초래한 원인 분석, 개선 위한 실천 사항, 당원의 자세와 결의 표명

**사상 통제 : 국민 교육**

**'법률 지식 보급 활동' 사례 -국민들에게 법률을 보급하는 것**

배경과 기간 : 1986년부터 현재까지

- 배경: 범죄와 통치 이완/ 당정 간부의 횡포 등

방식 : 5개년 계획 작성하여 집행 ( 중앙-지방)

- 구호:"법률 무기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라!"
- 방식 : 학교/언론(TV)모임 등 통한 법률 지식 교육
- 중점 대상 : 청소년과 영도 간부 -> 확대(간부/기업가 등)

결과

- 국민의 법률 의식과 활동(소송) 증가 -> 법률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 국민 불만 체제 내 흡수 : 사회 안정 유지에 기여

**'애국주의 교육 운동' 사례**

배경과 기간 : 1994년부터 현재까지

- 배경 : 사회주의 이념의 약화 <- 소련 붕괴/ 시장경제 확산

방침 : '피해 심리'와 '포위 심리' 조장 <-> '승리 의식'

- 피해 심리: '백년의 굴욕(1840-1949)' 재연 경계
- 포위 심리: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 포위 및 봉쇄
-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 달성

**내용 : '3개 백선' 운동**

- 애국주의 필독 도서 100권 : 초.중.고학생 중심
- 애국주의 좋은 영화 100편 : 전국 보급
- 애국주의 교육 기지 100곳(이후 592곳으로 확대) : 홍색 관광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사상통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양과 질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상통제를 하는 데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2022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허페이종합국립과학센터는 창당 101주년 기념일을 맞아 홍보 영상 한 편을 공개했다. 사람의 표정과 뇌파를 읽어내 사상적.정치적 교육의 수용 수준,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성과가 담긴 영상이었다. 사람의 피부 전기 반응, 뇌파 반응 등의 생체 인증을 통해 인공지능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교육을 추천해준다. 이 영상은 중국 소셜 미디어 공개 다음 날 바로 삭제됐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데올로기 세뇌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첨단 기술을 통제 사회를 구축하는데에 매진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그럼에도 관련 기술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발전시키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사상 통제 방식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애국주의 교육 운동**

애국주의 교육의 실질적인 출발은 1989년 6.4 천안문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공산당은 당에 대한 도전과 사회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애국주의 교육 운동이 출현한 것이다.

애국주의 교육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 초부터 2016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진행되어온 범국가 차원의 교육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찬란했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배양해,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심을 높인다.'

주요 교육 대상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 학생들이다. 더 나아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 중화민족의 전통문화, 공산당의 기본노선과 현대화 건설의 성과, 국가 정세,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국방 및 국가안전, 민족단결,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 등 8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애국주의 교육에서는 '오성홍기(五星紅旗)'라고 불리는 국기(國旗), 의용군 행진곡으로 출발한 국가(國歌) 등 국가상징도 중요한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국기게양식을 엄숙히 진행해야 하고, 소학교 3학년부터 성인들까지 국가를 외워 부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지침까지 제시했다.

또한 애국주의 교육에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 전역의 공공기관과 사회단체가 법정 기념일과 전통 절기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중국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

중앙정치국 구성원은 중국의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학습을 중요시 하는데, 집단 학습을 집권당의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최근 5년간 이미 40여 차례 집단 학습을 했다. 그렇다면 집단 학습은 어떻게 진행될까?

최근 5년간 진행한 41차례의 중앙 정치국 집단 학습 기간동안 베이징, 상해, 절강, 강소 등 대학의 학자와 금융, 과학기술, 법률, 고고학 등 분야의 전문가 34명이 각각 전문적인 특강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건의를 언급했다. 그때마다 중앙 정치국 전원은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토론했다.

또한 상호 학습도 진행한다. 41차례의 집단학습에서 중앙정치국 구성원들은 현대화한 경제시스템 건설,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농촌진흥 등의 주제를 둘러싸고 독학한 후 각자의 이해를 깊이 있게 교류했다.

이와 함께 현장 참관·조사연구를 통해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옴니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최고 지도부는 중국 집권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사의 뉴미디어 빌딩을 찾아 편집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빈곤 퇴치 마을 담당자들과 온라인으로 연동을 하는 등 집단 학습의 '수업'을 미디어 융합 발전의 최일선으로 옮기기도 한다.

## 정풍운동 단계

### 1단계: 사상학습 단계


1941년 5월, 마오쩌둥은 이론을 실제에 연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천명하면서 "주관주의는 공산당과 민족의 적으로 주관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이를 통해 고급 간부의 사상 인식을 제고하여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정풍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자 했다. 이 준비 단계에서, 마오쩌둥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그는 연안의 정치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상대방, 특히 장궈타오와 28인의 볼셰비키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적을 하나씩 숙청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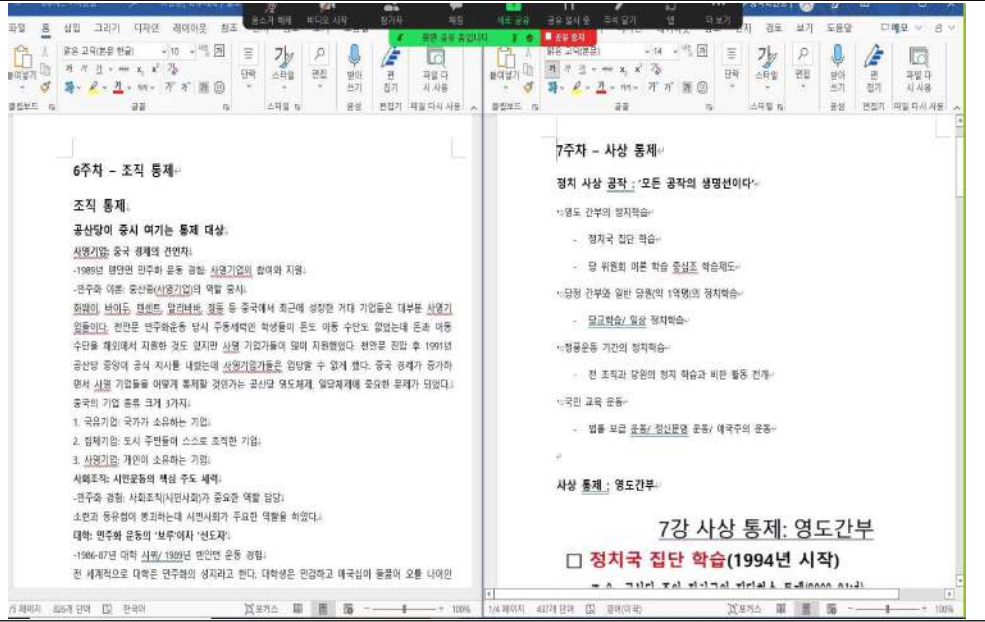
### 2단계: 정풍 개조 단계

마오쩌둥은 정풍운동의 방침과 취지에 대해서 당내 모순의 성질과 특징에 근거하여 당내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서술하고 "과거를 징계하여 앞으로 삼가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해 사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당내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첫째 지난날의 오류에 대해서는 사정을 두지 말고 반드시 적발하여 과학적인 태도로 나쁜 점을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둘째, 적발하고 비판하는 목적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 3단계: 심간 단계

1943년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고위 간부들이 당의 역사적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당시 간부 지단은 주로 <6대이전>, <6대 이후>, <2가지 노선>과 같은 교리본의 편집에 초점을 맞췄고 열띤 연구와 토론을 가졌다. "학습 및 현재 상황" 보고서는 동지들의 의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p>했다 그후 당 고위 간부들을 심사하여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소위 심간(審幹) 현상이 발생했다. 간부들은 '교정 운동'에서 자신의 고백에 대해 글을 썼고 사람들은 그의 죄와 오류를 엄중히 꾸짖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인민재판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풍운동을 수행한 Kang성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마오쩌둥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들을 가차없이 탄압했다. 1945년 4월 20일, 제6차 중앙위원회 제7기본회의는 여러번의 역사적인 쟁점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역사적 교훈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뒤 연안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확고히 자리잡았고 마오쩌둥의 사상이 당의 기본 이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로서 연안의 정풍운동은 막을 내렸다.</p>
<p><b>다음활동일정</b></p>	<p>7주차 활동은 중국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통제와 중국의 무력 통제와 경제 통제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요약정리 후 부족한 내용이나 각 조원이 궁금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p>
<p><b>활동증빙</b> (비대면프로그램 활동 캡처자료 2장 이상)</p>	



### 6주차 - 조직 통제

#### 조직 통제

#### 공산당이 중시 여기는 통제 대상

##### 신영기: 중국 경제의 견인차

-1989년 덩샤오핑 민주화 운동 끝에 **신영기**의 참여와 지원.  
-관주와 이른 공산당(신영기)의 역할 중시.

회원이 **반인도, 반세력, 반권력** 등 중국에서 최근의 성장한 거대 기업들은 대부분 **신영기** 일들이다. 전안은 민주화운동 당시 주동세력인 학생들이 문도 미흡 수반도 없었는데 문도 여중 수단을 제외해서 지출한 것도 없지만 **신영기** 기업가들이 많이 지원했었다. 천안문 진압 후 1991년 공산당 중앙이 공식 지시문 내왔는데 **신영기**들은 명명할 수 없게 했다. 중국 경제가 붕괴와 망서 **신영기** 기업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공산당 영도층에, 일당제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중국의 기업 종류 크게 3가지:

1. 국유기업: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
2. 합체기업: 도시 주민들에 스스로 조직한 기업.
3. 신영기업: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

#####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핵심 주도 세력:

-관주와 결합: 사회주의(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 담당.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는데 시민사회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 대학: 민주화 운동의 '보루'이자 '선도자'

-1986-87년 대학 **신영기** 1989년 연인연 운동 경험.  
-전 세계적으로 대학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한다. 대학생은 민감하고 애국심이 높으며 오픈 내이션

### 7주차 - 사상 통제

#### 정치 사상 공작: '모든 공작의 생명선이다'

- \*영도 간부의 정치학습:
  - 정치국 집단 학습
  - 당 위원회 이른 학습 중심즈 학습제도
- \*당위 간부와 일반 당원의 1억원의 정치학습:
  - **일교학습/일상 정치학습**
- \*정몽운동 기관의 정치학습:
  - 전 조직과 당원의 정치 학습과 비한 활동 전개
- \*국민 교육 운동:
  - **일부 보급 운동/정신문화 운동/애국주의 운동**

#### 사상 통제: 영도간부

### 7강 사상 통제: 영도간부

- **정치국 집단 학습(1994년 시작)**

-수 크리티 포인 인이그리 인이비노 프에(0000 시작)

**프로그램장학금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활동 보고**

<b>팀 명</b>	불사조			
<b>제 7 차</b>	<b>일시</b>	6월 3일 (토) 오후 1시 30분	<b>장소</b>	비대면(Zoom)
<b>참석명단</b>				
<b>결석명단</b>	없음			
<b>활동내용</b>	<p><b>8강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b></p> <p>20년 전에 학자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함          -&gt; 결과는 통제가 가능했고, 오히려 인터넷과 sns가 공산당 통치체제를 더 강화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p> <p>① 디지털 권위주의 : 인터넷을 사용하여 시민통제하는 권위주의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자유를 높이고 의사소통을 하게 하며 사회를 개방시키는 역할을 함.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함. 디지털이 오히려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함.</p> <p>② 네트워크 권위주의          중국에서도 찾고 싶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으니 중국인도 자유롭다고 느낀다. 근데 다 통제되고 있다. 정보도 통제되고 있고, 내 생각도 조종되고 있음. 이것을 네트워크 권위주의라고 한다.</p> <p>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sns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gt; 공산당이 인터넷과 sns 보급을 아예 막은 것이 아님. 오히려 적극적인 편.          인터넷과 sns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qr코드로 결제하는 것, 택시 어플처럼)</p> <p>왜 sns 통제가 중요할까?</p> <p>[인터넷/sns 특징]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방송, 신문과는 비교할 수 없음          시민 사회의 활동 공간과 수단을 제공</p>			

공산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님. 이용을 하려는 것 -> 이중성  
만약에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냥 인터넷 망을 끊어버리면 그만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중국 경제도 끊어짐.

#### 인터넷 통제 기제 4가지

① 예방 기제 : 가장 중요함. 미리 중요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계에 없는 어마어  
마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함. 그것을 '황금방패공정' 이라고 한다.

1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중국의 모든 인터넷과 sns는 이것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음.

목적은 크게 두가지

선별적인 차단: 공산당이 원하는 것만 차단하는 것. 중국과 외국을 완전히 단절하  
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이트, 단어, 영상만 거르는 것

sns의 주도권을 중국이 잡는 것: 트위터, 구글을 대체하는 웨이보와 위챗을 만들었  
다.

② 감시 기제 : 미리 예방한다고 다 막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다.

-1) 인터넷 감시 부대

사이버 경찰: 인터넷 경찰

사이버 평론원: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

사이버 여론 관리사: 여론 관리

인터넷 검사원 : 법적으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고용하게 된다. 텐센트나 바이두에  
는 천명이상이 있다고 한다.

->웬만한 정보같은 것은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삭제가 된다.

-2) 감시의 강도

민감한 시기에는 더 엄격하게 감시한다. (당 대회 같은 시기)

공산당/정부의 발표에 이상한 소리하는 것도 다 검열이 된다.

춘절과 같은 국가의 행사에도 엄청 엄격하게 감시한다.

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좀 느슨하게 하는 편.

-3) 감독 대상

감독 대상을 2개로 나눈다.

타겟 집단(=목표 집단)

요주의 인물.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쓴다. 365일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내가 만약 '중국의 인권' 같은 것을 검색하면 바로 경고가 뜬다.

## 2. 일반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전략. 검색을 필터링하고 단어벽을 만들어서 검색을 하는 순간 속도가 떨어지게 함. vpn을 설치하면 컴퓨터 다운되게 함 -> 스트레스를 받게함  
or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쏟아부음. 누군가 어떠한 정보를 올리면 정부에서 백배, 천배 되는 양을 내보낸다. 그럼 정부가 제공한 정보로 인터넷이 도배가 된다. -> 원래 올라온 정보는 묻히게 됨.

③ 위기관리 : 돌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필요함. 매뉴얼이 있고 작동하고 있음.

## 4단계의 매뉴얼

1단계 : 태동기 - 주요 사건의 발생 방지 (예의주시하는 단계)

2단계 : 발전기 - 인터넷 여론의 보고 (사건이 올라오려고 함)

여론 별로 점수를 매긴 다음, 그에 맞는 대응을 함. (예를 들어, A여론이 90점이면 90점에 맞는 대응을 하고 B여론이 80점이면 80점에 맞는 대응을 하고..)

3단계 : 고조기 - 사건이 터짐

정부 공산당을 비판하는 세력을 고립시킨다. 여론 주도자들을 파악하며 이때 포섭 할 수 있는 사람은 포섭하고 아니면 구속시킴. 구속시키는 이유는 여론을 주도했다가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구속을 함.(술먹고 행패를 부렸다든지..이러한 이유로) 사람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

4단계 : 쇠퇴기 - 피해 관리

정책 바꿀 것들 바꾸고 사실을 조사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한다.

## ④ 여론 선도/정보 조작

인터넷 댓글부대를 활용한다. 이 댓글부대를 '오마오당'이라고 한다.

댓글 부대의 내용은 단순한 응원이 80%, 정책/업적 칭찬과 제안이 15% 정도

활동의 목적은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

-> 한계: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 )공청단 댓글 부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대규모로 동원한다.

ex)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홍보를 위해서 1천만 명 동원함.

자발적 오마오당: 당정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애국심과 정의감에서 공산당과 국가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부대

자발적 오마오당의 특징

애국주의 : 중국, 공산당은 좋아하고, 미국, 한국 등 외세에 대해 비판적

합리주의 : 근거 없는 말은 안함. 나름의 근거에 입각한 논리적 주장 전개

ex) 한자녀 정책 비판: 한족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 왜냐면 소수민족은 2명씩 낳을 수 있는데 한족은 한명만 낳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전술로 인터넷 여론 주도  
낙기 : 일종의 역 정보 전술  
따귀 때리기 : 상대방의 실수와 오류를 지적하면서 공격  
낙인 찍기 : 비판 세력을 앞잡이당, 똥개당 등으로 부르면서 비난.

그렇다면 인터넷은 공산당을 멸망으로 이르게 할까 아니면 공산당 영도체제를 지지 할까?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낙관파 : 권위주의가 허물고 정치 자유화와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다.  
비관파 : 권위주의 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임. 공산당 영도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일 뿐이다.

-> 현재까지는 비관파가 우세함.  
민주화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것.

### < 시진핑 시기 인터넷 통제의 변화와 특징 >

2013년 시진핑 지도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중국 모바일인터넷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되었다. 우선 2014년 2월 27일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가 설립됐다. 국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법치를 주창하며 설립된 이 기구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군사 등 각 영역의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과 중대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시진핑이 조장이며, 리커창, 류원산이 부조장을 맡았다.

이어서 2016년 11월 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있다. 첫째 중국 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은 반드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용자는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국외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 서버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유해야 한다. 셋째 중국정보는 실시간 메시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자체를 거대한 가상 내부망으로 만들어, 인민이 외부세계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 경로를 차단했다. 대안으로 중국인터넷 회사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의 대체재를 만들어 인민이 원하는 정보를 중국 내부에서 모두 얻을 수 있게해, 이들이 국외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할 동기를 잃게 했다.

결과적으로 데스크톱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전환된 모바일 인터넷 인구는 중국 지도부에게 새로운 인터넷 통제패러다임 구축을 유도한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의 물리적 통제를 지양하고, 중국만의 특수한 모바일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 인터넷 발전 저해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정보 안전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 금순공 정 >

금순공정(金盾工程)이란 중국 정부가 총 8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지난 2009년부터 가동한 디지털 사이버 공안 체제를 말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황금방패(黃金防牌)라고도 하며, 1차 계획은 1998년~2006년, 2차 계획은 2006년~2008년에 추진됐다.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 1만여 개의 감시용 서버를 설치,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은 물론 댓글의 민감한 내용까지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다.

관련 개념으로는 만리방벽(萬里防壁·Great firewall)이 있는데, 만리장성(Great Wall)과 방화벽(Firewall)의 합성어이다. 중국이 1998년 금순공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2003년 완성한 인터넷 감시 및 검열 시스템으로 서방 세계에서 만리장성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다. 중국 내에서 구글 등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이 '만리방벽(GFW)' 설치를 의무화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은 '사이버 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주요 사이트들이 봉쇄된 사이 중국 토종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검색은 바이두, SNS로는 웨이보, 메신저와 페이스북을 합쳐놓은 듯한 웨이신, 그리고 유튜브를 대신하는 여러 동영상 사이트들이 있다.

검열 기준은 크게 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느냐' 여부다. 그런데 이 범위가 넓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국제민간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알렉사 통계 기준 상위 1000개 세계 주요 사이트 들 중 836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149개 사이트가 중국에서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해외 유명 포털·소셜미디어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 등 주요 서구 매체들도 접속이 안된다. 중국 국민들은 물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재원들도 이들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없다. 업무상 이들 사이트 접속이 필수적인 이들은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해서 들어가야 한다. 최근에는 그나마도 VPN 단속까지 강화되고 있다. 자신들이 허가를 하지 않은 VPN 기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용자까지 처벌을 하고 있다.

### < 우마오 당 >

우마오당(五毛党)은 중국공산당이나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조작단을 가리킨다. 좀 더 정중하게는 인터넷 평론원(网络评论员)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기본 월급 600위안에 댓글 1개당 5마오(五毛)를 지급받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비꼬기 위해 '5마오를 받는 무리'라는 뜻의 우마오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정치학자와 언론학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 논문에서 고급 분석기법을 활용해 중국 댓글 부대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우마오당의 특성상 이들의 정체를 규명하기 쉽지 않은데, 연구진들은 2014년 샤오란이라고 불리는 한 블로거가 해킹한 간저우시의 인터넷 선전부 이메일 아카이브를 활용했다. 이 아카이브에는 댓글 부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

측되는 이들이 당국에 보낸 자신들의 활동보고를 비롯해 당국과 이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연구진들은 대규모 수작업 코딩부터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방대한 양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우마오당은 알려진 것처럼 댓글 1개당 얼마의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일반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다양한 단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대가는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마오당의 댓글 중 53% 정도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달린 것이고 46% 정도는 상업적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 달린 것이었다. 댓글이 달리는 시기는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여론이 들끓는 시기에 집중돼 있었다. 댓글 내용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외국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 논쟁적 이슈에서의 찬반 의견 개진은 거의 없고, 오히려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중국의 역사적 유산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자극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 < 인터넷 평론 원 >

중국공산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찍이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기초공사를 서둘러 실시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성(省)정부와 지방정부는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여론전쟁의 부대를 개설했다.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공 정부는 더 본격적으로 인터넷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에는 2백만 명의 “인터넷 평론원”이 정부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중국공산당의 선전원들이다. “인터넷 평론원”이 되기 위해선 먼저 중국공산당에 입당해서 당원이 되어야 하고, 또 수준 높은 문장력을 갖춰야만 한다. 인터넷 평론원들은 각 지방, 각 단위, 각 대학에서 배치되어 해당 지구의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한다. 우선적으로 SNS, 블로그, 웹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을 정찰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인터넷 토론방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게시물을 써서 올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200만 “평론원 대오(隊伍)” 밑에서 또 2천만 명의 “인터넷 문명지원자”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청년망군(靑年網軍, 청년 인터넷 병력)”이라 부른다. 정부 측 자료를 보면, 대략 1만 명의 일반 네티즌 당 120명의 “문명 지원자”가 배치되어 있다. 9~10 명을 한 명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꼴이다. 2천만 청년망군의 다수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단원들이다. 총인원수가 2017년 현재 8100만을 넘어선 공산주의청년단(이하 공청단)은 14세에서 28세에 한정된 청년단체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공청단에서 선발된 “문명지원자”들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불법 게시물을 고발하고, 불온한 콘텐츠를 싹싹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표면상 이들의 활동은 여가를 활용하는 애국 행위다. 문제는 이들의 여가선용이 모두 “인터넷 평론원”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활동라는 점이다. 그들이 써서 올리는 인터넷 댓글들은 모두 상위 평론원의 평가를 거쳐서 점수화되며, 이 점수에 따라 정치적 이력이 된다.

## 9강 무력통제

-연성(soft) 통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공산당 영도체제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 (인사/조직/사상통제)

-경성(hard) 통제: 무력통제

->연성통제와 경성통제의 결합으로 공산당 영도체제 유지 가능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무력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1. 군사력(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민병)
2. 공권력(검찰, 법원, 정보원)

1949년 이후 중국에서 군대의 정치 과정 개입은 두 번

1. 문화대혁명: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군이 중앙과 지방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상당수는 직접 지역 통치(군의 독자적 개입이 아닌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2. 천안문 민주화 운동: 처음에 경찰이 개입하다가 진압이 안되니깐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 개입

중국에서는 군이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당의 군대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일반병들이 2년 복무하고 오면 특혜 (취업 가산점,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중국에서 군인은 영광스러운 직위

### <공산당의 무장역량>

-인민해방군: 정규군, 규모 200만, 공산당 수호/국토방위

-무장경찰부대: 전투경찰, 규모 68만, 치안 유지/긴급임무

-민병: 예비부대, 1000만, 후방 업무/재난 지원

###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없는 이유>

원칙: 공산당의 절대영도와 군의 절대복종

실행 기제:

1. 주석 책임제: 민간인 지도자가 군 통수권 행사
2. 정치위원제도: '군정쌍관'의 지도 체제
  - 군 사령원: 군 훈련과 전투 지휘
  - 정치위원: 정치와 인사 업무 지도
3.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제도: 군부대 운영과 결정  
방침: 당 위원회의 통일 집단지도 하의 수장 책임 제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 <-> 공산당: 집단지도

**<정치위원 제도 : '군 정쌍관'의 지도 체제 >**

군 정치위원 제도는 소련에서 도입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 역사에서 문관이 황제의 명을 받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무관을 감독하는 전통을 되살린 것이기도 하다. 각 군부대는 단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정치위원을 둔다. 연대 이상에는 '정치위원', 대대 에는 '정치교도원', 중대 에는 '정치지도원' 이라고 부른다. 이전에는 민간인 지도자 중에서 정치위원을 임명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역 군인(직업 군인)중에서 정치위원을 임명한다. 정치위원은 계급으로 보면 각 부대에서 군사 업무를 주관하는 수장, 즉 군 사령원과 동급이다. 군부대가 지시와 명령을 하달할 때는 군사령원과 정치위원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경우는 공산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표결하거나, 상급 조직에 보고하여 지시를 따른다. 또한 두 수장은 너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군 사령원과 정치위원을 임명할 때 학연이나 지연 등 '관시'가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관시'가 있으면 같은 부대에 임명하지 않는다. 또한 임명된 이후에도 순환 보직제를 이용하여 최소한3년에 한 번씩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한다.

**<중국 군대 의 제도와 혜택>**

중국의 군대는 우리나라와 같은 의무병 제도이지만, 중화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조국을 호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모든 국민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고 민병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병역 제도는 지원병 제도인 모병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신규 입대 인원인 50~60만 명 정도를 모병제로 선발하고 정원을 충원하지 못했을 때 징병제를 동원해 채우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정원보다 희망자가 더 많은 편이라 모병제로 충분히 인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징병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고학력 인재의 입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군대에서는 입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대에 가면 중국 공산당 입당 자격이 생기며 군대 내에서 만난 사람들은 '연출'이 되어 공산당으로의 출세길이 평탄해진다. 이런 이유로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군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군대에 자리가 없어 돈을 주고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산당을 꿈꾸지 않아도 전역 후에는 일자리 알선이나 일부 대학 등록금 면제 및 국영기업 취업에 가산점 등 혜택도 주어진다.

**<중국의 군사력 [美 국방부가 발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보고서의 분야별 주요 내용

**<중국의 전략>**

중국의 전략은 2049년까지 중국몽(中國夢), 즉'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달성을 목표로 국력을 축적하여 국제 시스템을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이익에 유리하게 바꾸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전략과 글로벌 야망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중국군을 더욱 활용하고 있다.

#### <핵무기>

중국은 현재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속도라면 오는 2035년에 핵탄두 보유량이 1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은 중국이 '군 현대화' 목표 년도로 정한 시기인데, 미 국방부가 중국의 2035년 핵탄두 보유량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년 전 보고서에서는 200개로 추정했으나 2년 만에 2배로 급증하였다. 또한, 중국은 적군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 <미사일>

중국은 2021년 135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된 수량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발사 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아울러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미사일이 다른 국제 최상위급 미사일과 대등한 수준의 품질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4만km를 비행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지상 공격무기 중 가장 긴 비행이었다.

#### <정보감시정찰>

중국이 세계 정보·감시·정찰(ISR) 시스템의 절반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세계 전역,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군을 감시·추적·겨냥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첨단 위성을 이용해 한반도·대만·인도양·남중국해를 포함한 잠재적 역내 화약고들을 감시하고 있다.

#### <차세대 전쟁>

중국군은 차세대 전쟁 방식으로 '시스템 파괴전'(System Destruction Warfare)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의 운영 시스템에서 주요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밀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다. 중국군은 2021년부터 레이저 및 C4ISR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의 작전 시스템을 공격하고, 취약점에 대한 정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다영역 정밀전쟁(multi-domain precision warfare)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개념은 적의 운영체제에서 주요 취약점을 식별하고 그 취약점에 대해 정밀타격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 <우주 개발>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우주정거장인 텐궁(天宮) 건설 프로젝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1월 29일 텐궁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 임무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5호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중국의 우주정거장 보유는 바로 목전의 현실로 다가왔다. 한편, 중국은 우주·대우주 무기도 개발 중이다.

#### <상비 전력>

중국 육군은 97.5만 명이다. 중국 해군은 함정 수를 토대로 세계 최대 규모(380척)이며, 공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능력(2,800대)을 보유하고 있다.

#### <국방예산>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 달러(약 276조 1,935억 원)였으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 규모이다. 이는 한국 국방비(480억 달러)의 4.4배, 일본 국방비(550억 달러)의 3.8배, 대만(154억 달러)의 13.6배에 달한다.

#### <군사력 증강>

중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 개입을 막기 위해 군사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전력 투사>

중국의 지역적, 국제적 야망과 관련하여, 중국 지도부는 군부가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세계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군은 해외 거점과 물류시설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군이 국경으로부터 훨씬 더 먼 거리에 군사력을 투사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해외 기반 개발>

중국군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 접근과 기반을 개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캄보디아 리암(Ream)에 첫 인도-태평양 해외기지를 설립했고, 아프리카의 나미비아(Namibia, 중국 전략지원부대가 우주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추적·원격측정·지휘(TT&C, Tracking, Telemetry, and Command)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 외에도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와 바누아투(Vanuatu)와도 협력하고 있다.

<한반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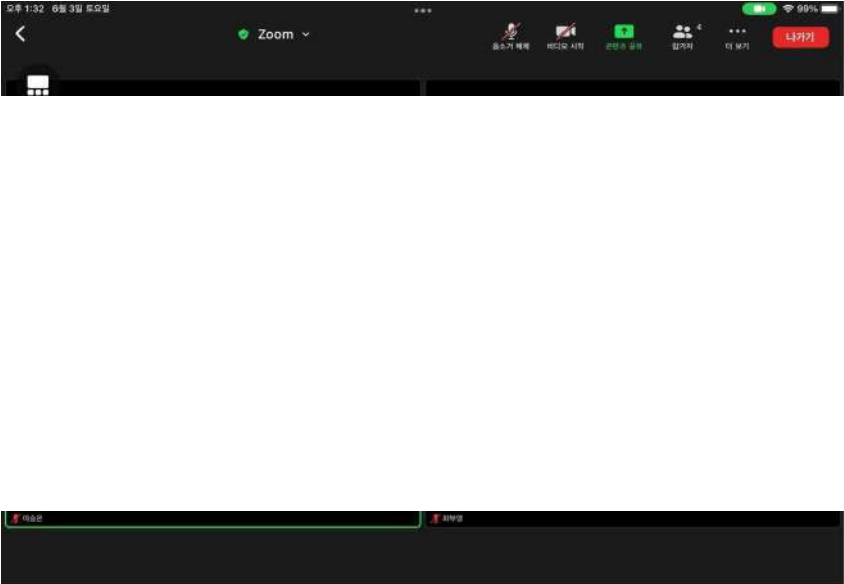
미 국방부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지상·해상 및 화학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태 발생 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작전 명령에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확보,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state)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은 한마디로 중국 역사를 후퇴시킨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다. 문화대혁명으로 움트려던 자본주의 싹이 짓밟히고, 인권은 무참히 유린됐다.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붕괴되고, 민중의 삶은 피해를 겪었다. 문화대혁명은 권력 투쟁과 개인 숭배가 낳은 중국 역사의 아픈 과거다.

대약진운동 실패 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선 노선갈등이 불거졌다.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대중노선을 주도하고, 류사오치·덩샤오핑을 선두로 한 실용주의자들은 공업 및 분야별 전문가를 우선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부 자본주의 정책을 채택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실용주의자들이 실세로 부상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세력과 자본주의 타파를 외치며 이를 위해 청년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2년 9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접목한 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반대파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에 나섰다. 마오쩌둥의 지시로 중·고·대학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홍위병은 전국을 휩쓸며 마오 반대파들을 비판대에 세웠다. 1966년 8월 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마오쩌둥이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안 16개조’를 발표함으로써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이 본격화된다.

홍위병들은 전국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찬양하고 전통적 유교문화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인다. 학교를 폐쇄하고 당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실용파들이 장악한 권력을 무력을 탈취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실각되거나 숙청된 숫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문화대혁명은 1969년 4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마오의 절대적 권력

	<p>이 확립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에게 충성한 군부 지도자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인민 사이에서 문화대혁명이 마오쩌둥 개인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73년 덩샤오핑이 권력에 복귀하면서 문화대혁명은 곳곳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도 막을 내린다.</p> <p>이데올로기, 계급투쟁, 평등주의, 외세배격을 선동한 문화대혁명은 중국 역사를 상당히 후퇴시켰다. 1981년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은 당·국가·인민에게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준 마오쩌둥의 극좌적 오류이며 그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혹자는 문화대혁명을 만민평등의 위대한 역사적 실험이라고 하지만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후퇴시킨 ‘암흑의 역사’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p>
<p><b>다음활동일정</b></p>	<p>8주 차 활동은 경제 통제와 공산당 통제 기제 평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요약정리 후 부족한 부분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p>
<p><b>활동증빙</b> (비대면프로그램 활동 캡처자료 등) 2장 이상</p>	

오후 1:33 6월 3일 토요일

Zoom

음소거 비디오 시작 음향도 공유 창기대 더보기 나가기

9장  
무력통제

-연성(soft) 통제: 법과 계도에 따라서 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공산당 영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 (인사/조직/사상통제)  
-경성(hard) 통제: 무력통제  
->연성통제와 경성통제의 결합으로 공산당 영도체계 유지 가능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무력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1. 군사력(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민병)
2. 공권력(감찰, 법원, 정보원)

9장 요약정리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20년 전에 학자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함  
-> 결론은 통제지 가능했고, 오히려 인터넷과 sns가 공산당 통치체제를 더 강화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려는 것인??

- ① 디지털 권위주의 : 인터넷을 사용하며 시민통제하는 권위주의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의견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하게 하여 사회를 개방시키는 역할을 함.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함. 디지털이 오히려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함.
- ② 네트워크 권위주의 중국에서도 알고 싶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어서 중국인도 자유롭다고 느낀다. 그런데 다 통제되고 있다. 정보도 통제되고 있고, 내 생각도 초종되고 있음. 이것을 네트워크 권위주의라고 한다.

**프로그램장학금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활동 보고**

<b>팀 명</b>	불사조									
<b>제 8 차</b>	<b>일시</b>	6월 10일 (토) 오후 2시	<b>장소</b>	비대면(Zoom)						
<b>참석명단</b>										
<b>결석명단</b>	없음									
<b>활동내용</b>	<p><b>10강 -경제 통제 관점</b></p> <p><b>국유기업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b>  <b>개혁파: 비효율과 부패의 온상</b>                      -철저한 개혁(민영화 포함) 필요: 성장률 회복 가능                      = 경제 발전과 민생(국민) 개선의 관점  <b>공산당: '국유 경제는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다!'</b>                      -공산당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                      = 공산당 권력 유지의 관점  <b>결과: 공산당 권력 유지의 관점 주도</b>                      -국유기업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적 개혁 추진: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                      =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기둥 역할 수행</p> <p><b>경제 통제: 이유</b></p> <p><b>공산당에게 국유기업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b>  <b>통치 정통성 확보: 국가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b>                      -중국: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lt;-&gt;소련/동유럽: 신 자유주의 모델  <b>사회주의 이념의 정당화: 중국이 왜 사회주의 국가인가?</b>                      -정치: 공산당 영도 체제(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국가)                      -경제: 국가 소유의 거대한 국유경제 존재  <b>공산당의 '통치 자금' 확보</b>                      -대만 국민당: '당기업'의 존재-GDP 6.2%(1980s)                      -공산당 예산: 국가 예산에 포함되어 '은폐'                      -&gt; 당비로 충당이 가능할까?</p> <p><b>경제 통제: 규모</b></p> <p><b>국유경제(자산)의 규모(2014년): GDP의 310%</b>  <b>30개 국 비금융 국유자산(IMF): GDP의 67% &lt;-&gt; 중국: 310%</b></p> <p><b>국가 자본주의(State-capitalism)-&gt;당 자본주의(party/state-capitalism)</b>  <b>재정 수입 변화</b>                      일반 공공 수입 = 세금수입                      정부성 기금 수입 = 토지 임대 수입                      국유자산 경영 수입 = 국유 기업의 이윤 정부에 납부한 것</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2015 일반 공공 수입 = 77.22%</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gt;</td> <td style="width: 45%;">2020 일반 공공 수입 = 65.05%</td> </tr> <tr> <td>2015 정부성 기금 수입 = 21.48%</td> <td style="text-align: center;">-&gt;</td> <td>2020 정부성 기금 수입 = 32.25%</td> </tr> </table>				2015 일반 공공 수입 = 77.22%	->	2020 일반 공공 수입 = 65.05%	2015 정부성 기금 수입 = 21.48%	->	2020 정부성 기금 수입 = 32.25%
2015 일반 공공 수입 = 77.22%	->	2020 일반 공공 수입 = 65.05%								
2015 정부성 기금 수입 = 21.48%	->	2020 정부성 기금 수입 = 32.25%								

## 정부성 기금과 국유자산 경영 수입: 재정의 35%(2020년)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에서 당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  
국민민퇴: 국유경제는 나아가는데 민간경제는 후퇴한다.

한국 재정 예산의 대부분 세금 그런데 중국은 재정의 35%가 국유경제에서 나온다.

## 국유기업의 정의와 공산당의 통제 기제

왜 '국영기업'이 아니라 '국유기업'이라고 할까?

정의: 국가가 자본 투자하여 소유권 행사하는 기업

-배제: 국유기업 투자 기업/ 합자기업/ 향진기업 등  
-> 광의로 해석하면 현재보다 훨씬 증가

## 공산당의 통제 기제

-인사 통제: 국유기업 최고 지도부 인사권 행사

-조직 통제: 당 조직 설립과 기업 조직과 통합 운영

-정책 통제: 국가 정책 집행에 국유기업 동원

## 경제 통제: 인사

### 국유기업 인사 통제

중관기업(중앙 관리 기업): 128개(2021년)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리: 실업류 - 96개

-국무원 재정부 관리: 금융류 - 27개

- 기타: 국무원 기타 부서 - 5개

대상: 당서기/ 이사회 회장/ 최고 경영자

인사 방식: 직접 임명(장차관급)/ 임명 비준(국장급)

- 64개: 당 조직부 추천-> 정치국 상무위원회 임명

- 64개: 국무원/ 당 조직부 임명 ->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준

### 국유기업 인사 통제: 이동통신사 CEO 교체 사례 3개 이동통신사: 국유기업

-차이나 텔리콤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

문제: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무한 경쟁 돌입

공산당 인사권 행사: 기업 상의 없이 CEO 상호 교체

- 기업(이사회)와 주주의 '경악!'

### 빈번한 기업 지도부 상호 교체 인사

-후진타오 시기: 매년 1.4회

-시진핑 시기: 매년 3.8회

## 경제 통제: 조직

### 국유기업 조직 통제: 공산당 조직 건립과 운영

국유기업 내 공산당 조직: 2개 종류

-당조: 장차관급 국유기업에 설립- 당 중앙 직접 통제

-공산당 위원회: 모든 국유기업에 설립- 기업 영도 핵심

방침: '교차 겸직'과 '쌍방향 진입'

-교차 겸직: 기업 이사장/ 최고 경영자 = 당서기 겸임

-쌍방향 진입: 당 지도부(서기/ 부서기/ 기율위원 등) = 기업 지도부(회장/CEO/이사/감사) 상호 겸직

->쌍둥이 기업 거버넌스

-공산당 조직: 중대 방침과 인사권

-기업조직: 방침 집행과 기업경영

## 경제 통제: 정책

국유기업 정책 통제: 국가 정책의 집행 수단(도구)

질문: 왜 한국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은 실패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성공하는가?

방침: 국가의 정책 결정 -> 국유기업(은행)의 참여와 집행

-국가 정책: 공산당/ 국가 차원의 결정  
-국유기업: 무조건 참여와 집행 <- 공산당 영도의 간철

### 중국의 강력한 외교 수단: 경제력 행사(경제 외교)

-해외 자원(석유)과 중요 기업 매입(M&A)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자유무역협정(FTA)과 해외직접투자(FDI)

### 국유기업 정책 통제: '일대일로'(2013년~현재)

목적: '중화 경제권 건설'

-연결성: 고속철/ 고속도로/ 5G/ FTA  
-미국의 중국 견제 대응책: 군산 안보(미) <-> 경제(중)

### 자원 투입: 중국 정부는 공개하지 않음

-해외 투자 4조 달러 중 일대일로: 2조 달러  
-아이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 국유기업 참여

-전체 참여 기업 중 70%~80% 국유기업  
-국책은행: 중국건설은행 주도

### 국유기업 정책 통제: Rio-Tinto(호주) 인수 시도 사례

배경: 중국의 철광석 해외 의존(전체의 2/3)

-2007년 BHP-Billiton의 Rio-Tinton 매수 선언 -> 세계 철광석의 1/3 독점 -> 중국 산업 안전에 영향

### 과정: 중국의 인수 결정과 집행

-공산당/ 국무원의 결정  
-중국 알루미늄공사: Rio-Tino 주식 9% 매입

### 결과: 실패

-호주 정부/ 여론의 반대 -> Rio-Tino의 계약 파기  
-중국 정부 : Rio-Tino 직원 간첩 혐의로 체포

### < 국 유기업 개혁 >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기업이 91개를 차지하였다. 중국석유(Sinopec)가 세계 3위, 페트로 차이나(Petro China)가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국유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유기업들은 영업수익의 비효율성, 인사제도의 폐쇄성, 경쟁력 부족, 중공업 중심의 구조라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2012년 11월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 강화'라는 새로운 시각의 국유경제 개혁개념을 제시하여 국유경제 개혁의지를 표명하였다.

국유경제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8기 3중전회에 앞서 발표된 383방안 에서도 '삼위일체' 개혁이 논의되는 등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 11월 개최된 제18기 3중전회에서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추진, 국유자본 투자부문의 민간자본 개방, 국유자산경영제도 개혁이 제시되면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인 혼합소유제는 1997년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유지분을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이 교차 지배, 즉 사회 및 민간 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다원화된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한편 시장의 기능 또한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민간 자본의 시장경쟁 참여, 법률적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조치를 통해 혼합소유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으로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자본 중심의 관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유자본 관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공공서비스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유제가 주도하는 국민경제'를

재강조하면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뜻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 < 중 양관리 기업 >

중국에는 국유기업(國有企業)이라는 개념이 있다. 단어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국유기업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기업(央企)'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국유기업(地方企業)'이다. 중앙기업의 원래명칭은 '중앙관리기업(中央管理企業)'으로 중앙인민정부 또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자 역할을 위탁한 기업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공기업'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출자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기업은 98개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의 규모가 큰 만큼 중국의 중앙기업도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중앙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39조 4000억 위안이며 순이익은 1조 9000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000조 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중앙기업으로는 시노펙(中国石化),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이 있으며, 국가전망(国家电网), 중국건축(中国建筑), 중국연초(中国烟草) 등과 같은 기업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1~2위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계급 규모를 가진 중앙기업들도 등급이 매겨 지는데 바로 정부급(正部級)과 차관급(副部級)으로 나누어진다.

일단 중앙기업 중 정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기업은 3곳이 있는데 국가철로(国家铁路), 중투그룹(中投集团), 중신그룹(中信集团)이다. 이 세 기업들은 규모도 상당하지만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과정에서 수행하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기업들은 국무원 직속으로 관리되며 정부급에 속하게 되었다.

## < 국 유 기업 >

최근, 점점 더 많은 중국의 국유기업이 글로벌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중국에서 대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국유기업은 과거全民소유제 기업 또는 국영기업으로 불리다가 1992년 10월 이후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유기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과거 중국에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국가 소유였는데, 국유기업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할당된 종업원과 원부자재를 이용해 생산을 담당하고 생산물을 국가가 지정한 상대에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종종 산업 규제 장치나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핵, 전력, 항공우주, 조선, 천연가스, 원유 등 중요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국유기업의 중국 내 중요성은 경제 통계 수치보다 훨씬 크다.

현재는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SASAC, 이하 '국자위')가 국유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자위는 관리업무만 맡을 뿐 주주로서의 이익은 배당받고 있지 않으며 국자위의 감독으로 기업의 경영권 확보, 주주의 권익 보호 등이 이루어진다.

## < 일 대일로 전략 추진 배경 및 과정>대내·

외적 추진 배경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육상)와 명나라(해상) 시절의 실크로드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대외개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견제하고,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내적으로 생산능력 과잉문제 해결, 안정적인 해외 자원 확보, 국가안보 강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 등을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달성하려고 함.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

'일대일로' 전략 추진 대상국(이하 '일대일로 대상국')에는 러시아·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 남아시아 8개국, 중동 및 유럽 16개국,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16개국, 독립국가연합 6개국 등 총 6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일대일로 대상지역은 전체 세계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명, 경제규모 21 조 달러에 이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에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담당기구를 설립하고, 이어서 행동계획과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11강 공산당 통제 기제 평가

관점)

중국의 '성공' <-> 소련의 '실패'(붕괴)

→ 두 가지 현상 동시에 설명해야 하는 과제

공산당 일당 체제의 견고한 유지

권위주의 정치 행태와 공산당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율

비약적인 사회 경제 발전의 지속

연평균 9.4% 성장 : GDP 100배, 1인당 GDP 80배 성장

→ 균형 잡힌 관점 : 공산당 통제 기제의 양면성

소극적 측면 : 권위주의 통치 행태 지속 <- 민주 건설 관점

적극적 측면 : 경제 발전과 국민 지지 <- 국가 건설 관점

인사)

인사 통제 평가 : 성과

유능한 간부 충원과 개혁 개방 성공

세계 최대의 통치 엘리트 교체 : 혁명 간부 -> 기술관료

체계적인 인사 제도 : 임명/ 교육/평가/감독

장쩌민/후진타오 시기 20년(1992-2012)

- '기술 관료의 전성 시대' :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매진

- 기술관료 출신의 통치 엘리트 : 전문성과 실용성 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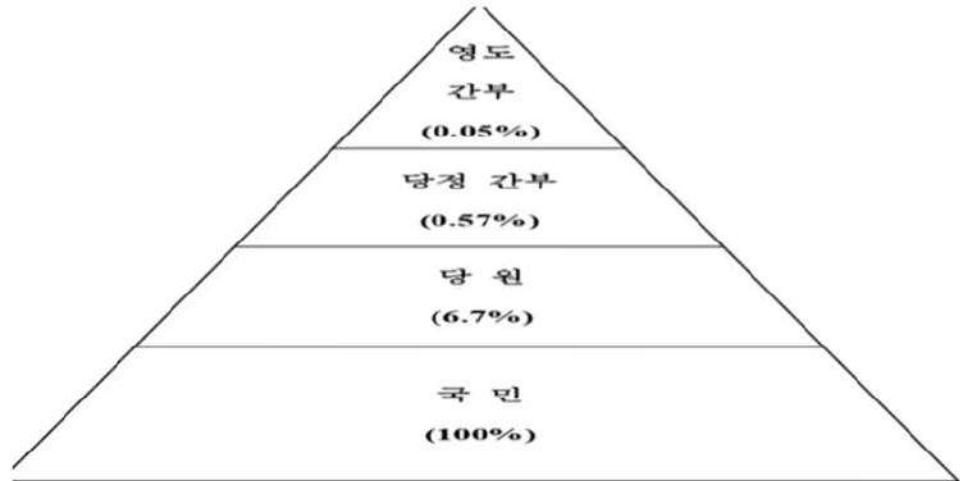
<-> 혁명 간부 : 이념적 성향과 대중 동원(선전 선동) 전문가

시진핑 시기(2012년 -현재)

- '개혁 개방의 실천가' : 개혁기 대학교육과 개혁 정책 집행

인사 통제 평가 : 문제점

공산당 주도의 새로운 계급사회 출현 : 공산당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삼자 통치 연합’ 유지 : 정치 + 경제 + 지식 엘리트 결합**

- 노동자/농민의 무력화 : ‘삼자 통치 연합’에 의해 열세
- ‘삼자 통치 연합’이 유지되는 한 정치 민주화 불가능

**당 간부와 공무원 : 공산당의 대리인/특권 집단**

- 공산당의 ‘당관간부’ 원칙 : 인사권 행사
- 중국의 민주화 : 공산당의 인사 독점권 폐지

**인사 제도의 맹점 : 당정간부의 부패 문제**

- 해결책 : 행정(투명성과 공정성) / 정치(민주제도)
- 중국 : 행정 방식의 일부만 채용(부패 해결 불가능)

**조직)**

**조직 통제 평가 : 성과**

**공산당 영도 체제의 유지(공산당 관점에서 최대 성과)**

- 중앙에서 기층까지 거미줄 같은 공산당 조직 체계 유지
- 신생 사회세력(사영기업/사회단체) 통제 성공 : 당 조직

**민주화 운동의 진압과 정치 안정 유지**

- 1986-87년 대학생 운동 /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실패
- 자연발생적인 대학생 / 시민의 민주화 요구 : 조직 결집 아님

**핵심 세력의 공산당 지지**

- 기업가/중산층 : 개혁 개방의 최대 수혜자 -> 공산당 지지
- 대학생 : 공산당 입당 가장 열망하는 집단 <- 대학 통제 성공

**조직 통제 평가 : 문제점**

**정치 권력의 ‘집중’ 심화 : ‘당 서기 천하’ 의 도래**

- 공산당 전면 영도 강화 -> 공산당 중앙 권력 강화 -> 총서기 권한 강화 : 시진핑 ‘일인 지배’의 첫발 시작

- 지방에서도 동일한 현상 등장

**공산당으로의 권력 집중**

- 공산당과 국가/사회/기업 관계 : 공산당으로 권력 집중
- 중앙-지방 관계 : 중앙으로 권력 집중

<-> 개혁 개방 : 시장화/ 사유화/ 개방화/ 분권화에 역행

**국가/사회/기업/지방의 활력 저하**

- 공산당/중앙의 통제 강화 -> 복지부동/ 수동적 태도 증가

**사상)**

**사상 통제 평가 : 성과**

**사회주의 이념의 혁신 : 개혁 개방 정당화와 국민 설득**

- 덩샤오핑 이론 : 사회주의 초급단계 / 사회주의 시장경제
- 장쩌민의 삼개대표 이론 - 사영기업에 정치적 지위 부여
-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 균형 발전 전략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공산당원 학습 : 당의 통합(단결)과 지지 유지**

**국민 교육 운동의 전개**

- 법률 지식 보급 운동 : 기성 제도 통한 사회갈등 해결 유도
-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애국주의 교육 운동 : 사회주의 이념 약화 보완 성공

**사상 통제 평가 : 문제점**

**집단주의의 강조 : 개인 가치의 수용 문제**

- 집단주의 : 중화민족의 중흥/국가 발전/ 공산당 영도 등
- 개인 가치 요구 증가 :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 증가/ 치열한 시장 경쟁과 사회적 갈등 확산 등

**지식인의 '질식 상태'와 '정체된 사회'**

- 지식인 : 사상 통제의 핵심 대상 -> '질식 상태' : 역할 상실
- 지식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상태
- 언론 통제 강화(공산당의 입) : 건강한 비판 실종
- 10년 이후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비판의식 없어질 수 있다. -> 자정능력 떨어질 수 있다.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가치 충돌 증가**

- 중국의 애국주의 <-> 국제사회의 보편주의 요구

**종합)**

##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인가?

### 종합 평가 : 적극적 측면 > 소극적 측면

- 중국 국민 관점 : 문제 있지만 성과를 더 높이 평가

### [원인 1] '연성' 통제 기제와 '경성' 통제 기제의 결합

- 일상적으로는 '연성' 기제 작동 : 공산당 영도 체제 유지
- '경성' 기제는 보완 수단 : 국민 중 극히 일부만 실제 체험

### [원인 2] 전 세계 '민주화 후퇴' : Strongman 시대 도래

- 민주적 보편 가치의 상실 : 약육강식의 현실주의 등장
- 미.중 경쟁의 악화 : 강한 지도력에 의한 부국강병 열망

## < 중 국의 지식인 통제 >

### <중국의 지식인 통제>

시진핑 정부의 사상통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 내 학자들이 책을 출간하거나 잡지에 글을 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학술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 지식인의 현실을 보면 과거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

2013년 중국공산당은 정부 기관과 대학에 자국민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일곱 가지(七不講)'와 '말해도 되는 것 열두 가지(十二語)'를 규정해 하달했다.

△보편적 가치 △보도의 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공산당의 역사적 과오 △특권 귀족의 자산계급 △사법 독립이 7불강(不講)이다.

부강, 민주, 문명, 화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敬業), 성신(誠信), 선우(友善)는 12어(語)에 해당한다.

코로나 시기 중국의 지식인 통제는 어땠을까?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전인대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집단 청원을 냈다.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내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었다.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이런 반발 때문에 코로나 발병 후 시진핑은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 당시 시진핑의 행보는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대중의 건강과 제대로 된 사태 수습보다 책임 면피와 체제 안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 < 덩 샤오핑 이론 >

78년 말 개혁·개방을 선언한 덩샤오핑 시대는 '3개 유리(三個有利)'라는 말로 압축된다. 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남부도시들을 순방하며 개혁·개방을 촉구했던 발언)'에 나온 이 말은 '생산력과 종합 국력과 인민 생활수준 등 3개 요소에 이롭다면 결국 좋은 것'이라는 뜻이다. 덩샤오핑은 특히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과 함께 선부론(先富論)을 경제 구호로 내세우며 불균형 성장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흑묘백묘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진두지휘해온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주장한 말이다. 덩샤오핑은 1997년 2월 19일 사망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어느 자본주의국가 못지않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선부론은 '누구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자'는 뜻이다. 이는 부자가 돼야 나눠줄 것이 생기니 먼저 돈을 벌라는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진다'는 뜻으로, 지역적으로는 중국 동남연해를 먼저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내륙 지방도 발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결국 덩샤오핑이 주장한 경제이론은 사회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배'가 아니라 '성장'에 치중한 정책을 낳았다. '성장이나 분배냐'를 놓고 논쟁하지 말고, 먼저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것이다.

### < 장쩌민의 '삼개 대표 이론' >

#### <삼개대표의 내용>

1. 항상 중국의 선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한다. (始終代表中國先進社會生產力的發展要求)
2. 항상 중국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한다. (始終代表中國先進文化的前進方向)
3. 항상 중국 대부분의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 (始終代表中國最廣大人民的根本利益)

'삼개대표 이론(三個代表論)'은 중국 공산당이 생산력, 문화, 광대 인민의 근본이익 등 세 가지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광대 인민'에 있다. 인민은 노동자와 농민을 뜻한다. 앞에 수식어 '광대'가 들어간 건 '자본가'까지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예전에는 타도 대상인 자본가도 끌어안으며 전체 인민의 당인 전민당(全民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에 힘입는 기업가는 창의성을 발휘해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굴지의 민영기업을 일궜다.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용인하고 심지어 주도해야 했다.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없이 양산된 자본가들을 적대시한다면 공산당은 국가와 전체 인민을 대표한다고 자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 후 진타우 과학 적 발 전관 >**

중국은 2007년 10월에 개최된 17차 당 대회로 계기로 '과학적 발전관'을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오로지 경제성장 만을 추구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분배는 물론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를 함께 챙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일종의 국정 지표다. 후 주석은 2003년 10월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전면적, 협조적, 지속 가능한 발전관"을 처음 제기했다. 이어 후진타오 집권 2기를 여는 2007년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의 중요 '행동지침'으로 규정됐다.

과학적 발전관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번째가 경제발전모델 전환이다. 중국의 미래를 위해선 개발 도상국형 경제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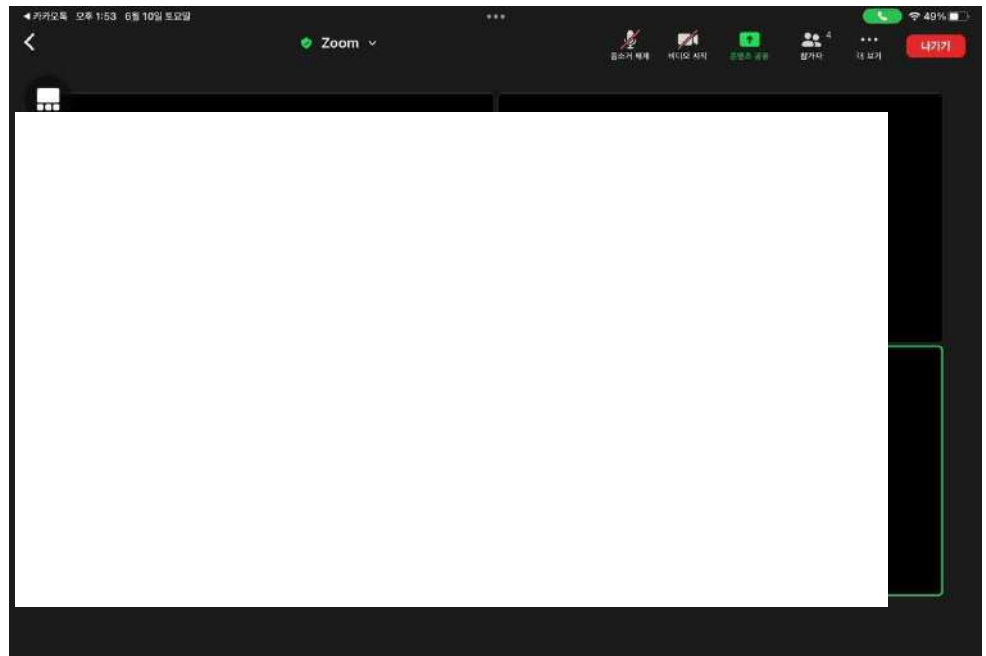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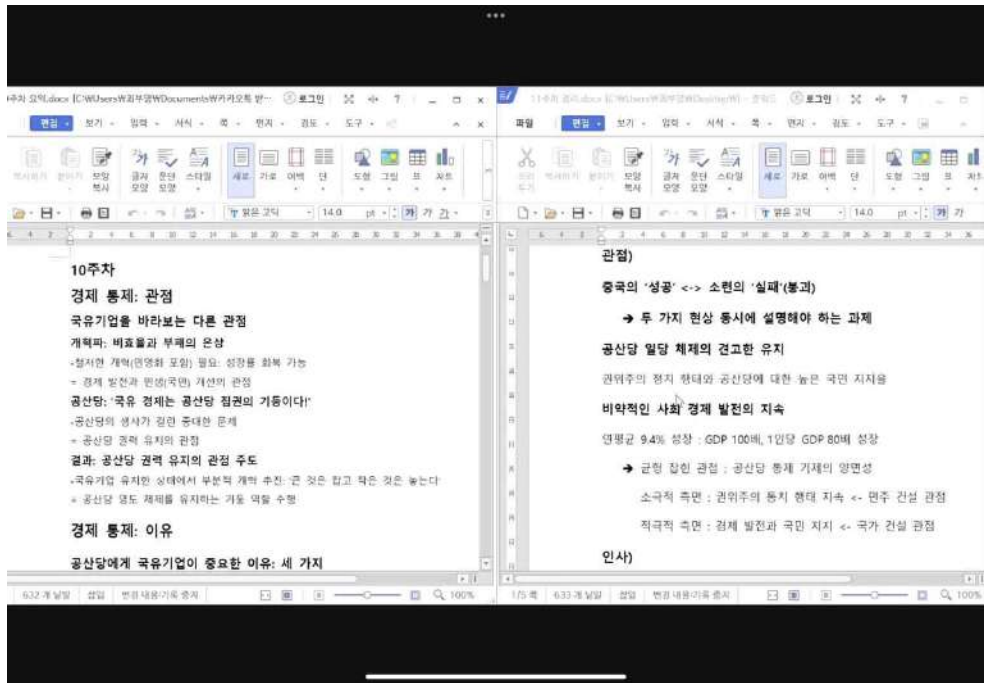
두번째는 균형 발전이다. 선부론을 바탕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주요 대도시와 동부 연안의 성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낙후한 서부와 내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과제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부와 동북 3성, 중부지역 역점 개발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을 추진해가야 한다는 논리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 그리고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발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 주석은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 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서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전임자인 장쩌민의 '3개 대표' 사상에 이어 후진타오 주석이 주장해 온 '과학적 발전관' 이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 방침이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사상'으로서 '공산당 당장'에 삽입되었다.

**다음활동일  
정**

**활동증빙**  
**(비대면프로그램 활동**  
**캡처자료 등)**  
**2장 이상**



# 2023-1 차이나플러스프로젝트 최종결과보고서



팀명 불사조

## 1화. 공산당 영도 체제 (1)

사회를 이해하려면 움직이는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국은 권위적이고 일당 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국가가 아닐 수 있지만, 통치 체제의 면에서는 낙후되지 않았다. 정치체제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

- 민주 건설: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주권을 행사해서 그 나라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것
- 국가 건설 or 제도 건설: 국민이 필요한 정치적 공공재를 나라가 공급해 주는지

정치적인 측면, 민주 건설 측면에서 중국은 후진국이지만 국가 건설 측면에서 본다면 후진국이 아니다. 경제발전은 정치 민주화와 상관없고 국가 건설 즉 교육제도, 인프라,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중국의 통치 체제를 부정적 측면으로 보면 권위주의 국가이지만 긍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국가 체제로서는 상당히 발전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정치적 공공재

- 물질적-국가가 나를 적으로부터 지켜주는지,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해주는지, 법질서를 지켜주는지
- 정신적-자유 평등 공정을 얼마나 실현하는지

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공급해 줬을 때 그 나라의 국가 건설이 성공하고 통치 체제가 훌륭하다고 평가. 이는 중국이 40년 동안 GDP가 100배 성장한 것을 설명 가능. 중국은 권위주의적 모습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질서가 잡힌 국가.

###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차이점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영도 체제.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권당이 끝.

중국의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영도당

집권당: 집권당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정당.

영도당: 국가/사회/인민을 특정한 방향(사회주의 건설)으로 인도하는 정당.

권력 장악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주의라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정당

공산당은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이자 영도당. 한국은 국가와 사회만 있고(단순한 직선적인 관계) 중국은 국가와 사회(기업, 문화단체, 사회조직 모두 포함) 위에 공산당이 있음. 국유기업은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영도, 사영기업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 큰 틀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 하에 있다.

### 공산당 <당장>의 규정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고,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정당 정부 군 민간 학교와 동서남북 중에서 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괴리 발생.

과연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책인가?

공산당원 중 노동자와 농민은 소수. 사회주의에서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중국에는 당의 헌법과 국가 헌법 두 개의 헌법 존재. 국가 헌법에도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의 파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국에서 최고의 안전=공산당의 영도 체제를 수호하는 것

현재 중국의 영도 체제는 공산당 당장과 국가 헌법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 핵심 무력 기관은 모두 절대영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 권력기관이면서 의회이다. 헌법에 따르면 공산당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국된 이후로 전인대가 공산당을 감독한 적은 없다. 중국이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 경제적으로는 인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동 부유가 실현된 사회. 막스-레닌이 규정한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 정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 공산당 영도 체제의 필수요소

### 1) 공산당 영도의 원칙

역할: 공산당 영도 체제의 이론적 정당화, 실제 행동 원리와 활동 지침

세부 요소: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 민주집중제 원칙, 당관 간부 원칙, 통일전선 원칙

1. 공산당 전면 영도: '공산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중국의 민주화: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을 폐지(다당제 도입)

외자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건설되어 있다.

2. 민주집중제: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한다'

혁명 과정에서는 민주 원칙과 집중 원칙 둘 다 강조, 건국 이후에는 집중 원칙 강조.

-민주 원칙: 공식 결정 전에 자유로운 토론과 발표

-집중 원칙: 공식 결정 이후 철의 규율로 복종과 집행

-네 가지 복종 원칙: '당성의 견지'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 <당장>: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수호한다"

3. 당관간부: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중요성: 공산당의 인상 독점 정당화<->중국의 민주화: 당관간부 원칙 폐지

간부직무명칭표: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이 제도 시행하는 중. 공산당이 임명하는 직위를

리스트를 만들어 임명, 아래 일급 관리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실행

4. 통일전선: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합작'

공산당 밖의 중요 인사와 조직을 통제,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산당 통치의

위협 세력 발전

애국 통일전선- 민족, 계급, 정파를 모두 포괄

정협은 공산당원이 아닌 나머지 주요 세력들을 다 모은 조직.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같이 개최하는데 정협에서의 결정은 법적 효력 없음

## 2) 공산당 조직과 당원

역할: 공산당 영도 원칙의 실현 수단

세부 요소: 중앙조직/지방조직/기층조직, 영도 기관과 사무기구

## 3) 공산당 통제 기제

역할: 공산당 영도 체제의 유지 수단, 국가 헌정 체제를 통제하는 수단

세부 요소: 인사 통제, 조직 통제, 사상 통제, 무력 통제, 경제 통제

->원칙을 실현해 줄 수단으로서의 당원과 조직을 통해 국가와 사회와 인민을 통제, 영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막스-레닌이 말하는 사회주의와는 다름.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일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인 동시에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며 이것은 오직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

## 중국의 간부 선발 방식

-매우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간부 총원 방식이 분명하게 외부로 드러나는 일은 없다.

-간부 총원에서 현재 중국 내에서 주로 거론되는 요소는 크게 일곱 가지이다. 절대적 조건으로 거론되는 성과, 업적, 사회적 평가

여기에 상대적 승진요건으로 거론되는 것 : 나이(젊음), 학력, 직무 경험, 동료 평가, 지도자 네트워크, 기회, 기층 경험 등

공산당 당원 양성 과정 : 공산당에는 촘촘하게 짜인 교육제도와 기관들이 존재한다. 공산당원인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면서 미리 발굴해 선별해내고, 이렇게 누적관리된 인재들은 대학생이 되어 당에 가입하게 된다. 약 2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당원으로 선발되고 난 뒤에는 각 분야의 일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방위적인 평가를 받으며 승진하게 되면 상급기관으로 진출한다.

-지방 간부 약 700만명 중 지도자급 엘리트 인재로 성장할 확률은 1/14,000이며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3년이 걸린다. 공산당은 엄청난 경쟁과 평가, 오랜 학습과 단련을 거친 인재들의 집합체이다.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또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를 포함한다.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이므로 일단 자본주의를 도입 성공한 다음,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론을 제시하여, 중국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도입하였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 인민의 경제건설, 개혁개방 혁명을 실천하는 중국식 현대화 노선을 가리킨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공산당의 영도,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 노선, 현재 중국의 특수성 고려 세가지이다. 이는 사회 전 분야에 있어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 덩샤오핑이 주장한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야 하고, 현재 중국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꾸준히 변해왔고 현재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는 도시노동자이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자계층이 출현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반면, 중국 사회주의에서는 혁명의 주체가 농민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포될 무렵은 농민이 많은 농업중심사회였다.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마오쩌둥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궁핍한 농촌인민을 위한 혁명 사상이 성립된다. 그리고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사회주의 정치이념으로 통일이 된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덩샤오핑부터 다른 색채를 띠는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경제가 많이 지체되어 덩샤오핑이 이를 추스리고, 이후 경제는 자본주의/정치는 사회주의의 이중 색채를 띠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는 개혁을 거치면서 정통 마르크스-레닌 사회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공산당 입당 자격

중국 공산당 당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9,671.2만명이며, 상무위원 7명, 정치국원 24명, 중앙위원 171명, 당 대표 2296명이 구성되어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는데 특별한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입당과 탈당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입당자격은 엄격하고 입당했더라도 마음대로 탈당 하지도 못한다. 우선 '중국공산당장정'에 따르면 입당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중국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분자와 기타 혁명분자로 당의 조직에 참가하기를 원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입당을 신청할 때 2명 이상의 당간부의 보증이 있어야 하고, 당지부에 보고되면 예비당원으로서 1년 동안 자격심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산당원이 되는 특혜는 없다. 한 차례 입당이 거부되면 다시 한 번 입당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두 차례 떨어지면 입당은 영원히 불허된다.

## 2화. 공산당 영도 체제 (2)

공산당 조직의 중요성: “공산당의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힘은 곧 조직이다” 공산당은 당원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에 소속되어야 하고 조직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봉쇄정책 한국이었을 경우 공무원들이 와서 봉쇄하고 물자 공급하고 방역을 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2020년 우한을 봉쇄했을 당시 4만명이 우한에 모였는데 대다수가 공산당원이었다. 봉쇄하고, 방역하고, 물자 공급을 공무원이 아니라 공산당 기층조직이 하였다. 공무원은 소수이기에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공무원은 700만명 밖에 안된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내는 시험에 합격해서 국가에서 일하며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공산당원은 9600만으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비상시 국가조직도 움직이지만 진짜 움직이는 실체는 공산당 조직이다. 그럼 공산당엔 어떤 조직이 있는가? 편의상 공산당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원회와 기층조직으로 나뉜다.

각급 공산당 위원회(머리와 몸통)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성급/ 시급/ 현급

각급 공산당 위원회(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다 있다)는 모든 것의 영도 핵심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당 위원회는 베이징시의 영도 핵심이다. 베이징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요한 것은 다 결정한다. 그러나 의사 결정은 하위 당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공산당 기층조직 (모세혈관)**

-기층 위원회 / 총 지부 위원회 / 지부 위원회

이외에도 2가지 조직이 더 존재

**공산당 당조**

-가기관/ 국유기업/ 인민 단체/ 사업 단위 등국

**공산당 영도소조**

-‘정책 결정 의사 조정 기구’

전국대표대회(당대회) 2296인: 5년에 한 번 열리기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이벤트로 봐야 하기에 무시해도 좋다. 중앙위원회 376인: 1년에 한 번 열리기에 중앙위원회가 중요하고 중요한 결정을 여기서 내린다. 중앙위원회에서 총서기,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요 인물들 여기서 뽑는다. 중국에서 통치 엘리트는 중앙위원회에 속한 사람을 뜻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정 의원(표결권이 있는 사람) 205명, 후보위원(표결권은 없고 회의에 참석해 발언권만 있는 사람) 175명으로 나뉜다.

실질적으로 말하는 공산당 중앙은? 정치국 24명 거기서도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공산당 중앙을 볼 때는 총서기,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만 보면 된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것을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부른다.

### 공산당 조직: 정치국 상무위원회

#### 집단지도 체제

원칙: "집단 결정과 개인 분담 책임의 결합 원칙"

- 집단 결정: 당대회>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

- 개인 분담 책임: 정치국원/상무위원은 고유 임무 분담

중요 사안도 시진핑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무위원회 7명이 결정하기에 집단 결정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 분담 책임이라고 부른다.

조건: 권력 분점과 협의 타협 통한 문제 해결

-권력 분점: 여러 정치세력이 권력기구 공동 구성

-협의 타협: 인사와 중요 정책은 회의 통해 결정

필수요소

-당내 법규(당규)의 제정과 집행: 각 기관의 권한과 절차

-정치국/상무위원회 구성: 주요 권력기관의 현직 지도자

####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

7명은 그냥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틀이 존재하는데 공산당 총서기, 국무원 총리, 전국 인대 위원장, 전국정협 주석, 중앙기위 서기, 서기처 상무서기, 국무원 부총리가 뽑힌다 - 당, 정, 군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인 곳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렇기에 각자의 역할들이 존재한다. 개인 분담 책임이기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북한의 외교정책, 미국과의 외교정책, 대만의 문제 같은 것들을 잘못하면 -> 1차적으로 시진핑이 책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 운용을 잘못했다, 코로나 시국을 잘못 막았다 ->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

### 공산당 조직: 주석과 총서기

#### 주석과 총서기의 차이

##### 지위

-주석(毛):공산당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

-총서기: 중앙서기처를 총괄하는 당내 지도자

##### 직권

-주석(毛): '최종 결정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

-총서기: '동급자 중 일인자'

### 공산당의 중앙 주석 폐지: 공산당 12차 당대회(1982)

- '제2의 마오쩌둥'(독재자)의 출현 방지
- 집단 지도 체제의 구성과 운영

### 다양한 스타일의 총서기

#### 장쩌민: '권력의 화신'

- 혁명 원로의 퇴장(1992년)으로 '시어머니' 부재
- 권력 강화: 판공청 확대/ 영도소조 강화/ 지방 간부 통제

#### 후진타오: '당내 민주주의 실천가'

- 당내 민주주의 확대: 각 기관의 책임자에게 권한 확대
- 이유: '장쩌민 세력'의 횡포 억제

#### 시진핑: '감투 수집가'

- 권력 집중 체제의 구축: '제2의 마오쩌둥'?
- 방법: 부패 척결/ 공산당 전면 영도 추진/ 영도소조 강화

### 공산당 조직: 당조와 영도소조

#### 공산당 영도 체제의 두 가지 고민

#### 공산당 밖의 국가기관/국유기업/단체의 영도 문제

- '부서이기주의'의 만연 (국무원 총리이자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상무위원인 사람은 국무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산당 위원회에서 외교부장을 임명하면 그 사람은 외교부의 이익을 이야기함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이야기 하는 것)

- 법적으로 공산당 하부 기관이 아님: 국무원, 전국인대 등

#### 수많은 기관과 조직(공산당/정부/의회/법원/검찰/군대)의 조정과 영도

- 공산당은 '영도당'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관리해야 함
- 영역별로 다양한 당정기관, 경제조직, 사회단체 존재

#### ->'특별한' 영도 조직 필요: 타국에 없는 중국만의 특징

공산당의 영도체제를 운영하려면 이런 공산당 위원회라는 조직 외에 2가지 조직이 필수이다. 공산당이 당면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산당 바깥에서 탄압하는 조직과 기관을 컨트롤 -> 당조

당, 정, 군 수많은 조직을 묶어서 통치 -> 영도소조

### **당조**

인민단체-사업단위-국유기업-군-공산당-정부-인대-정협-법원검찰원

이 조직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당조(공산당 중앙의 파견 기구)를 만듦.

공산당이 통제하는 방식: 국무원 총리이면서 국무원 당조 조장인 경우 국무원이면서 공산당 중앙의 파견자이기에 이중 신분으로 결정을 내릴 때 국무원의 입장과 공산당의 파견자로서 공산당의 입장을 전부 생각해야 한다.

### **영도소조**

당조 외의 나머지 수많은 부서를 7개로 묶어서

조직인사/선전교육/정치법률/재정경제/통일전선/외사/군사 7개의 분야로 나누어 놓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각 태스크 포스를 하나씩 만들어 두는 것 ->영도소조

### **공산당 조직: 지방조직**

**공산당 지방 위원회: 당의 '몸통'**

**성격: '해당 지역의 영도 핵심'**

- 행정구역 내 모든 곳에 설치

구분: 행정 급별에 따른 분류

- 성급(31개): 성22/소수민족 자치구5/직할시4

- 시급(333개): 시/소수민족 자치주/지구

- 현급(2,846개): 현/시/구/기/기타

- 향급(38,755개): 향/진/가도/기타

**구성: 공산당 중앙과 유사한 구성과 운영**

### **공산당 조직: 기층조직**

**공산당 기층조직: 당의 '모세혈관'**

성격: '사회 기층 조직에 있는 당의 전투 보루'

- 3인 이상 당원이 있는 모든 곳에는 기층조직 설립

구분: 설립 대상에 따른 분류

- 구역: 농촌의 촌락/ 도시의 사구

- 단위: 기업/ 학교/ 연구소/ 병원/ 단체 등

**종류: 당원 규모(수)에 따른 분류**

- 기층 위원회: 당원 100명 이상
- 총 지부 위원회: 당원 50-100명 사이
- 지부 위원회: 당원 3-50명 사이

**영도소조**

-설립된 이유 : 중국 관료체제는 수직적 관리와 수평적 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수평적 협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부문이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는 영도소조라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했다.

-역할 : 영도소조의 기본 역할은 정보 처리와 정책 수행 등의 측면에서 고위 지도부와 주요 부처 간에 교량이 되는 것이다.

영도소조는 정책 결정에 앞서, 특정 문제에 대한 정책 협의와 제안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료들(계통 초월)을 소집한다. 이는 정책 협의 과정에서 관련 행정조직들이 참여하여 정책 수행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영도소조는 그 중요성이나 존속 기간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대국적이거나 전략적 업무는 장기성을 가진다. 반면 돌발적이거나 임시성을 갖는 업무를 위해서는 단기적 성격의 영도소조도 설립된다.

- 조장과 부조장 모두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는 영도소조는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 각 부문 간의 권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개혁개방 이후 부문을 넘어서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급증했기 때문에 영도소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집행력과 효율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공산당기층조직**

중국 공산당은 크게 중앙, 지방, 기층 3층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뤄진다. 이 중 가장 하위인 기층조직만 500만개다. 마치 모세혈관처럼 국가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사회단체, 군부대, 병원, 시골 마을까지 곳곳에 뻗어 있다. 당원 3명 이상이 있는 모든 단체, 민간기업, 외국계 기업까지 당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기층조직이란 당원 및 일반 대중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최일선 당 조직을 의미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모든 사업과 전투력의 기초이며, 기층조직 건설은 당 조직 건설의 기초사업이다.

기층 단위에서 3인 이상의 당원이 있을 경우에 기층 조직 건립이 가능하다. 기층조직은 당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대중에 알리고, 상부의 결정을 집행하고, 사회 균형을 조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당원을 교육, 관리, 감독하고 인재 흡수 역할도 담당한다. 각 생산현장 일선의 청년들에게 당이론을 학습시켜 미래 공산당원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당의 기층조직은, 업무의 필요성과 당원 수에 의해 그 형식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00명의 당원을 초과하는 기층단위는 상급 당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의 기층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며, 기층위원회 하부에 총지부나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당원이 50명 이상이 있는 기층단위에서는 당의 총지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하부에 약간의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정식 당원이 50명 이하인 기층단위에서는 당의 지부만 설치할 수 있다. 3명 미만의 당원이 있는 기층단위에서는 인근 단위의 당원과 연합으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혹은 대표대회에서, 총지부 위원회와 지부 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 당 조와 영 도 소 조

당조: 공산당 파견기관 성격을 가지므로, 소속기관의 대표가 아니라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산당이 비당 조직을 통제한다. 군대는 물론 국가기관, 그리고 각종 기업이나 이익단체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영도소조: 외교, 정법 등 다양한 기관들이 수행하는 임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영도하기 위해 공산당이 설립한 특별한 영도 조직이다. 예를 들어, 외교 분야에는 공산당 대외연락부, 국무원 외교부, 신화통신사 등 외교 관련 부서들이 모두 모여 구성한다.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지방 성 차원에서도 유사하고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중국 전체로 치면 수백만 개라고 한다. 시진핑의 경우, 핵심적인 여러 소조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경제와 국방 등 실질적인 권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시진핑이 조장을 맡고 있는 소조가 10개나 된다고 한다. 소속된 소조가 많으면 정기적으로 정해진 회의숫자만 해도 매우 많아서 많은 정책이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 주 석 차 이

공산당 12차 당대회(1982)에 공산당의 중앙 주석이 폐지되었다고 나온다. '제2의 마오쩌둥'(독재자)의 출현 방지와 집단 지도 체제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폐지되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을 어떤 글에서는 총서기로, 다른 어떤 글은 주석으로 지칭한다. 주석은 폐지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쓰이는 주석과 폐지된 주석의 차이는 무엇인지, 총서기는 어떤 것인지 조사하였다.

총서기로 쓰이는 직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이다. 이는 시진핑을 검색하면 나오는 그의 직책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직책이다.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임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에서 최고의 정책 결정 집단은 흔히 중앙 혹은 당중앙이라 부르는 중앙위원회이고, 이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총서기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직책을 맡아 중국을 이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라고 불릴 때 쓰이는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주석이라 부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직책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직책이라 생각하면 된다. 또한 시진핑은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위에 폐지되었다는 주석은 무엇인가? 1945년부터 1982년까지 존재했던 중국공산당의 최고 수위 자리이다. 국가직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국가주석)과 구별하여 당 주석(중공중앙주석)이라고 불리었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당헌상 직권이 훨씬 더 강력하였다.

---

### 3화. 중국 공산당 당원

중국 공산당 당원은 총 9600만명 정도이다. 중국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 당원은 간부 당원과 평당원으로 나뉘는데, 간부당원은 당원이라는 정치적 신분과 자신의 직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다. 대략 700만명정도 된다. 평당원은 자신의 직업은 따로 있고 공산당원은 정치적 신분인 사람들이다. 대략 9000만명정도 된다. 종교인으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일은 다 하고 공산당원이라는 정치적 신분으로 따로 정치적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공산당원이 되려고 하는가? (매년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인원은 2000만명 정도 인데 약 3-4년이 걸려 정식 공산당원이 되는 인원은 200만명이 안된다. 신청한 인원의 10%가 안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공산당원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원으로 살면서 이웃과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이 더 크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 희생한 이들이 공산당원이다. 중국인이 아니라면 중국 내 공산당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산당원이 되면 특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됐다는 것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엘리트'임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또한, 공산당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당원이 아니면 중국 정부의 핵심 보직에 접근할 수 없다. 중국에서 '정치적 출세'를 원한다면 당원 가입은 필수다.

#### 입당 조건 : <당장> 규정

만 18세 이상 / 중국 국적 / 각계각층의 '선진 분자'

'선진 분자'의 판단 : 공산당의 엄격한 선별을 통한다. -> 상위 6-7% 엘리트가 모인 '엘리트 결사체'이다.

#### 공산당의 강령과 <당장 승인>

"노동자계급의 선봉 전사" :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분투

"노동자/농민의 일원" : 사리사욕과 특권 추구 금지

#### 공산당 조직참여 / 공산당 결의 집행 / 당비 납부

모든 당원은 반드시 조직에 소속하여 활동

소득 규모에 따른 당비 납부 : 6개월 미납 시 제적

## 공산당원의 의무와 권리

의무 : 8개

학습과 인민 봉사 능력 향상. 당 노선과 방침 실천하는 선봉 모범 역할, 당과 인민 이익에 개인 이익 종속, 비밀 엄수 등

권리 : 8개

회의 참가 / 당 문건 구독/ 교육 훈련 참가 / 정책 토론/ 건의 / 문제 제기/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 입당 절차

### 4단계 절차

적극 분자 -> 발전 대상 -> 예비 당원 -> 정식 당원

기간 : 최소 2년 6개월 - 최대 4년 (평균 3년)

1단계 : '입당 적극 분자' 확정과 교육

입당 신청서 제출 : 당 지부 -> 1개월 내 선정

교육 훈련 : 1년

'육성 연계인' 지정 : 적극 분자 선도와 평가(육성 연계인은 정식 당원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사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각종 활동 참가

2단계 : '발전 대상' 확정과 '정치심사'

'발전 대상' 확정 : 당 지부위원회의 심의

교육 훈련 : 1년

'입당 소개인' 지명 : 발전 대상 선도와 평가

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각종 활동 참가

'정치 심사' : 네 가지 내용

공산당 이론과 노선 / 정책에 대한 이해와 태도

역사(예)문화대혁명)와 정치투쟁(예) 텐안먼 사건)에 대한 태도

법률 준수와 사회 도덕 준수 여부

본인과 직계 친족의 사회관계와 정치 상황 : '연좌제'

3단계 : '예비 당원' 입당과 입당 의식

'예비 심사' : 상급 당 조직(공안에 신원 조회 등)

입당 지원서 제출과 심사 : 당 지부 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 발표, 심의, 표결

상급 당 조직에 심사와 비준 요청 : 3개월 내 회신

입당 의식 거행 : 당 위원회

4단계 : '예비 당원' 고찰과 '정식 당원' 전환

'예비 당원'의 1년 예비 시기 : 교육과 고찰

6개월 ~ 1년 연장 가능

교육과 고찰 : 상급 당 조직

'정식 당원' 전환 : 상급 당 조직

‘당안’(개인 파일) : 공산당 당원은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당안을 직접 볼 수는 없다. 당서기와 조직부만 볼 수 있다. 이후에 승진 같은 것에 참고자료로 쓰인다.

### 조직생활

‘조직 생활회’와 ‘민주 생활회’

일반 당원의 ‘조직 생활회’ : 매년 연말/정풍운동 기간

모든 당원 참여 : 당 지부나 당 소조에서 실시

절차:자기 검토(생활과 정치사상)->상호비판->정리

영도 간부의 ‘민주 생활회’ : 매년 연말/정풍운동 기간

공산당 중앙 정치국 민주 생활회(이틀동안 진행)

자기 검토 : 5개 중점 (시진핑 사상의 학습과 관철/ 당 전면 영도 실천/ 임무 수행/ 중앙 결정 집행/ 청렴 생활 등) 상호 비판 전개 시진핑 총서기의 총괄 평가

### 정 풍 운 동

최초의 정풍운동은 옌안에서 1941-1945년까지 약 4년 동안 사상 교육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옌안 정풍 운동의 절차와 방식은 이후의 다른 정풍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옌안 정풍 운동의 절차는 이러하다. 첫째는 집중 학습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 마오쩌둥의 주요 연설문과 저작, 공산당의 결정 사항이 주요 학습 대상이다. 둘째는 자기 조사와 검토서 작성이다. 당원 개인의 사상과 활동을 해당 지역 및 단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야 한다. 셋째는 비판과 자기비판이다. 조사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자기 비판을 하고 다른 당원의 비판을 받는다. 넷째는 인식 제고와 경험 총괄이다. 이는 정리 단계로 당원의 사상 인식을 통일하고, 이를 토대로 당성을 강화하고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진다.

정풍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공산당의 자정 활동을 통해 당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고, 둘째는 새로 선출된 총서기에 대한 당정간부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는 반대 세력에 대한 청산 혹은 제압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정풍운동은 총서기의 권력 공고화 운동이다. 장쩌민 시기의 삼강활동, 후진타오 시기의 공산당 선진성 활동, 시진핑 시기의 군중노선 교육실천 활동이 대표적이다.

### 중 국 공 산 당 원 의 의 무

당원이 되면 의무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은 ‘모범의 의무’를 강조한다. 자신이 일하는 단위(기업 혹은 기관)에서 부당 이득이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당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어록에서 나오는 ‘인민을 위해 일하라’(爲人民服務)는 정치구호를 늘 앞세워 당과 인민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이 주관하는 행사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당 조직을 비롯한 각급 당 조직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징계를 받는다.

당원이 되면 당의 어느 누구 또는 어느 기관에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비리 당원을 질책하거나 고발할 수도 있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부패와 비리 혐의로 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법 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공산당기율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당 기율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축첩 등 '불륜 스캔들'을 당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을 가진 당원은 당비도 내야 한다. 금액은 신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봉급 생활자를 예로 들면 월급이 3000~5000위안이면 급여의 1%, 5000~1만 위안이면 1.5%, 1만 위안 이상이면 2%를 내야한다.

### 중국의 공산당 입당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에 가입하는데 특별한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입당이나 탈당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와 다르게, 중국 공산당 입당 자격은 엄격하고 입당했더라도 탈당이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공산당 입당을 신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당간부의 보증이 있어야 하고, 당지부에 보고 되면 예비당원으로서 1년동안 자격심사와 검증을 받아야한다.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산당원이 되는 특혜는 없다. 한 차례 입당이 거부되면 다시 한 번 입당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두 차례 떨어지면 입당은 영원히 불허된다.

(공청단: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젊은 학생 당원, 청년 군중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과 정치 선전을 담당하는 공산주의 청년 당조직)

당원이 되면 특혜보다는 의무사항이 더 많은데, 그 중 으뜸은 모범의 의무이다. 자신이 종사하는 단위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당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당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이 입당을 이렇게 엄격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이 주도하는 사회시스템에서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인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가는 인민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중국 공산당 당원 수 연도 별 변화 조사

- 1921. 7 창당 / 57명
- 1923. 6 / 432명
- 1927 / 1만
- 1928. 6 / 4만
- 1949. 10 / 448만
- 1956. 7 / 1073만
- 1969. 4 / 2200만
- 1977. 8 / 3500만
- 1987. 10 / 4600만

1992. 10 / 5100만  
1997. 9 / 5800만  
2002. 11 / 6694만  
2007. 6 / 7336만  
2009 / 7795만  
2010 / 8026만  
2014 / 8670만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재 9600만 명으로 인원수가 대한민국보다 많은 수준이기에 당원 수는 어떻게 변화해 온 것인지 궁금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13명의 대표와 50여명의 당원으로 출발했는데 2019년 기준 9,191만 4,000명의 공룡 정당으로 팽창했다. 몸집을 불린 결정적 계기는 1978년 당 11기 3중전회다. 1921~78년 57년간 공산당원은 1,570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8년을 기점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권좌에 오른 2012년 18차 당대회까지 34년간 당원은 6,128만 명 늘었다. 전체 공산당원 수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덩샤오핑(鄧小平)의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마오쩌둥(毛澤東)의 그늘에서 벗어나 과거가 아닌 미래로 방향타를 돌린 덕분이다.

---

#### 4화. 공산당 영도체제의 평가와 전망

##### 공산당 영도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산당이라는 체제가 안 맞을 것이다.
2. 일인체제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다.
3. 권력투쟁이 심해질 것이다(=공산당 내부에서 분열이 생길 것이다) -> 하지만 이것은 앞 영 상에서 보았듯이 안된다.

이때, 1번을 학술용어로 근대화론이라고 한다.

근대화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것이 시작이다. 산업화가 된다면 농민들은 도시로 와서 산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육이 시작되고 매스미디어의 발전도 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20년만 지나면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돈도 생길 것이다. 즉, 중산층이 된다. 중산층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따질 것 ->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중산층 의식, 시민의식이 생겨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근대화론이다.

근데 이걸로 중국을 설명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제3의 민주화물결시기(1974년~1991년 소련붕괴시기) 때 민주화된 나라가 120개 정도 된다. 하지만 그 중 성공한 나라는 20퍼센트 밖에 안된다. 한국과 대만이 가장 성공한 사례이다.

여기서 성공했다는 것은 아래의 3가지가 있어야 한다.

-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후퇴 x
- 경제적으로 지속적 성장
- 사회적으로 평등함 구현

근대화론에 맞는 나라는 120개국 중에서 한국, 대만을 포함해서 10여개 정도 밖에 안된다. 나머지 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경제가 망가져서 못 견딜 것 같을 때, 전쟁에서 졌을 때 등) 민주화가 일어난다. 퍼포먼스가 안 좋을 때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것.

따라서 중국을 근대화론을 갖고서 설명하면 안된다.

### 중국 영도체제를 옹호하는 집단은?

상류층이다. 개혁개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기 때문에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10가지의 계층으로 분화되었다. 1등은 고위 당정 간부, 2등은 국유기업 경영자, 3등이 사영기업가이다. 10가지의 계층을 구분하는 요소는 사회적 영향력, 경제력, 정치적 지위 (=조직력)을 고려한 것이다. 개혁개방의 수혜자들이 옹호하고 지지한다.

(사영기업가: 중국에서 사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민간 기업가)

### 막스 공산주의와 중국 특색의 공산주의

200년 전 막스가 제기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사영기업과는 맞지 않는다. 공유제, 국유제, 기업경제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이다. 200년 전과는 사회가 다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내용도 다르다. 중국 스타일의 사회주의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이고, 중국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중국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있다.

시진핑의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하다. 사영기업이 중국경제를 지탱해주는데, 사영기업가를 무너뜨리면 자신들도 위험하다.

중국의 통치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음 4가지를 검토해야지 최소 정치적 측면에서 공산당 영도체제가 지속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음

1. 국민들이 공산당 영도체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2. 공산당이 과연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3. 이데올로기의 문제 - 사회주의를 정당화 시켜야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막스-레닌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 국민뿐만 아니라 당원도 설득해야하며, 설득의 핵심은 공산당이 왜 일당독재를 해야하는가이다.
4. 엘리트 정치 파벌투쟁이 안나는가

### 권위주의 강건함

공산당이 어떤 이유로 통치를 이렇게 오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음 (권위주의가 왜 안무너지는가)

1. 업적이 뛰어나다. 중국은 지난 40년동안 GDP가 엄청 발전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정도로 성과낸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2. 엘리트정치, 국가통치체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잡혀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도 발전한다.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다.
3. 이데올로기

이 세가지가 공산당을 지탱해주는 기본요소이고, 서로 보완을 해준다.

### 현 체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려면

1. 바뀌는 것이 현 체제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2. 대안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만큼의 통치능력,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중국의 지역 격차

중국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하지만 차이에 대한 탄력성이 크고, 차이가 나는 원인을 공산당으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본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이면 경제적인 차이의 원인을 공산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니 우리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안좋다고 생각한다는 뜻.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사는 지역을 떠나 잘 사는 지역으로 가겠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의 상황이고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도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방침으로 공동부유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 격차가 계속 줄고 있다.

### 공산당과 국가의 관계 (법과 제도)

법과 제도를 통한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 법과 제도에 따라 잘 다스리는가를 보려면 당내법규(당규)가 얼마나 제정/시정 되는가를 보면 되는데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981-90년에는 10년 동안 74건이었지만,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2018년 한해에만 74건이다.

즉, 촘촘하게 당내법규와 국가법률을 만들어서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 총정리를 하자면,

1. 현재까지는 중국 국민이 공산당 영도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2. 공산당의 국가통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다.
3. 시진핑 사상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공산당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성공했다.
4. 엘리트정치 차원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 시진핑사상(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시진핑 사상은 2017년 11월 19차 당 대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날 시 주석은 시진핑 사상의 공식 명칭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본인 이름을 뺀 채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고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이룬 성과의 바탕에

시진핑 사상이 있으며, 당을 중심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진핑 사상은 중국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에 추가됐는데, 당장에 본인 이름이 담긴 '사상'이 명기된 것은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과 시 주석 둘 뿐이다.

중국의 역대 지도자는 모두 본인이 세운 공산당 지도이념이 있다. 지도이념은 공산당의 행동강령으로 승계, 발전되나 중요도에 따라 사상, 이론(론), 관 순으로 표기되며 지도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역대 지도자의 지도이념을 보면,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等少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사상이 있다. 3개 대표론의 장쩌민(江泽民), 과학적 발전관의 후진타오(胡锦涛) 전 국가주석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름은 마오쩌둥 사상 이래 유일하게 사상으로 채택되어 덩샤오핑 이론보다 한 단계 더 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처음 제시한 이가 덩샤오핑이다.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덩샤오핑보다 시 국가주석을 더 높이 평가함으로써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아닌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이전보다 더 나은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구이자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표대회는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 당장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장 수정안에 대한 당대회 결의문은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당장에 명문화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당의 이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을 추진해 이론 성과를 보다 잘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중국의 지역 격차 (빈 부 격 차)

지역 격차는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 발전 역사와 관계가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덩샤오핑이 직접 고안한 연해 지방의 경제특구로부터 시작했다. 중국 경제는 점(경제특구)을 중심으로 해운 교통이 편리하여 수출입이 용이한 연해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했다. 연해 지방 도시들이 빠르게 발전을 한 반면, 중국 내륙, 서부 지방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중국 빈부격차의 원인은 다섯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선부론이다. 소수가 먼저 부자가 되는 방식의 경제 발전 전략을 시행하면서 빈부격차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불법, 탈법 경영과 권력의 자본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세 번째는 중국의 세금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납세액 순위를 보면 중국의 유명한 부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농민, 퇴직자, 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한 사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불평등한 경쟁을 꼽는다. 국영기업과 같이 독점적 허가권에 기반하여 독과점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아직 많다.

중국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중국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는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서부 대개발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고속철도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외되었던 중서부를 집중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 관리하의 자본주의 제도가 실시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본래 중화인민공화국 특색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쩌둥 사상의 개념이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이다.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서며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제창하며 이를 당의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지도 사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의미하며 신시대는 중국이 중속성장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시진핑 정권은 이 시기의 핵심 해결 과제가 증가하는 국민의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충분하지 않은 경제발전, 그리고 소득 불평등에서 오는 모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질적성장, 내수중심,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시사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뜻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시기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샤오캉 사회(샤오캉 사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경제사회 상태를 의미)의 달성 및 사회주의 현대국가 실현을 목표 세우고 세부 실행계획을 지속 수정 보완하고 있다.

## 중국의 공동부유

'공동부유'는 글자 그대로 '같이 잘 살자', '부의 분배'라는 뜻으로, 2021년 8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강조하면서 중국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1년 8월 17일 열린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 내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한 공동부유를 국정 기조로 밝혔다.

공동부유는 민간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인민과 나누자는 것으로, 소수에게 부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산당 질서 아래 재집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래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때인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선부론(先富論,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돼라)을 앞세워 성장에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성장'이 아닌 '분배'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공동부유를 내세워 교육·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문화여유부(文化旅游部) 역시 '연예인 교육 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연예인들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고 법률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교육 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과 수업 관련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킨 데 이어, 2021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1~2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고 나머지 학년도 기말고사만 치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를 내세워 알리바바·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관련 기업들에 중국 공산당이 직접 운영하는 국영 노동조합인 공회 결성을 독려하고, 이들 기업들의 초고속 성장의 기반이 됐던 '996(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불법으로 명시했다. 이에 공동부유의 핵심 표적이 된 알리바바는 9월 2일, 오는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5화. 인사통제

공산당이 어떻게 국가, 사회, 국민을 통제하는가?

-통제의 긍정적 측면: 모든 책임은 공산당이 진다.

부정적 측면: 공산당만이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다스린다.

-권력삼각형: 공산당 국가 사회(인민)

-공산당의 5가지 통제 기제: 인사통제, 조직통제, 사상통제, 무력통제, 경제통제

### <인사통제>

-계획경제

국민 전체가 통제의 대상. 도시인들은 국영기업,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단체, 사업단위(학교, 박물관, 문화센터)에 모두 묶여있다. 단위에 벗어난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 농촌은 집단농장 형태. 국가에서 직업 분배.

-시장경제

사적소유제도 도입, 시장경제가 운영원리

공산당이 통제해야 할 사람은 간부와 공무원이다. 고위직 공무원, 간부만 공산당이 관리하고 일반직은 정부가 관리

공무원 700만명

1.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

2.국가가 지정하는 공적 업무에 종사

3.국가 재정에서 월급과 복지

간부 최소 4000만명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당정간부 2.국유기업간부 3.사업단위간부 4.군간부

## 중국이 개혁개방에 성공한 이유

뛰어난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 덩샤오핑

전국에 대학 나온 40대 50만명을 모아 개혁개방 교육하고 중앙부터 지방까지 임명 ->우수한 당정 간부 선발, 교육, 평가

## 인사통제-선발

임용방식

1. 고시 임용제(시험을 통한 선발): 하급 공무원 선발

국가 인사처에서 관리

2. 위임제: 영도 간부 선발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3. 선거 임용제: 국가기관 책임자(소수)

4. 초빙 임용제: 전문가 초빙

간부직무명칭표 제도

핵심직위 70만명 관리

원칙: '당관간부' -> 공산당만이 간부 관리할 수 있다

방침: '아래 일급 관리' 중앙->성급->시급->현급

인사통제-교육

간부 교육 훈련 체계: 1교 5원 (약5천개)

1교: 공산당 학교(당교)

5원: 각종 간부학원 (국가 행정학원, 연안 간부학원, 징강산 간부학원 등)

중앙당교 사례

반 구성

-연수반: 영도 간부의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수

5년에 1회 이상 3개월 집중 교육. 장관급, 국장급만

-육성반: 미래 영도간부 육성

중청반(중앙청년간부 육성반): 미래 차관, 국장 육성

신장 민족간부 육성반, 티베트 민족간부 육성반

-주제 연구반: 특정 분야 업무 능력 향상. 장관,국장급 주제 연구반

공통교육과정

-당 이론 교육과정(정치교육) 마르크스-레닌주의부터 시진핑 사상까지

-당성 교육 과정 (정치교육)

-당대 세계 과정 (전문지식 교육)

-전략 사유와 영도 능력 과정 (실무 교육)

당교출신과 아닌 사람의 승진 소요 시간 차이

: 과장급 13.2년, 국장급 9.7년, 장관급 4.2년

연수, 교육훈련을 통해 당정간부 육성

-> 중국의 개혁개방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요소. 공무원과 모든 분야의 간부

가 사상적으로 통일

인사통제-평가

영도간부 개인 기준: 품성, 능력, 근면, 실적, 청렴  
 지방간부 '목표 책임제' : '압력형 체제'(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 등장=성과주의, 능력주의  
 -목표 고핵 방식: 지번 정부가 목표 계약 후 평가  
 -영도간부 고핵 방식: 개별 간부가 목표 계약 후 평가  
 -일표 부결제: 특정 목표를 못해냈을경우 승진 못하거나 면직 당함  
 ex) 산아제한 정책  
 ->평가는 철저하게 물질적 보상, 정치적 보상 받음.  
 인사평가와 간부 승진: 세가지 모델  
 -업적 모델: 간부는 업적에 따라 승진한다  
 -파벌 모델: 간부는 관시에 기대어 승진한다  
 -혼합 모델: 간부는 업적과 관시 모두 있어야 한다.  
 장관급 이상- 관시>업적 중하급- 업적>관시  
 '연령제 딜레마'와 '쾌속 승진' 경로  
 장관급 63세에 장관 못되면 은퇴해야 한다

### 쾌속승진 경로 세 가지

1. 공청단 경로: 이른 나이에 승진 가능
2. 겸직 단련: 원직 보유한 상태에서 1년정도 다른 업무 맡음
3. 파격 발탁: 단계 무시하고 승진(공개 선발, 경쟁 승진)

### 중국의 부패 관리) 인사통제- 감독

감독기구: '하나의 조직, 두개의 문패' 조직  
 공산당기율검사위원회(기위): 공산당 전문적으로 관리  
 국가감찰위원회(국감위):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곳 관리  
 '이중영도' 문제 심각-> 제 식구 감싸기

### 중국 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이유

: 구조적인 문제 - 공산당이 공산당을 관리  
 ->해결방법: 민주적 방식(선거), 행정적 방식(투명성, 공정성 확보)

### 중국 간부의 승진 임용

공식 요인과 비공식 요인에 의한 평가, 내부 합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부 합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간부 총원 조건을 실험하고 있다. 그 중 비교적 객관적으로 간부 선발과 승진 이동에 고려되는 조건들이 있다. 첫 번째로 젊음이다. 같은 조건이면 비교적 젊은 간부를 선호한다. 이는 덩샤오핑이 주창한 '간부 4화' 가운데 젊은 간부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덕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력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국제적인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간부를 필요로 한다. 시진핑, 리커창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상무위원들도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층에서 활동하는 간부 가운데 관학 협력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의 간부들 가운데 높은 학력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크게 강조되는 조건은 '기층 경험'이다. 기층 경험이라는 것은 현처급 이하 지방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현처급이나 그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당정군 사회 단체 직무경험을 말한다. 비록 기층에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기층에서 성과를 내고 성장을 이루어냈다면 승진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향과급이나 현처급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낸다면 높은 직위로 승진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는 간부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중국의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 감찰조직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위력은 막강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가감찰위가 출범한 2018년 3월 이래 조사한 각종 비리사항은 모두 63만8000여건으로, 이 중 62만1000명이 각종 처분을 받았다. 기율위반을 인정해 자수한 사람만 무려 2만7000명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출범 당시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에 해당)의 반탐(反貪)총국 에이스 102명을 차출해 만들었다. 인민검찰원이 잡범들을 잡아넣는다면, 국가감찰위원회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국가감찰위 홈페이지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 줄줄이 나온다. '피의자 인권보호' 같은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감찰위의 조사대상에 올랐을 뿐인데 대상자의 이름과 직위가 모두 나온다. 중국화전그룹 부서기,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정협 주석,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서기, 창춘시 공안국 국장 등이 올라 있다. 조사 결과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비리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중국남방전력당위원회 서기 겸 회장은 프라이빗클럽 출입, 관용차 부당사용, 뇌물수수 등이 드러나 당적은 유지하되 2년간 관찰 처분을 받았다. 국유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의 총칭시 부행장 역시 규정에 어긋나는 선물과 접대를 받고 관용차를 무단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중국 공직사회에서 국가감찰위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크게는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공산당, 작게는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걸림돌을 사전제거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감찰위의 감찰 대상 자체가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검위)의 감찰대상을 공산당원에서 비(非)당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기검위와 국가감찰위의 인적 구성 등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겹치는 쌍둥이 조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 기검위와 국가감찰위원회는 베이징 시청구(西城區) 핑안리시다제 41호에 있는 동일한 청사를 사용한다. 기관의 홈페이지 역시 공동 사용한다. 국가감찰위가 당 기율검사위와 껍데기만 다를 뿐 사실상 쌍둥이 조직인 것이다. 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이당영정(以黨領政)'의 조직원리에 따라, 당 기검위가 국가감찰위원회를 이끄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국에는 당 기율검사위, 국가감찰위, 정법위, 인민검찰원, 심계서(회계감사) 등 무수한 반부패 기구가 있지만, 최상위층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부정부패로 조사받고 실제로 처벌된 경우는 저우융캉 전 정법위 서기 한 명에 그친다. 시진핑 총서기의 누나 치차오차오의 수백억원대 홍콩 부동산 투기 의혹, 왕치산 국가부주석 일가의 하이난항공 실소유 여부, 원자바오 전 총리 부인 장베이리의 해외보석 구매 등에 관한 의혹은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됐으나 한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

이 없다. 결국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고, 좋은 뜻에서 출범한 반부패 기구라도 집권자가 마음 먹기에 달린 셈이다.

## 중국의 공무원

중국의 공무원 개념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법에 따라 공직을 이행한다. 공무원은 공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 기업이나 혹은 조직을 위해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행정편제에 포함된다. 단지 공직을 이행한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활동에 종사하지만 국가의 행정편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국가재정에서 보수와 복리를 부담한다. 즉, 국가에서 그들에게 보수와 복리 등 보장을 제공한다. 공무원은 국가재정이 부양하는 사람들이지만 재정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가령 재정을 지원받는 사람들 중 국립학교의 교사, 과학연구소의 연구원 등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며,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반면, 중국의 공무원은 크게 각급 당정기관의 구성원과 일반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중국 국가공무원국은 중국의 공무원 수가 2008년에 6,597,000명, 2009년에 6,789,000명, 2010년에 6,894,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150,000명가량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증원은 이미 공표된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 덩샤오핑 개혁 개방 정책

'개혁'은 중국 내에서의 다양한 변혁을 말하며 '개방'이라 함은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대외개방 정책을 의미한다. 1978년 덩샤오핑 주도 개혁개방 노선 채택 후 중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다른 나라들과의 개혁개방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점진적 개혁, 실험적 개혁, 사유화보다는 시장화에 우선, 지방으로 권한 위임을 통한 분권화 실시, 대외개방을 대내개혁에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개혁개방을 이끌어 간 것이다.

### (1) 점진적 개혁

대표적 체제 주변 부문인 농촌 개혁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체제 외 개혁 대상인 비국유기업(개체호, 외자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 나갔다. 즉 체제 핵심 부문 개혁은 미루어 놓은 것이다. 철저하게 과도기 체제를 거친 후 시장 체제로 이행해 나갔으며 체제 전환 자체보다는 경제 성장에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점·선·면의 점진적 개방정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 (2) 실험적 성격

장기적 청사진에 따른 개혁 실시가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방식이다. 현장의 자생적 변화를 묵인하고 관찰한 후 공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집단 농장 해체와 자영농 부활, 사영기업 등장이 좋은 예다. 또한 의도적으로 경제특구에 국한해 각종 개혁을 실험한 이후 결과에 따라 이를 점·선·면의 점진적 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 (3) 사유화보다 시장화 우선

경제체제의 두 핵심 요소, 즉 시장화와 사유화를 놓고 무엇을 먼저 개혁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시장화를 우선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중앙계획경제를 시장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갔다. 동시에 다양한 소유제의 비국유기업 진입을 허용했으며 밑으로부터의 사유화를 점진적으로 허용했다. 전면적인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제 전환은 가능한 한 늦췄다.

### (4)분권화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 및 기업의 적극성을 유도해 나갔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적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간, 기업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지방 주도 개발 프로젝트들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

### (5)대외개방의 효과적 활용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아울러 비교우위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개혁 이전 경시했던 노동집약적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대만 등의 비교우위 전략을 모델로 추진되었다. 이전에 경시되었던 비교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위한 수출 산업화했다. 대외개방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합리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WTO에 2001년 가입함으로써 개방을 통한 내부 개혁을 시도했고 화교의 자본,경영능력과 중국의 노동력, 시장, 토지의 결합으로 중국경제 고속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

## 6화. 중국의 조직 통제

### 공산당이 중요시 여기는 통제 대상->사영기업: 중국 경제의 견인차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경험: 사영기업의 참여와 지원

-민주화 이론: 중산층(사영기업)의 역할 중시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징둥 등 중국에서 최근에 성장한 거대 기업들은 대부분 사영기업들이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주동세력인 학생들이 돈도 이동 수단도 없었는데 돈과 이동 수단을 해외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사영 기업가들이 많이 지원했었다. 천안문 진압 후 1991년 공산당 중앙이 공식 지시를 내렸는데 사영기업가들은 입당할 수 없게 했다. 중국 경제가 증가하면서 사영 기업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공산당 영도체제, 일당체제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사회조직: 시민운동의 핵심 주도 세력

-민주화 경험: 사회조직(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 담당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는데 시민사회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 대학: 민주화 운동의 '보루'이자 '선도자'

-1986-87년 대학 시위/ 1989년 톈안먼 운동 경험

대학생은 민감하고 애국심이 들끓어 오를 나이인데 시간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한다. 특히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대학생들이 주도했다. 중국은 약 3000개의 대학이 존재하고 대학생만 3000만 명이 있다.

**도시 기층 사회: 사회 안정의 초석**

-1999년 파룬궁의 경험

파룬궁: 중국의 리홍즈가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을 결합시켜 창시한 수련법, 수련집단. 1999년 4월 25일 중국공산당 고위층 집단 거주지인 베이징 중난하이 인근에 파룬궁 수련자 1만여 명이 예고 없이 나타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반대해 일어난 청원이다.

도시의 기층 사회의 예시: 아파트 단지, 거주지역, 밀집지역

중국은 인구 800만 이상 도시를 특대도시라고 하는데 특대도시가 22개나 존재한다. 상해시의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상해시에서 시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조직 통제: 사영기업**

'사영기업'의 등장과 통제 문제

〈표 1〉 사영기업의 증가(2004-18년) 단위: 만 개/퍼센트(%)

연도	전체/비중(%)*	공업**/비중(%)	공업 사영기업 취업자/비중(%)
2004	198.2 / 61.0	94.7 / 65.2	3,370.9 / 35.0
2008	359.6 / 72.5	135.7 / 76.6	5,205.8 / 44.4
2013	560.4 / 68.3	176.0 / 73.0	6,272.2 / 44.7
2018	1561.4 / 84.1	291.1 / 84.4	5,979.4 / 51.9

기존의 사영기업 통제 방법과 한계: '외부 통제'

- 공상업연합회(공상련): 대형 사영기업
- 사영기업가협회/ 개체노동자협회: 중소형 사영기업
- 외상투자기업협회(외국인 노동자)

기업 사이즈에 맞게 모든 기업에 기업주들이 가입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문제: 외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공산당에 제대로 보고하는지 감독이 안되었다.

**'내부 통제' 도입: 공산당 조직 설립과 운영**

공산당 조직을 사영기업 내에 만들어버림. 기업을 차린 입장에서 나는 당원이 아닌데 기업내에 공산당 지부를 만든다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니 기업주를 당에 가입시켜버림.

**당 서기 총원 방식**

- 사내 임명: 기업주 혹은 경영층 중에서 선임
- 외부 파견: 당정기관 간부, 국유기업 경영인 등
- 공개 모집: 당무 경험자 채용(비용은 회사가 담당)

예) Big Tech기업의 당서기 공개 모집 광고

## 기타 방침

- 세금 감면
- 사영기업 당비: 전액 자체 사용/부족 시 상급 조직이 지원
- ‘당 군중 활동 서비스 센터’: 전국에 통일적으로 설립

## 지역사례

### 1) 상하이시

#### 사영기업주의 우려

- 사적 소유제와 이윤 추구에 적대적
- 경영권 제약과 기업 비용증가

#### 공산당의 대응 정책

- 네 가지 중심: 생산성 촉진/ 기술적 문제 처리/ 직원 교육 훈련/ 직원 자기 향상
- 세 가지 지지: 경영혁신/ 시장 개혁/ 조화로운 노자관계
- 당원 직원의 모범 선도 역할 수행
- >Wal-Mart 구호: “당원의 선진성 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은, 우리가 일하는 매점의 판매를 얼마나 늘리는가 이다!”

### 2) 안후이성

#### 공산당 방침과 집행

##### 사영기업 내 당 조직 설립 위한 전문 기구 설립

- ‘사영기업 공작위원회’: 당 위원회 산하 전문 기구
- ‘종합 공산당 위원회’: 공업단지 내에서 당 설립 지원

##### ‘당 건설 지도원’ 파견: 2012년에만 1만 명

- 정부 부서, 국유기업, 대학 등의 고위 간부: 사영기업에 도움

##### 사영기업가의 입당 유도과 교차 겸직

- 기업가 주도의 당 설립(70%): 정치 지위(지방의원) 지원

##### 기업 친화적이고 직원 서비스 중심의 당 활동 전개

- 당 조직의 탈 정치화와 기업 경영활동 불개입
- 생산 증대와 노동자 복지 증진 노력

#### 조직 통제: 대학

#####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과제: 매년 50만 명씩 증가

- 2019년 대학생: 3000만 명
- 2022년 대학 졸업생: 1000만 명

## 공산당의 대학 통제 기제

### 학생 공산당 조직

-대학생 정치 사업(선전)과 지도의 핵심 역량

### 공청단 조직: 공산당의 '조수'이자 '후비군'

-대학생의 다수가 단원

### 정치 이념 교육: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양성

-정규 정치 이론 과목

-학생 보도원(정치 보도원) 제도

## 대학 내 공산당 조직

### 공산당 조직의 분포

-공산당 위원회: 전체 영도(총장이 아니라 당서기가 최고)

-교수/ 직원 당 지부

-학생 당 지부

### 대학생 입당 정책: 학부생 10%/ 대학원생 30%

-입당 기준: 정치(공산당 충성 등)/ 학업 성적

-대학마다 큰 편차: 명문대학 중심의 학생 당원 충원

### 대학생 입장 동기: 이념-> 실용(입당 가장 원하는 집단)으로 바뀜

-1980년대: 이념(인민에 봉사/ 조국과 당에 봉사 등)

-1990년대 이후: 실리(취업에 유리한 조건 확보 등)

## 대학생 정치 이념 교육

### 방침: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전초기지"

-정치 교육 목표

국가의 이데올로기 안보 수호

대학생을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로 양성

-> 정치이론 과목: "학생의 가치관 구조"가 목적

### 종류

-정규 정치이론 과목을 통한 교육

-일상 정치교육: 반별 학습/ 공청단 주도 학습/ 당 주도 학습

-긴급 정치 교육: 5.4운동/ 천안문 기념일(6.4) 대비 선제교육

### 정치이론 필수 과목:'두 개의 과목'

#### 마르크스주의 이론 과목(4개 세부 과목)

(1)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

(2)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3) 중국 근현대사 요강

(4) 형세와 정책

#### 사상 품성 과목(1개 세부 과목)

(5) 사상 도덕 수양과 법률 기초

### 효과: 공산당 지지의 증가

-학생은 공산당 지지의 핵심 세력:'애국주의'

### ‘학생 보도원(정치 보도원)’ 제도

목적: 칭화대학 1952년 시작

-혁명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국가 인재 양성

-후진타오: 정치 보도원 출신(2년)

규모(2008년 통계): 석사 과정 이상자가 다수

-전임 약 9만 2천 명/ 비전임 약 3만 명 -> 약 12만 명

-시험과 면접 통한 선발: 미래 당정 간부로 성장하는 경로

임무: 정치와 생활

-학생 정치 지도: 사상 문제 등

-학생 학습과 생활 지도: 연애 상담, 진로 상담 등

### 중국의 빅테크기업 규제

중국은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당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영 IT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막대한 연봉을 주고 '당위원회 서기'를 뽑겠다는 공개 모집을 하기도 했다.

기업 내에서 당 조직은 다음의 당장의 내용을 실천한다.

1. 당 노선과 방침의 관철
2. 기업의 법 준수 지도와 감독
3. 직원 단결
4. 기업과직공의 합법적 권익 수호
5. 기업의 건강한 발전

->기업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 있는 항목들이다. 당조직은 회사 안으로 파고들어 회사가 당 노선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하지만 모든 당조직 활동이 기업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조직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한다.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회사 내에 또 다른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부담이다.

### <알리 그룹의 기업 분할과 중국의 빅테크 규제>

최근 알리바바는 사업부를 6개 기업으로 쪼개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와 홍콩 증시는 상승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분사를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에 있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권력 집중화를 해결했음을 시사한다. 또, 분사 자체가 빅테크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빅테크 규제에 있어 기조가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창 총리 취임 이후에는 규제당국이 정책적 브레이크만 밟아서는 안 된다며 민간 기업 지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물려 중국이 작년 목표 성장률 달성에 실패한 이후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보면 빅테크 규제가 곧 마침표를 찍는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 중국의 파룬궁 탄압 이유

후야오방은 중국에서 기공을 최초로 인정한 인물로 그 이후에 중국의 기공은 약 3천 가지 종류로 늘어났다. 파룬궁은 92년과 93년도 동방기공박람회에 참가하여 2년 연속하여 최우수공파로 인정받았다. 다른 기공을 수련하던 사람들이 파룬궁의 뛰어난 수련효과 때문에 수련을 시작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파된 지 7년 만에 수련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당시 공산당원 수는 약 5,600만 명이었다. 당시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은 파룬궁 수련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질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당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룬궁을 없애기로 결심하였고, 1999년 6월 10일 게슈타포에 해당하는 탄압전문조직 610사무실을 결성하여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하였다. 탄압은 중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다. 지금까지 7년째 고문으로 살해한 수련자 수는 2,783명을 넘으며, 신원불명인 자를 포함하면 탄압 희생자는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쩌민은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하여 3개월 내에 뿌리 뽑겠다고 호언했으나 실패하였고 현재는 그 수련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1998년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북경수련생 12,731명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99.1%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련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호전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파룬궁은 국가를 위하여 백 가지 이로운 점은 있어도 한 가지도 해로운 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장쩌민은 탄압을 위해서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로 몰았고, 모든 범죄자들을 파룬궁 수련생으로 덮어씌웠다. 그리고 천안문분신자살극까지 조작하여 전 세계에 선전했으나, 모든 것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 난 상태이다.

장쩌민이 존경하는 중국의 최고과학자 전학삼이 탄압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개장소에서 파룬궁을 수련하자, 장쩌민이 실내에서 할 것을 간청했다는 것은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하는 한 예이다.

## 대학에서의 시진핑 사상 교육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하자 중국 정부가 학교에서 '시진핑 사상' 등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국 CCTV는 교육부가 '신시대 초·중·고교 정치사상 과목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 교육부가 내놓은 의견은 학교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과목의 전임 교원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정치사상 과목의 핵심 위치 강화, 커리큘럼과 교육 자원 풍부화, 교사의 전문성 확보, 교육 연구 지원 강화 등의 5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 정치사상 과목의 주간 수업 시수를 명확히 하고 '시진핑 사상 학생 독본' 등을 교재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과목의 교원 양성 계획을 마련해 겸임 교사 비율을 줄이고 2025년까지 전임 교사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근 중공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시진핑 선독 학습에 관한 통지'에서는 "각 대학·전문 대학은 '시진핑 선독'을 교수와 학생 이론 학습 교재로 삼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이 교재, 강의, 두뇌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사상을 학습을 통해 세뇌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사상 학습을 위한 보충 교재도 발간했는데, 2023년 4월 10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 발췌' '조사연구에 관한 시진핑의 발언 요약집'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천안문 6.4 항쟁** 천안문 사태는 자유주의적 경향에 동정적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보수파 원로들의 비판을 받고 총서기직에서 축출되었던 후야오방의 1989년 4월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베이징의 대학생들은 중국공산당에게 후야오방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점차 더 적극적인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보수파의 영향을 받은 인민일보가 이러한 학생들의 시위를 '반혁명 동란'이라고 규정하면서 학생들과 중국공산당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사태의 발전을 용인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중국공산당은 6월 4일 새벽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고 수 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천안문사태는 좌절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호로 남아있다.

## 7화. 사상 통제

### 정치 사상 공작 : '모든 공작의 생명선이다'

- 영도 간부의 정치학습
  - 정치국 집단 학습
  - 당 위원회 이론 학습 중심조 학습제도
- 당정 간부와 일반 당원(약 1억명)의 정치학습
  - 당교학습/ 일상 정치학습
- 정풍운동 기간의 정치학습
  - 전 조직과 당원의 정치 학습과 비판 활동 전개
- 국민 교육 운동
  - 법률 보급 운동/ 정신문명 운동/ 애국주의 운동

사상 통제 : 영도간부

### 7강 사상 통제: 영도간부

#### □ 정치국 집단 학습(1994년 시작)

〈표 2〉 공산당 중앙 정치국의 집단학습 통계(2002-21년)

기간	총 회수	매년 평균 회수
16기(2002-07년)	44회	8.8회
17기(2007-12년)	33회	6.6회
18기(2012-17년)	43회	8.6회
19기(2012. 10-2021.1)*	27회	7.9회

-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현안에서의 이슈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최고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공부를 한다.
- 집단 학습 외에도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일주일동안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회의한다.

일반 당원들도 학습을 한다.

사상 통제 : 당원

#### · 정풍운동의 정치학습

절차)

- 문건 학습
- 자기 검토서(비판서)
- 비판과 자기비판
- 정리

#### · 정풍운동 : ‘선진성 교육 활동(2005-6년)’ 사례 (후진타오 시기)

- 배경 : ‘충격적인 당성 약화’ 현상 (2000년 조사)

당정 간부의 기울 이완 현상 심각 -> 위기 의식

- 실시 방식(2005-06년) : 각 단계는 6개월 기간

3단계 : 중앙과 성급 -> 시급과 현급 ->기층

방식 : 중앙 주도의 하향식(상세한 지침과 감독)

절차 : 전과 동일 (학습->자기검토->비판/자기비판->정리)

- 결과

7,080만 당원과 350만 당 조직 참가

당 기층 조직 재건 / 4만 5천 명 당원 제명

- 학습 : 마오/덩/장/후 저작 중심 40시간 이상 집중 학습(모여서 학습해야 하는 것)  
학습 교재 중앙 배포 / 당 모임과 당교 통한 학습
- 자기 검토서 작성 : 중앙의 지침에 맞추어 작성  
작성 지침 : '두 개의 필수' / '8개 견지' 방침  
분량 : 2천 자 이상/ 모범 예문 제시 <-> 대필 성행  
필수 포함 요소 : 사상/업무/태도의 상세한 검토, 문제와 단점 정리, 문제와 단점 초래한 원인 분석, 개선 위한 실천 사항, 당원의 자세와 결의 표명

**사상 통제 : 국민 교육**

**'법률 지식 보급 활동' 사례 -국민들에게 법률을 보급하는 것**

- 배경과 기간 : 1986년부터 현재까지
  - 배경: 범죄와 통치 이완/ 당정 간부의 횡포 등
- 방식 : 5개년 계획 작성하여 집행 ( 중앙-지방)
  - 구호: "법률 무기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라!"
  - 방식 : 학교/언론(TV)모임 등 통한 법률 지식 교육
  - 중점 대상 : 청소년과 영도 간부 -> 확대(간부/기업가 등)

**· 결과**

- 국민의 법률 의식과 활동(소송) 증가 -> 법률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 국민 불만 체제 내 흡수 : 사회 안정 유지에 기여

**'애국주의 교육 운동' 사례**

- 배경과 기간 : 1994년부터 현재까지
  - 배경 : 사회주의 이념의 약화 <- 소련 붕괴/ 시장경제 확산
- 방침 : '피해 심리'와 '포위 심리' 조장 <-> '승리 의식'
  - 피해 심리: '백년의 굴욕(1840-1949)' 재연 경계
  - 포위 심리: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 포위 및 봉쇄  
→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 달성
- 내용 : '3개 백선' 운동
  - 애국주의 필독 도서 100권 : 초.중.고학생 중심
  - 애국주의 좋은 영화 100편 : 전국 보급
  - 애국주의 교육 기지 100곳(이후 592곳으로 확대) : 홍색 관광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사상 통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양과 질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상통제를 하는 데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2022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허페이종합국립과학센터는 창당 101주년 기념일을 맞아 홍보 영상 한 편을 공개했다. 사람의 표정과 뇌파를 읽어내 사상적·정치적 교육의 수용 수준,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성과가 담긴 영상이었다. 사람의 피부 전기 반응, 뇌파 반응 등의 생체 인증을 통해 인공지능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교육을 추천해준다. 이 영상은 중국 소셜 미디어 공개 다음 날 바로 삭제됐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데올로기 세뇌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첨단 기술을 통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매진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그럼에도 관련 기술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발전시키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사상 통제 방식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 애국주의 교육운동

애국주의 교육의 실질적인 출발은 1989년 6.4 천안문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공산당은 당에 대한 도전과 사회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애국주의 교육 운동이 출현한 것이다.

애국주의 교육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 초부터 2016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진행되어온 범국가 차원의 교육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찬란했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배양해,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심을 높인다.’

주요 교육 대상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 학생들이다. 더 나아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 중화민족의 전통문화, 공산당의 기본노선과 현대화 건설의 성과, 국가 정세,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국방 및 국가안전, 민족단결,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 등 8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애국주의 교육에서는 ‘오성홍기(五星紅旗)’라고 불리는 국기(國旗), 의용군 행진곡으로 출발한 국가(國歌) 등 국가상징도 중요한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국기계양식을 엄숙히 진행해야 하고, 소학교 3학년부터 성인들까지 국가를 외워 부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지침까지 제시했다.

또한 애국주의 교육에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 전역의 공공기관과 사회단체가 법정 기념일과 전통 절기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중국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

중앙정치국 구성원은 중국의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학습을 중요시하는데, 집단 학습을 집권당의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최근 5년간 이미 40여 차례 집단 학습을 했다. 그렇다면 집단 학습은 어떻게 진행될까?

최근 5년간 진행한 41차례의 중앙 정치국 집단 학습 기간동안 베이징, 상해, 절강, 강소 등 대학의 학자와 금융, 과학기술, 법률, 고고학 등 분야의 전문가 34명이 각각 전문적인 특강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건의를 언급했다. 그때마다 중앙 정치국 전원은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토론했다.

또한 상호 학습도 진행한다. 41차례의 집단학습에서 중앙정치국 구성원들은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농촌진흥 등의 주제를 둘러싸고 독학한 후 각자의 이해를 깊이 있게 교류했다.

이와 함께 현장 참관·조사연구를 통해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옴니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최고 지도부는 중국 집권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사의 뉴미디어 빌딩을 찾아 편집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빈곤 퇴치 마을 담당자들과 온라인으로 연동을 하는 등 집단 학습의 '수업'을 미디어 융합 발전의 최일선으로 옮기기도 한다.

## 정풍운동 단계

### 1단계: 사상학습 단계

1941년 5월, 마오쩌둥은 이론을 실제에 연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천명하면서 "주관주의는 공산당과 민족의 적으로 주관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이를 통해 고급 간부의 사상 인식을 제고하여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정풍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자 했다. 이 준비 단계에서, 마오쩌둥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그는 연안의 정치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상대방, 특히 장궈타오와 28인의 불세비키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적을 하나씩 숙청할 수 있었다.

### 2단계: 정풍 개조 단계

마오쩌둥은 정풍운동의 방침과 취지에 대해서 당내 모순의 성질과 특징에 근거하여 당내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서술하고 "과거를 징계하여 앞으로 삼가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해 사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당내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첫째 지난날의 오류에 대해서는 사정을 두지 말고 반드시 적발하여 과학적인 태도로 나쁜 점을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둘째, 적발하고 비판하는 목적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 3단계: 심간 단계

1943년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고위 간부들이 당의 역사적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당시 간부 지단은 주로 <6대이전>, <6대이후>, <2가지 노선> 과 같은 교리본의 편집에 초점을 맞췄고 열띤 연구와 토론을 가졌다. "학습 및 현재 상황" 보고서는 동지들의 의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후 당 고위 간부들을 심사하여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소위 심간(審幹) 현상이 발생했다. 간부들은 '교정 운동'에서 자신의 고백에 대해 글을 썼고 사람들은 그의 죄와 오류를 엄중히 꾸짖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인민재판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풍운동을 수행한 Kang 성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마오쩌둥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들을 가차없이 탄압했다. 1945년 4월 20일, 제6차 중앙위원회 제7기본회의는 여러번의 역사적인 쟁점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역사적 교훈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뒤 연안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확고히 자리잡았고 마오쩌둥의 사상이 당의 기본 이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로서 연안의 정풍운동은 막을 내렸다.

---

## 8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20년 전에 학자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함

-> 결과는 통제가 가능했고, 오히려 인터넷과 sns가 공산당 통치체제를 더 강화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① 디지털 권위주의 : 인터넷을 사용하여 시민통제하는 권위주의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자유를 높이고 의사소통을 하게 하며 사회를 개방시키는 역할을 함.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함. 디지털이 오히려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함.

② 네트워크 권위주의

중국에서도 찾고 싶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으니 중국인도 자유롭다고 느낀다. 근데 다 통제되고 있다. 정보도 통제되고 있고, 내 생각도 조종되고 있음. 이것을 네트워크 권위주의라고 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sns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 공산당이 인터넷과 sns 보급을 아예 막은 것이 아님. 오히려 적극적인 편.

인터넷과 sns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qr코드로 결제하는 것, 택시 어플처럼)

왜 sns 통제가 중요할까?

[인터넷/sns 특징]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방송, 신문과는 비교할 수 없음

시민 사회의 활동 공간과 수단을 제공

공산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님. 이용을 하려는 것 -> 이중성  
만약에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냥 인터넷 망을 끊어버리면 그만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중국  
경제도 끊어짐.

## 인터넷 통제 기제 4가지

① 예방 기제 : 가장 중요함. 미리 중요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계에 없는 어마어마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함. 그것을 '황금방패공정' 이라고 한다.

1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중국의 모든 인터넷과 sns는 이것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음.

목적은 크게 두 가지

1. 선별적인 차단: 공산당이 원하는 것만 차단하는 것. 중국과 외국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이트, 단어, 영상만 거르는 것
2. sns의 주도권을 중국이 잡는 것: 트위터, 구글을 대체하는 웨이보와 위챗을 만들었다.

② 감시 기제 : 미리 예방한다고 다 막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다.

### -1) 인터넷 감시 부대

사이버 경찰: 인터넷 경찰

사이버 평론원: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

사이버 여론 관리자: 여론 관리

인터넷 검사원 : 법적으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고용하게 된다. 텐센트나 바이두에는 천명이상  
이 있다고 한다.

->웬만한 정보같은 것은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삭제가 된다.

### -2) 감시의 강도

민감한 시기에는 더 엄격하게 감시한다. (당 대회 같은 시기)

공산당/정부의 발표에 이상한 소리하는 것도 다 검열이 된다.

춘절과 같은 국가의 행사에도 엄청 엄격하게 감시한다.

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좀 느슨하게 하는 편.

### -3) 감독 대상

감독 대상을 2개로 나눈다.

타겟 집단(=목표 집단)

요주의 인물.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쓴다. 365일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내가 만약 '중국의 인권' 같은 것을 검색하면 바로 경고가 뜬다.

## 2. 일반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전략. 검색을 필터링하고 단어벽을 만들어서 검색을 하는 순간 속도가 떨어지게 함. vpn을 설치하면 컴퓨터 다운되게 함 -> 스트레스를 받게함

or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쏟아부음. 누군가 어떠한 정보를 올리면 정부에서 백배, 천배 되는 양을 내보낸다. 그럼 정부가 제공한 정보로 인터넷이 도배가 된다. -> 원래 올라온 정보는 묻히게 됨.

③ 위기관리 : 돌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필요함. 매뉴얼이 있고 작동하고 있음.

## 4단계의 매뉴얼

1단계 : 태동기 - 주요 사건의 발생 방지 (예의주시하는 단계)

2단계 : 발전기 - 인터넷 여론의 보고 (사건이 올라오려고 함)

여론 별로 점수를 매긴 다음, 그에 맞는 대응을 함. (예를 들어, A여론이 90점이면 90점에 맞는 대응을 하고 B여론이 80점이면 80점에 맞는 대응을 하고..)

3단계 : 고조기 - 사건이 터짐

정부 공산당을 비판하는 세력을 고립시킨다. 여론 주도자들을 파악하며 이때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은 포섭하고 아니면 구속시킴. 구속시키는 이유는 여론을 주도했다가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구속을 함.(술먹고 행패를 부렸다든지..이러한 이유로) 사람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

4단계 : 쇠퇴기 - 피해 관리

정책 바꿀 것들 바꾸고 사실을 조사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한다.

## ④ 여론 선도/정보 조작

인터넷 댓글부대를 활용한다. 이 댓글부대를 '오마오당'이라고 한다.

댓글 부대의 내용은 단순한 응원인 80%, 정책/업적 칭찬과 제안이 15% 정도

활동의 목적은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

-> 한계: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공청단 댓글 부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대규모로 동원한다.

ex)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홍보를 위해서 1천만 명 동원함.

자발적 오마오당: 당정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애국심과 정의감에서 공산당과 국가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부대

자발적 오마오당의 특징

애국주의 : 중국, 공산당은 좋아하고, 미국, 한국 등 외세에 대해 비판적

합리주의 : 근거 없는 말은 안함. 나름의 근거에 입각한 논리적 주장 전개

ex) 한자녀 정책 비판: 한족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 왜냐면 소수민족은 2명씩 낳을 수 있는데 한족은 한명만 낳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전술로 인터넷 여론 주도

낙기 : 일종의 역 정보 전술

따귀 때리기 : 상대방의 실수와 오류를 지적하면서 공격

낙인 찍기 : 비판 세력을 앞잡이당, 똥개당 등으로 부르면서 비난.

그렇다면 인터넷은 공산당을 멸망으로 이르게 할까 아니면 공산당 영도체제를 지지할까?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낙관파 : 권위주의가 허물고 정치 자유화와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다.

비관파 : 권위주의 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임. 공산당 영도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일 뿐이다.

-> 현재까지는 비관파가 우세함.

민주화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것.

### 시진핑 시기 인터넷 통제의 변화와 특징

2013년 시진핑 지도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중국 모바일인터넷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되었다. 우선 2014년 2월 27일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가 설립됐다. 국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법치를 주창하며 설립된 이 기구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군사 등 각 영역의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과 중대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시진핑이 조장이며, 리커창, 류원산이 부조장을 맡았다.

이어서 2016년 11월 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있다. 첫째 중국 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은 반드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용자는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국외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 서버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유해야 한다. 셋째 중국정보는 실시간 메시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자체를 거대한 가상 내부망으로 만들어, 인민이 외부세계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 경로를 차단했다. 대안으로 중국인터넷 회사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의 대체재를 만들어 인민이 원하는 정보를 중국 내부에서 모두 얻을 수 있게해, 이들이 국외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할 동기를 잃게 했다.

결과적으로 데스크톱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전환된 모바일 인터넷 인구는 중국 지도부에게 새로운 인터넷 통제패러다임 구축을 유도한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의 물리적 통제를 지양하고, 중국만의 특수한 모바일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 인터넷 발전 저해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정보 안전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금순공정

금순공정(金盾工程)이란 중국 정부가 총 8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지난 2009년부터 가동한 디지털 사이버 공안 체제를 말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황금방패(黃金防牌)라고도 하며, 1차 계획은 1998년~2006년, 2차 계획은 2006년~2008년에 추진됐다. 중국의 주요 대도시 에 1만여 개의 감시용 서버를 설치,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은 물론 댓글의 민감한 내용까지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다.

관련 개념으로는 만리방벽(萬里防壁·Great firewall)이 있는데, 만리장성(Great Wall)과 방화벽(Firewall)의 합성어이다. 중국이 1998년 금순공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2003년 완성한 인터넷 감시 및 검열 시스템으로 서방 세계에서 만리장성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다. 중국 내에서 구글 등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이 '만리방벽(GFW)' 설치를 의무화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은 '사이버 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주요 사이트들이 봉쇄된 사이 중국 토종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검색은 바이두, SNS로는 웨이보, 메신저와 페이스북을 합쳐놓은 듯한 웨이신, 그리고 유튜브를 대신하는 여러 동영상 사이트들이 있다.

검열 기준은 크게 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느냐' 여부다. 그런데 이 범위가 넓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국제민간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알렉사 통계 기준 상위 1000개 세계 주요 사이트 들 중 836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149개 사이트가 중국에서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해외 유명 포털·소셜미디어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 등 주요 서구 매체들도 접속이 안된다. 중국 국민들은 물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재원들도 이들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없다. 업무상 이들 사이트 접속이 필수적인 이들은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해서 들어가야 한다. 최근에는 그나마도 VPN 단속까지 강화되고 있다. 자신들이 허가를 하지 않은 VPN 기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용자까지 처벌을 하고 있다.

## 우 마 오 당

우마오당(五毛党)은 중국공산당이나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조작단을 가리킨다. 좀더 정중하게는 인터넷 평론원(网络评论员)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기본 월급 600위안에 댓글 1개당 5마오(五毛)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비꼬기 위해 '5마오를 받는 무리'라는 뜻의 우마오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정치학자와 언론학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 논문에서 고급 분석기법을 활용해 중국 댓글 부대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우마오당의 특성상 이들의 정체를 규명하기 쉽지 않은데, 연구진들은 2014년 샤오란이라고 불리는 한 블로거가 해킹한 간저우시의 인터넷 선전부 이메일 아카이브를 활용했다. 이 아카이브에는 댓글 부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들이 당국에 보낸 자신들의 활동보고를 비롯해 당국과 이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연구진들은 대규모 수작업 코딩부터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방대한 양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우마오당은 알려진 것처럼 댓글 1개당 얼마의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일반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다양한 단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대가는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마오당의 댓글 중 53% 정도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달린 것이고 46% 정도는 상업적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 달린 것이었다. 댓글이 달리는 시기는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여론이 들끓는 시기에 집중돼 있었다. 댓글 내용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외국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 논쟁적 이슈에서의 찬반 의견 개진은 거의 없고, 오히려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중국의 역사적 유산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자극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인 터 넷 평 론 원

중국공산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찍이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기초공사를 서둘러 실시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성(省)정부와 지방정부는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여론전쟁의 부대를 개설했다.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공 정부는 더 본격적으로 인터넷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에는 2백만 명의 “인터넷 평론원”이 정부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중국공산당의 선전원들이다. “인터넷 평론원”이 되기 위해선 먼저 중국공산당에 입당해서 당원이 되어야 하고, 또 수준 높은 문장력을 갖춰야만 한다. 인터넷 평론원들은 각 지방, 각 단위, 각 대학에서 배치되어 해당 지구의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한다. 우선적으로 SNS, 블로그, 웹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을 정찰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인터넷 토론방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게시물을 써서 올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200만 “평론원 대오(隊伍)” 밑에서 또 2천만 명의 “인터넷 문명지원자”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청년망군(靑年網軍, 청년 인터넷 병력)”이라 부른다. 정부 측 자료를 보면, 대략 1만 명의 일반 네티즌 당 120명의 “문명 지원자”가 배치되어 있다. 9~10 명을 한 명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꼴이다. 2천만 청년망군의 다수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단원들이다. 총인원수가 2017년 현재 8100만을 넘어선 공산주의청년단(이하 공청단)은 14세에서 28세에 한정된 청년단체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공청단에서 선발된 “문명지원자”들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불법 게시물을 고발하고, 불온한 콘텐츠를 싹싹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표면상 이들의 활동은 여가를 활용하는 애국 행위다. 문제는 이들의 여가선용이 모두 “인터넷 평론원”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활동라는 점이다. 그들이 써서 올리는 인터넷 댓글들은 모두 상위 평론원의 평가를 거쳐서 점수화되며, 이 점수에 따라 정치적 이력이 된다.

---

## 9화. 무력통제

- 연성(soft) 통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공산당 영도체제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 (인사/조직/사상통제)
- 경성(hard) 통제: 무력통제
- >연성통제와 경성통제의 결합으로 공산당 영도체제 유지 가능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무력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1. 군사력(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민병)
2. 공권력(검찰, 법원, 정보원)

1949년 이후 중국에서 군대의 정치 과정 개입은 두 번

1. 문화대혁명: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군이 중앙과 지방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상당수는 직접 지역 통치(군의 독자적 개입이 아닌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2. 천안문 민주화 운동: 처음에 경찰이 개입하다가 진압이 안되니깐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 개입

중국에서는 군이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당의 군대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일반병들이 2년 복무하고 오면 특혜 (취업 가산점,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중국에서 군인은 영광스러운 직위

### <공산당의 무장역량>

-인민해방군: 정규군, 규모 200만, 공산당 수호/국토방위

-무장경찰부대: 전투경찰, 규모 68만, 치안 유지/긴급임무

-민병: 예비부대, 1000만, 후방 업무/재난 지원

###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없는 이유>

원칙: 공산당의 절대영도와 군의 절대복종

실행 기제:

1. 주석 책임제: 민간인 지도자가 군 통수권 행사
2. 정치위원제도: '군정쌍관'의 지도 체제
  - 군 사령원: 군 훈련과 전투 지휘
  - 정치위원: 정치와 인사 업무 지도
3.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제도: 군부대 운영과 결정  
방참: 당 위원회의 통일 집단지도 하의 수장 책임 제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 <-> 공산당: 집단지도

### 정 치 위 원 제 도 : ' 군 정 쌍 관 ' 의 지 도 체 제

군 정치위원 제도는 소련에서 도입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 역사에서 문관이 황제의 명을 받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무관을 감독하는 전통을 되살린 것이기도 하다. 각 군부대는 단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정치위원을 둔다. 연대 이상에는 '정치위원', 대대 에는 '정치교도원', 중대 에는 '정치지도원' 이라고 부른다. 이전에는 민간인 지도자 중에서 정치위원을 임명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역 군인(직업 군인)중에서 정치위원을 임명한다. 정치위원은 계급으로 보면 각 부대에서 군사 업무를 주관하는 수장, 즉 군 사령원과 동급이다. 군부대가 지시와 명령을 하달할 때는 군사령원과 정치위원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경우는 공산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표결하거나, 상급 조직에 보고하여 지시를 따른다. 또한 두 수장은 너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군 사령원과 정치위원을 임명할 때 학연이나 지연 등 '관시'가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관시'가 있으면 같은 부대에 임명하지 않는다. 또한 임명한 이후에도 순환 보직제를 이용하여 최소한3년에 한 번씩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한다.

## 중국 군대의 제도와 혜택

중국의 군대는 우리나라와 같은 의무병 제도이지만, 중화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조국을 호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모든 국민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고 민병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병역 제도는 지원병 제도인 모병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신규 입대 인원인 50~60만 명 정도를 모병제로 선발하고 정원을 충원하지 못했을 때 징병제를 동원해 채우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정원보다 희망자가 더 많은 편이라 모병제로 충분히 인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징병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고학력 인재의 입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군대에서는 입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대에 가면 중국 공산당 입당 자격이 생기며 군대 내에서 만난 사람들은 '연줄'이 되어 공산당으로의 출세길이 평탄해진다. 이런 이유로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군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군대에 자리가 없어 돈을 주고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산당을 꿈꾸지 않아도 전역 후에는 일자리 알선이나 일부 대학 등록금 면제 및 국영기업 취업에 가산점 등 혜택도 주어진다.

## 중국의 군사력 [美 국방부가 발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sup>1)</sup>

보고서의 분야별 주요 내용

### <중국의 전략>

중국의 전략은 2049년까지 중국몽(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달성을 목표로 국력을 축적하여 국제 시스템을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이익에 유리하게 바꾸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전략과 글로벌 야망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중국군을 더욱 활용하고 있다.

### <핵무기>

중국은 현재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속도라면 오는 2035년엔 핵탄두 보유량이 1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은 중국이 '군 현대화' 목표 년도로 정한 시기인데, 미 국방부가 중국의 2035년 핵탄두 보유량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년 전 보고서에서는 200개로 추정했으나 2년 만에 2배로 급증하였다. 또한, 중국은 적군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 <미사일>

중국은 2021년 135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된 수량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발사 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아울러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미사일이 다른 국제 최상위급 미사일과 대등한 수준의 품질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4만km를 비행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지상 공격무기 중 가장 긴 비행이었다.

### <정보감시정찰>

중국이 세계 정보·감시·정찰(ISR) 시스템의 절반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세계 전역,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군을 감시·추적·겨냥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첨단 위성을 이용해 한반도·대만·인도양·남중국해를 포함한 잠재적 역내 화약고들을 감시하고 있다.

#### <차세대 전쟁>

중국군은 차세대 전쟁 방식으로 '시스템 파괴전'(System Destruction Warfare)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의 운영 시스템에서 주요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밀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다. 중국군은 2021년부터 레이저 및 C4ISR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의 작전 시스템을 공격하고, 취약점에 대한 정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다영역 정밀전쟁(multi-domain precision warfare)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개념은 적의 운영체제에서 주요 취약점을 식별하고 그 취약점에 대해 정밀타격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 <우주 개발>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우주정거장인 텐궁(天宮) 건설 프로젝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1월 29일 텐궁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 임무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5호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중국의 우주정거장 보유는 바로 목전의 현실로 다가왔다. 한편, 중국은 우주·대우주 무기도 개발 중이다.

#### <상비 전력>

중국 육군은 97.5만 명이다. 중국 해군은 함정 수를 토대로 세계 최대 규모(380척)이며, 공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능력(2,800대)을 보유하고 있다.

#### <국방예산>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 달러(약 276조 1,935억 원)였으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 규모이다. 이는 한국 국방비(480억 달러)의 4.4배, 일본 국방비(550억 달러)의 3.8배, 대만(154억 달러)의 13.6배에 달한다.<군사력 증강>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 개입을 막기 위해 군사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 <전력 투사>

중국의 지역적, 국제적 야망과 관련하여, 중국 지도부는 군부가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세계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군은 해외 거점과 물류시설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군이 국경으로부터 훨씬 더 먼 거리에 군사력을 투사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해외 기반 개발>

중국군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 접근과 기반을 개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캄보디아 리암(Ream)에 첫 인도-태평양 해외기지를 설립했고, 아프리카의 나미비아(Namibia, 중국 전략지원부대가 우주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추적·원격측정·지휘(TT&C, Tracking, Telemetry, and Command)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 외에도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와 바누아투(Vanuatu)와도 협력하고 있다.

#### <한반도 관련>

미 국방부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지상·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태 발생 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작전 명령에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확보,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state)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은 한마디로 중국 역사를 후퇴시킨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다. 문화대혁명으로 움트려던 자본주의 싹이 짓밟히고, 인권은 무참히 유린됐다.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붕괴되고, 민중의 삶은 피해를졌다. 문화대혁명은 권력 투쟁과 개인숭배가 낡은 중국 역사의 아픈 과거다.

대약진운동 실패 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선 노선갈등이 불거졌다.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대중노선을 주도하고, 류사오치·덩샤오핑을 선두로 한 실용주의자들은 공업 및 분야별 전문가를 우선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부 자본주의 정책을 채택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실용주의자들이 실세로 부상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세력과 자본주의 타파를 외치며 이를 위해 청년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2년 9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접목한 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반대파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에 나섰다. 마오쩌둥의 지시로 중·고·대학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홍위병은 전국을 휩쓸며 마오 반대파들을 비판대에 세웠다. 1966년 8월 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마오쩌둥이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안 16개조'를 발표함으로써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이 본격화된다.

홍위병들은 전국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찬양하고 전통적 유교문화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인다. 학교를 폐쇄하고 당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실용파들이 장악한 권력을 무력을 탈취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실각되거나 숙청된 숫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문화대혁명은 1969년 4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마오의 절대적 권력이 확립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에게 충성한 군부 지도자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인민 사이에서 문화대혁명이 마오쩌둥 개인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73년 덩샤오핑이 권력에 복귀하면서 문화대혁명은 곳곳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도 막을 내린다.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평등주의, 외세배격을 선동한 문화대혁명은 중국 역사를 상당히 후퇴시켰다. 1981년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은 당·국가·인민에게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준 마오쩌둥의 극좌적 오류이며 그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후자는 문화대혁명을 만민평등의 위대한 역사적 실험이라고 하지만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후퇴시킨 '암흑의 역사'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

## 10화. 경제 통제 관점

### 국유기업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 개혁파: 비효율과 부패의 온상

-철저한 개혁(민영화 포함) 필요: 성장률 회복 가능

= 경제 발전과 민생(국민) 개선의 관점

#### 공산당: '국유 경제는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다!'

-공산당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

= 공산당 권력 유지의 관점

#### 결과: 공산당 권력 유지의 관점 주도

-국유기업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적 개혁 추진: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

=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기둥 역할 수행

**경제 통제: 이유**

공산당에게 국유기업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

통치 정통성 확보: 국가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

-중국: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소련/동유럽: 신 자유주의 모델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화: 중국이 왜 사회주의 국가인가?**

-정치: 공산당 영도 체제(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국가)

-경제: 국가 소유의 거대한 국유경제 존재

**공산당의 '통치 자금' 확보**

-대만 국민당: '당기업'의 존재-GDP 6.2%(1980s)

-공산당 예산: 국가 예산에 포함되어 '은폐'

-> 당비로 충당이 가능할까?

**경제 통제: 규모**

국유경제(자산)의 규모(2014년): GDP의 310%

30개 국 비금융 국유자산(IMF): GDP의 67% <-> 중국: 310%

국가 자본주의(State-capitalism)->당 자본주의(party/state-capitalism)

**재정 수입 변화**

일반 공공 수입 = 세금수입

정부성 기금 수입 = 토지 임대 수입

국유자산 경영 수입 = 국유 기업의 이윤 정부에 납부한 것

2015 -> 2020

일반 공공 수입 = 77.22% -> 일반 공공 수입 = 65.05%

정부성 기금 수입 = 21.48% -> 정부성 기금 수입 = 32.25%

**정부성 기금과 국유자산 경영 수입: 재정의 35%(2020년)**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에서 당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

국민민퇴: 국유경제는 나아가는데 민간경제는 후퇴한다.

한국 재정 예산의 대부분 세금 그런데 중국은 재정의 35%가 국유경제에서 나온다.

**국유기업의 정의와 공산당의 통제 기제**

왜 '국영기업'이 아니라 '국유기업'이라고 할까?

정의: 국가가 자본 투자하여 소유권 행사하는 기업

-배제: 국유기업 투자 기업/ 합자기업/ 향진기업 등

-> 광의로 해석하면 현재보다 훨씬 증가

### 공산당의 통제 기제

- 인사 통제: 국유기업 최고 지도부 인사권 행사
- 조직 통제: 당 조직 설립과 기업 조직과 통합 운영
- 정책 통제: 국가 정책 집행에 국유기업 동원

### 경제 통제: 인사

#### 국유기업 인사 통제

중관기업(중앙 관리 기업): 128개(2021년)

-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리: 실업류 - 96개
- 국무원 재정부 관리: 금융류 - 27개
- 기타: 국무원 기타 부서 - 5개

대상: 당서기/ 이사회 회장/ 최고 경영자

인사 방식: 직접 임명(장차관급)/ 임명 비준(국장급)

- 64개: 당 조직부 추천-> 정치국 상무위원회 임명
- 64개: 국무원/ 당 조직부 임명 ->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준

국유기업 인사 통제: 이동통신사 CEO 교체 사례

3개 이동통신사: 국유기업

- 차이나 텔리콤
- 차이나 유니콤
- 차이나 모바일

문제: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무한 경쟁 돌입

공산당 인사권 행사: 기업 상의 없이 CEO 상호 교체

- 기업(이사회)와 주주의 '경악!'

빈번한 기업 지도부 상호 교체 인사

- 후진타오 시기: 매년 1.4회
- 시진핑 시기: 매년 3.8회

### 경제 통제: 조직

국유기업 조직 통제: 공산당 조직 건립과 운영

국유기업 내 공산당 조직: 2개 종류

- 당조: 장차관급 국유기업에 설립- 당 중앙 직접 통제
- 공산당 위원회: 모든 국유기업에 설립- 기업 영도 핵심

방침: '교차 겸직'과 '쌍방향 진입'

- 교차 겸직: 기업 이사장/ 최고 경영자 = 당서기 겸임
- 쌍방향 진입: 당 지도부(서기/ 부서기/ 기율위원 등) = 기업 지도부(회장/CEO/이사/감사) 상호 겸직

->쌍둥이 기업 거버넌스

- 공산당 조직: 중대 방침과 인사권
- 기업조직: 방침 집행과 기업경영

## 경제 통제: 정책

**국유기업 정책 통제: 국가 정책의 집행 수단(도구)**

**질문: 왜 한국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은 실패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성공하는가?**

**방침: 국가의 정책 결정 -> 국유기업(은행)의 참여와 집행**

-국가 정책: 공산당/ 국가 차원의 결정

-국유기업: 무조건 참여와 집행 <- 공산당 영도의 간철

**중국의 강력한 외교 수단: 경제력 행사(경제 외교)**

-해외 자원(석유)과 중요 기업 매입(M&A)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자유무역협정(FTA)과 해외직접투자(FDI)

**국유기업 정책 통제: '일대일로'(2013년~현재)**

**목적: '중화 경제권 건설'**

-연결성: 고속철/ 고속도로/ 5G/ FTA

-미국의 중국 견제 대응책: 군산 안보(미) <-> 경제(중)

**자원 투입: 중국 정부는 공개하지 않음**

-해외 투자 4조 달러 중 일대일로: 2조 달러

-아이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국유기업 참여**

-전체 참여 기업 중 70%~80% 국유기업

-국책은행: 중국건설은행 주도

**국유기업 정책 통제: Rio-Tinto(호주) 인수 시도 사례**

**배경: 중국의 철광석 해외 의존(전체의 2/3)**

-2007년 BHP-Billition의 Rio-Tinton 매수 선언 -> 세계 철광석의 1/3 독점 -> 중국 산업 안전에 영향

**과정: 중국의 인수 결정과 집행**

-공산당/ 국무원의 결정

-중국 알루미늄공사: Rio-Tino 주식 9% 매입

**결과: 실패**

-호주 정부/ 여론의 반대 -> Rio-Tino의 계약 파기

-중국 정부 : Rio-Tino 직원 간첩 혐의로 체포

## 국유기업 개혁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기업이 91개를 차지하였다. 중국석유(Sinopec)가 세계 3위, 페트로 차이나(Petro China)가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국유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유기업들은 영업수익의 비효율성, 인사 제도의 폐쇄성, 경쟁력 부족, 중공업 중심의 구조라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2012년 11월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 강화'라는 새로운 시각의 국유경제 개혁개념을 제시하여 국유경제 개혁의지를 표명하였다. 국유경제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8기 3중전회에 앞서 발표된 383방안 에서도 '삼위일체' 개혁이 논의되는 등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 11월 개최된 제18기 3중전회에서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추진, 국유자본 투자부문의 민간자본 개방, 국유자산경영제도 개혁이 제시되면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인 혼합소유제는 1997년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유지분을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이 교차 지배, 즉 사회 및 민간 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다원화된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한편 시장의 기능 또한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민간자본의 시장경쟁 참여, 법률적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조치를 통해 혼합소유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으로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자본 중심의 관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유자본 관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공공서비스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유제가 주도하는 국민경제'를 재강조하면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뜻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 중앙 관리 기업

중국에는 국유기업(國有企業)이라는 개념이 있다. 단어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국유기업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기업(央企)'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국유기업 (地方企业)'이다. 중앙기업의 원래명칭은 '중앙관리기업(中央管理企业)'으로 중앙인민정부 또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자 역할을 위탁한 기업으로 한국어로 따지면 '공기업'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출자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기업은 98개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의 규모가 큰 만큼 중국의 중앙기업도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중앙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39조 4000억 위안이며 순이익은 1조 9000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000조 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중앙기업으로는 시노펙(中国石化),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이 있으며, 국가전망(国家电网), 중국건축(中国建筑), 중국연초(中国烟草) 등과 같은 기업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1~2위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계급 규모를 가진 중

양기업들도 등급이 매겨 지는데 바로 정부급(正部级)과 차관급(副部长级)으로 나누어진다.

일단 중앙기업 중 정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기업은 3곳이 있는데 국가철로(国家铁路), 중투그룹(中投集团), 중신그룹(中信集团)이다. 이 세 기업들은 규모도 상당하지만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과정에서 수행하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기업들은 국무원 직속으로 관리되며 정부급에 속하게 되었다.

## 국유기업

최근, 점점 더 많은 중국의 국유기업이 글로벌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중국에서 대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국유기업은 과거全民所有制 기업 또는 국영기업으로 불리다가 1992년 10월 이후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유기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과거 중국에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국가 소유였는데, 국유기업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할당된 종업원과 원부자재를 이용해 생산을 담당하고 생산물을 국가가 지정한 상대에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종종 산업 규제 장치나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핵, 전력, 항공우주, 조선, 천연가스, 원유 등 중요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국유기업의 중국 내 중요성은 경제 통계 수치보다 훨씬 크다.

현재는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SASAC, 이하 '국자위')가 국유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자위는 관리업무만 맡을 뿐 주주로서의 이익은 배당받고 있지 않으며 국자위의 감독으로 기업의 경영권 확보, 주주의 권익 보호 등이 이루어진다.

## 일대일로 전략 추진 배경 및 과정

### 대내·외적 추진 배경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육상)와 명나라(해상) 시절의 실크로드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대외개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견제하고,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내적으로 생산능력 과잉문제 해결, 안정적인 해외 자원 확보, 국 가안보 강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 등을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달성하려고 함.

###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

'일대일로' 전략 추진 대상국(이하 '일대일로 대상국')에는 러시아·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 남아시아 8개국, 중동 및 유럽 16개국,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16

개국, 독립국가연합 6개국 등 총 6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일대일로 대상지역은 전체 세계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명, 경제규모 21 조 달러에 이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에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담당기구를 설립하고, 이어서 행동계획과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 11화 공산당 통제 기제 평가

관점)

중국의 '성공' <-> 소련의 '실패'(붕괴)

→ 두 가지 현상 동시에 설명해야 하는 과제

공산당 일당 체제의 견고한 유지

권위주의 정치 행태와 공산당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율

비약적인 사회 경제 발전의 지속

연평균 9.4% 성장 : GDP 100배, 1인당 GDP 80배 성장

→ 균형 잡힌 관점 : 공산당 통제 기제의 양면성

소극적 측면 : 권위주의 통치 행태 지속 <- 민주 건설 관점

적극적 측면 : 경제 발전과 국민 지지 <- 국가 건설 관점

인사)

인사 통제 평가 : 성과

유능한 간부 충원과 개혁 개방 성공

세계 최대의 통치 엘리트 교체 : 혁명 간부 -> 기술관료

체계적인 인사 제도 : 임명/ 교육/평가/감독

장쩌민/후진타오 시기 20년(1992-2012)

- '기술 관료의 전성 시대' :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매진

- 기술관료 출신의 통치 엘리트 : 전문성과 실용성 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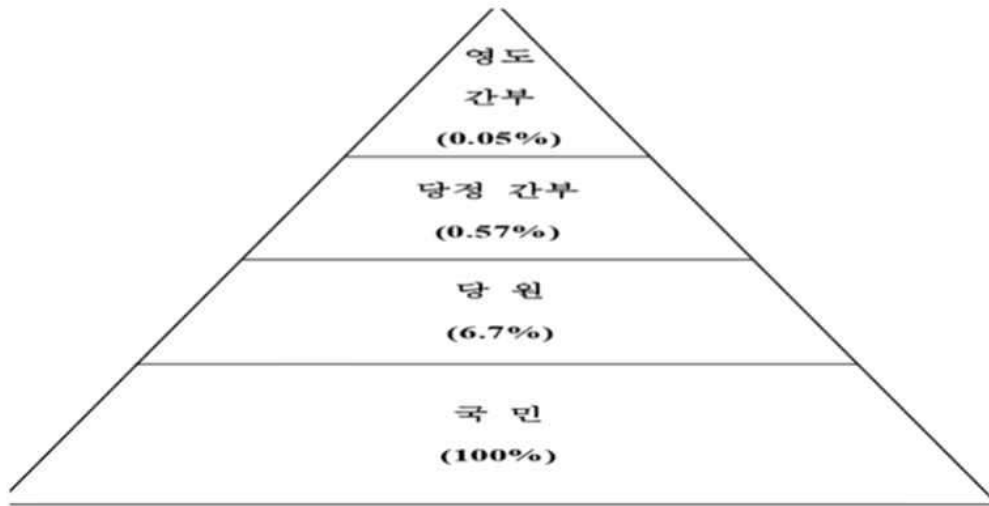
<-> 혁명 간부 : 이념적 성향과 대중 동원(선전 선동) 전문가

시진핑 시기(2012년 -현재)

- '개혁 개방의 실천가' : 개혁기 대학교육과 개혁 정책 집행

인사 통제 평가 : 문제점

공산당 주도의 새로운 계급사회 출현 : 공산당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삼자 통치 연합’ 유지 : 정치 + 경제 + 지식 엘리트 결합**

- 노동자/농민의 무력화 : ‘삼자 통치 연합’에 의해 열세
- ➔ ‘삼자 통치 연합’이 유지되는 한 정치 민주화 불가능

**당 간부와 공무원 : 공산당의 대리인/특권 집단**

- 공산당의 ‘당관간부’ 원칙 : 인사권 행사
- ➔ 중국의 민주화 : 공산당의 인사 독점권 폐지

**인사 제도의 맹점 : 당정간부의 부패 문제**

- 해결책 : 행정(투명성과 공정성) / 정치(민주제도)
- ➔ 중국 : 행정 방식의 일부만 채용(부패 해결 불가능)

**조직)**

**조직 통제 평가 : 성과**

**공산당 영도 체제의 유지(공산당 관점에서 최대 성과)**

- 중앙에서 기층까지 거미줄 같은 공산당 조직 체계 유지
- 신생 사회세력(사영기업/사회단체) 통제 성공 : 당 조직

**민주화 운동의 진압과 정치 안정 유지**

- 1986-87년 대학생 운동 /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실패
- 자연발생적인 대학생 / 시민의 민주화 요구 : 조직 결집 아님

**핵심 세력의 공산당 지지**

- 기업가/중산층 : 개혁 개방의 최대 수혜자 -> 공산당 지지
- 대학생 : 공산당 입당 가장 열망하는 집단 <- 대학 통제 성공

**조직 통제 평가 : 문제점**

**정치 권력의 '집중' 심화 : '당 서기 천하' 의 도래**

- 공산당 전면 영도 강화 -> 공산당 중앙 권력 강화 -> 총서기 권한 강화 : 시진핑 '일인 지배'의 첫발 시작
- 지방에서도 동일한 현상 등장

**공산당으로의 권력 집중**

- 공산당과 국가/사회/기업 관계 : 공산당으로 권력 집중
- 중앙-지방 관계 : 중앙으로 권력 집중

<-> 개혁 개방 : 시장화/ 사유화/ 개방화/ 분권화에 역행

**국가/사회/기업/지방의 활력 저하**

- 공산당/중앙의 통제 강화 -> 복지부동/ 수동적 태도 증가
- 

**사상)**

**사상 통제 평가 : 성과**

**사회주의 이념의 혁신 : 개혁 개방 정당화와 국민 설득**

- 덩샤오핑 이론 : 사회주의 초급단계 / 사회주의 시장경제
- 장쩌민의 삼대대표 이론 - 사영기업에 정치적 지위 부여
-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 균형 발전 전략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공산당원 학습 : 당의 통합(단결)과 지지 유지**

**국민 교육 운동의 전개**

- 법률 지식 보급 운동 : 기성 제도 통한 사회갈등 해결 유도
-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애국주의 교육 운동 : 사회주의 이념 약화 보완 성공

**사상 통제 평가 : 문제점**

**집단주의의 강조 : 개인 가치의 수용 문제**

- 집단주의 : 중화민족의 중흥/국가 발전/ 공산당 영도 등
- 개인 가치 요구 증가 :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 증가/ 치열한 시장 경쟁과 사회적 갈등 확산 등

**지식인의 '질식 상태'와 '정체된 사회'**

- 지식인 : 사상 통제의 핵심 대상 -> '질식 상태' : 역할 상실
- 지식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상태
- 언론 통제 강화(공산당의 입) : 건강한 비판 실종
- 10년 이후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비판의식 없어질 수 있다. -> 자정능력 떨어질 수

있다.

###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가치 충돌 증가

- 중국의 애국주의 <-> 국제사회의 보편주의 요구

### 종합)

####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인가?

#### 종합 평가 : 적극적 측면 > 소극적 측면

- 중국 국민 관점 : 문제 있지만 성과를 더 높이 평가

#### [원인 1] '연성' 통제 기제와 '경성' 통제 기제의 결합

- 일상적으로는 '연성' 기제 작동 : 공산당 영도 체제 유지
- '경성' 기제는 보완 수단 : 국민 중 극히 일부만 실제 체험

#### [원인 2] 전 세계 '민주화 후퇴' : Strongman 시대 도래

- 민주적 보편 가치의 상실 : 약육강식의 현실주의 등장
- 미.중 경쟁의 악화 : 강한 지도력에 의한 부국강병 열망

### <중국의 지식인 통제 >

#### <중국의 지식인 통제>

시진핑 정부의 사상통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 내 학자들이 책을 출간하거나 잡지에 글을 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학술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 지식인의 현실을 보면 과거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2013년 중국공산당은 정부 기관과 대학에 자국민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일곱 가지(七不講)'와 '말해도 되는 것 열두 가지(十二語)'를 규정해 하달했다. △보편적 가치 △보도의 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공산당의 역사적 과오 △특권 귀족의 자산계급 △사법 독립이 7불강(不講)이다. 부강, 민주, 문명, 화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敬業), 성신(誠信), 선우(友善)는 12어(語)에 해당한다.

#### 코로나 시기 중국의 지식인 통제는 어땠을까?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전인대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집단 청원을 냈다.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내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었다.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이런 반발 때문에 코로나 발병 후 시진핑은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 당시 시진핑의 행보는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대중의 건강과 제대로 된 사태 수습보다 책임 면피와 체제 안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 덩샤오핑 이론

78년 말 개혁·개방을 선언한 덩샤오핑 시대는 '3개 유리(三個有利)'라는 말로 압축된다. 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남부도시들을 순방하며 개혁·개방을 촉구했던 발언)'에 나온 이 말은 '생산력과 종합 국력과 인민 생활수준 등 3개 요소에 이롭다면 결국 좋은 것'이라는 뜻이다. 덩샤오핑은 특히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과 함께 선부론(先富論)을 경제 구호로 내세우며 불균형 성장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흑묘백묘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진두지휘해온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주장한 말이다. 덩샤오핑은 1997년 2월 19일 사망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어느 자본주의국가 못지않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선부론은 '누구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자'는 뜻이다. 이는 부자가 돼야 나눠줄 것이 생기니 먼저 돈을 벌라는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진다'는 뜻으로, 지역적으로는 중국 동남연해를 먼저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내륙 지방도 발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결국 덩샤오핑이 주장한 경제이론은 사회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배'가 아니라 '성장'에 치중한 정책을 낳았다. '성장이나 분배냐'를 놓고 논쟁하지 말고, 먼저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것이다.

## 장쩌민의 '삼개 대표 이론'

<삼개대표의 내용>

1. 항상 중국의 선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한다. (始終代表中國先進社會生產力的發展要求)
2. 항상 중국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한다. (始終代表中國先進文化的前進方向)
3. 항상 중국 대부분의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 (始終代表中國最廣大人民的根本利益)

'삼개대표 이론(三個代表論)'은 중국 공산당이 생산력, 문화, 광대 인민의 근본이익 등 세 가지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광대 인민'에 있다. 인민은 노동자와 농민을 뜻한다. 앞에 수식어 '광대'가 들어간 건 '자본가'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예전에는 타도 대상인 자본가도 끌어안으며 전체 인민의 당인 전민당(全民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에 힘입는 기업가는 창의성을 발휘해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굴지의 민영기업을 일궈냈다.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용인하고 심지어 주도해야 했다. 시장경제의 발전

에 따라 수업이 양산된 자본가들을 적대시한다면 공산당은 국가와 전체 인민을 대표한다고 자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 후진 타우 과학적 발전관

중국은 2007년 10월에 개최된 1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과학적 발전관'을 새로운 발전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분배는 물론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를 함께 챙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일종의 국정 지표다. 후 주석은 2003년 10월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전면적, 협조적, 지속 가능한 발전관"을 처음 제기했다. 이어 후진타오 집권 2기를 여는 2007년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의 중요 '행동지침'으로 규정됐다.

과학적 발전관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번째가 경제발전모델 전환이다. 중국의 미래를 위해선 개발 도상국형 경제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균형 발전이다. 선부론을 바탕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주요 대도시와 동부 연안의 성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낙후한 서부와 내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과제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부와 동북 3성, 중부지역 역점 개발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을 추진해가야 한다는 논리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 그리고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발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 주석은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 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서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전임자인 장쩌민의 '3개 대표' 사상에 이어 후진타오 주석이 주장해 온 '과학적 발전관'이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 방침이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사상'으로서 「공산당 당장」에 삽입되었다.

## <팀원 소감>

8주 동안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강의를 본 후, 강의 내용을 정리,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국의 공산당 조직체제, 영도체제와 사상통제, 소셜미디어 통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매주 다른 주제에 대한 강의를 보면서 중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조직통제에 대한 내용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고위 관리직들에 대한 통제가 체계적이고 심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더 조사해보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조사할 때 여러 기사나 논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얻고 강의 내용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중국공산당 영도체제부터 공산당 통제기제 평가까지 중국통영상을 통해 학습하면서 중국공산당과 통치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영상을 시청한 뒤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각자 조사하고 그것을 조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갈 수 있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국정치에 관한 수업 들으며 개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8주간 차이나플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아예 몰랐던 부분과 놓친 부분이 많다는 걸 알았고 영상 보고 각자 모르는 부분 조사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니 확실하게 기억에 남게 되고 새로 알게 되어서 좋았다.

중구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차이나플러스 프로젝트 주제를 정치관련하여 정하였다. 조영남 교수님의 중국통영상을 보면서 중국의 정치구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영상을 시청하고 그것을 요약정리하면서 한번 더 정리가 되었다. 또한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정치관련 기사를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